

자유론 (On Liberty)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W. L. Courtney, LL.D. 월터 스코트 출판사 (The Walter Scott Publishing Co. Ltd.) 런던 및 펠링-온-타인, 뉴욕 및 멜버른

현정사 내 글에서 가장 훌륭한 모든 것의 영감을 주고, 부분적으로는 저자이기도 했던, 사랑받고 애도 받는 그녀의 기억에 이 책을 바칩니다. 그녀는 진리와 정의에 대한 고귀한 감각으로 나를 가장 강하게 자극한 친구이자 아내였으며, 그녀의 칭찬이 나의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지난 수년간 쓴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나만큼이나 그녀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이 작품은 그녀의 검토라는 헤아릴 수 없는 이점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일부는 더 신중한 재검토를 위해 남겨두었으나, 이제 그녀가 그 검토를 받을 운명은 영원히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녀의 무덤에 묻힌 위대한 사상과 고귀한 감정의 절반이라도 세상에 해석할 수 있다면, 나는 그녀의 비할 데 없는 지혜에 의해 자극받거나 도움 받지 않고 내가 쓸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이익을 세상에 전할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서문 (INTRODUCTION)

I.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 5월 20일에 태어났다. 그는 연약한 아이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설계한 비범한 교육은 그의 신체적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향상시키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결코 소년이 아니었다. 크리켓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운동은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 동안 아버지 밀은 아들에게 강의하고 그의 공부를 점검했다. 다른 방식의 처우가 가져올 수 있었던 결과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밀은 평생 연약한 상태로 남았지만, 신체적 약함과 종종 결합되는 강렬한 정신적 에너지를 부여받았다. 그의 청춘은 한 가지 이념에 희생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도록 설계되었으며, 소년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14세에 사무엘 벤담 장군의 가족과 함께 남프랑스를 방문한 것은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른 분위기를 엿볼 기회였으며, 비록 집에서의 학문적 습관은 유지되었지만, 그는 외국 정치에 대한 관심을 얻게 되었고, 이는 그의 삶의 끝까지 그의 특징 중 하나로 남았다. 1823년 그는 인도청(India House)의 심사관실에서 하급 서기로 임명되었다.

밀의 첫 에세이는 인도청에 들어가기 약 1년 전인 *Traveller*에 실렸다. 그 이후로 그의 문학적 작업은 질병의 발작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의 근면함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는 정치, 형이상학, 철학, 종교, 시와 같은 무수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글을 썼다. 그는 자신의 세대에 테니슨을 발견하게 했으며, 칼라일의 프랑스 혁명의 저술과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모든 동안 그는 더 큰 야망을 가진 작품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며, 인도청에서 단계적으로 승진했다. 그의 *정치경제학의 미해결 문제에 관한 에세이*는 1831년에 작성되었으나, 13년 후에야 출판되었다. 그의 *논리학 체계*는 이미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형성되고 있었으며, 완성하는 데 13년이 걸렸고, 실제로는 *정치경제학*보다 먼저 출판되었다. 1844년에는 미술레에 대한 기사가 출판되었는데, 저자는 이 기사가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다음 해에는 "노동의 요구"와 "기조"에 대한 글, 1847년에는 *Morning Chronicle*에 아일랜드 문제에 관한 기사를 썼다. 이 시기는 콩트(Comte)와의 우정과 서신 교환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성격이 매우 다른 두 사람 간의 흥미로운 동료 관계였다. 1848년 밀은 *정치경제학*을 출판했는데, 이는 *논리학* 완성 이후 그가 진지하게 연구한 결과물이었다. 그의 기사와 리뷰는 많은 작업을 포함했음에도—예를 들어, 그로테의 *그리스사*를 리뷰하기 전에 원문으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다시 읽는 것과 같은—학생에게는 여가 활동이었다. 1856년 그는 인도청의 심사관실 책임자가 되었고, 2년 후 인도가 왕실로 이관되면서 그의 공식 업무는 끝났다. 같은 해 그의 아내가 사망했다. *자유*는 그 직후 출판되었으며, *의회 개혁에 대한 생각*도 출판되었다. 그리고 매년 밀은 당시의 정치적, 철학적, 윤리적 문제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아내가 사망한 지 7년 후, 밀은 웨스트민스터 선거에 출마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선거 과정에 대한 그의 견해는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했고, 그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장 솔직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는 하원에서 전형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연설자로서 그는 매력을 부족하게 느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널리 느껴졌다. 글래드스톤 씨는 "하원 전체를 위해, 나는 그의 등장을 기뻐했고 그의 사라짐을 애도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말했다. 의회에서 단지 3년을 보낸 후, 그는 다음 총선에서 W. H. 스미스 씨에게 패배했다. 그는 아비뇽으로 은퇴하여 아내와 함께 가장 행복한 세월을 보냈던 작은 집에서 계속해서 사심 없는 노동을 이어갔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의 분석* 편집을 완성했으며, 덜 중요한 작업 외에도 의붓딸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 *여성의 예속*을 출간했다. *사회주의*에 관한 책이 구상 중이었으나, 이전의 *사회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완성되지 못했다. 그는 1873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마지막 세월은 의붓딸의 따뜻한 보살핌과 진지한 지적 공감 속에서 평화롭게 보내졌다. 그녀로부터 그는 아마도 그의 영적 삶을 비추었던 빛의 멀리 떨어진 반영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II.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를 쓴 상황은 테일러 부인이 그의 경력에 미친 영향과 크게 관련이

있다. 헌정사는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어떤 철학자가 여성에 대해 쓴 가장 비범한 찬사로 가득하다. "만약 내가 그녀의 무덤에 묻힌 위대한 사상과 고귀한 감정의 절반이라도 세상에 해석할 수 있다면, 나는 그녀의 비할 데 없는 지혜에 의해 자극받거나 도움받지 않고 내가 쓸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이익을 세상에 전할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에 대해 세속적 냉소주의가 회의적인 미소를 짓는 것은 쉽다. 감정의 과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제임스 밀과 같이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건조한 빛"에 따라 혼란 받은 사람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인용된 구절은 존 스튜어트 밀이 아내의 지적 영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선언한 유일한 부분이 아니다. *자유*에 대한 논문은 특히 그녀의 권위와 격려 아래 쓰여졌지만, 그녀가 그의 정신에 미친 힘에 대한 더 이른 언급이 많이 있다. 밀은 1831년에 테일러 씨의 집에서 열린 만찬 파티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으며, 그 자리에는 Roebuck, W. J. Fox, 해리엇 마티노 양 등이 함께 있었다. 그들의 친분은 빠르게 친밀감으로, 그리고 우정으로 발전했고, 밀은 이 특별한 관계의 모든 장점을 끊임없이 칭찬하곤 했다. 그의 *정치경제학* 작품의 일부 헌정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헌정사를 썼다: "존 테일러 부인에게, 저자가 아는 모든 사람 중 사회 발전에 대한 사색을 창조하거나 평가하는 데 가장 높은 자격을 가진 분에게, 이 작품을 최고의 존경과 존중으로 바칩니다." 여성의 권리 확대에 관한 기사는 또 다른 찬사의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1869년에 출판된 훨씬 후의 책 *여성의 예속*을 테일러 부인의 영향으로 돌리는 데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서전*의 페이지들은 그의 "거의 틀림없는 조연자"에 대한 디티람직한 칭찬으로 가득하다.

이 놀라운 친밀감의 사실은 쉽게 서술될 수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더 어렵다. 밀의 열증이 그의 지인과 친구들에게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그의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그를 다른 남자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Roebuck, Grote 부인, Austin 부인, 해리엇 마티노 양은 금지된 주제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테일러 부인은 그녀의 딸과 함께 시골의 숙소에서 살았다. 그러나 1851년에 그녀의 남편이 사망했고, 그때 밀은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 그녀의 장점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렸으나, 1858년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밀은 친구들과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했다. 밀의 남동생 중 하나인 조지 밀은 그녀가 영리하고 뛰어난 여성이었다고 보았지만, "존이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칼라일은 그의 회고록에서 그녀를 모호한 형용사로 묘사했다. 그녀는 "생동감 있는", "무지개빛의", "창백하고 열정적이며 슬퍼 보이는, 왕당파 의지와 의문스러운 운명을 가진 살아있는 로맨스 여주인공"이었다. 이런 판단으로 많은 것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칼라일 부인이 "그녀는 위험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한 적이 있고, 칼라일이 그녀는 위험한 것 이상으로, 후원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인 점에서 더 확실한 근거를 얻는다. 밀과 그의 아내가 칼라일 부부와 가까운 접촉을 한 사건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 혁명* 첫 권의 원고가 밀에게 대여되었고, 밀 부인의 하인에 의해 우연히 소실되었다. 밀과 그의 아내는 칼라일의 집 문 앞까지 마차를 몰고 갔으며, 아내는 말없이, 남편은 대화로 가득 차 있어 두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수다를 떨며 칼라일을 붙잡았다. 그러나 가넷 박사는 그의 *칼라일의 생애*에서 밀은 자신이 책임진 재앙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했으며, 피해를 입은 저자에게 그가 제안한 200파운드의 절반을 받아가게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밀 부인은, 내가 말했듯이, 1858년에 사망했으며, 남편과의 7년간의 행복한 동반자 생활 후 아비뇽에 묻혔다. 밀은 그녀의 무덤에 쓴 비문은 너무 특징적이어서 생략할 수 없다: "그녀의 위대하고 사랑 넘치는 마음, 고귀한 영혼, 명확하고 강력하며 독창적이고 포괄적인 지성은 그녀를 인도자이자 지지자, 지혜의 스승이자 선함의 본보기로 만들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행복을 가진 이들에게 그녀는 유일한 지상에서의 기쁨이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헌신적이었던 만큼 모든 공익을 위해 열정적이었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이 시대의 가장 큰 개선에 느껴졌고, 앞으로 올 개선에도 느껴질 것이다. 그녀와 같은 마음과 지성을 가진 이가 몇 명만이라도 있다면, 이 지상은 이미 희망하는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은 밀의 감정의 강렬함을 증명하며, 풍부한 말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며, Grote가 말했듯이, 밀의 명성만이 이러한 유사한 표현을 견딜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은 밀의 경력에서 이 낭만적인 에피소드를, 철학적 정신과 이러한 드물지 않은 관계의 가치에 대한 경험에 따라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그것은 열중의 한 조각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밀의 경력에서 가장 은혜롭고 인간적인 페이지였을 수도 있다. 밀 부인은 남편의 허영을 그의 의견을 되풀이함으로써 아첨했을 수도 있고, 영감

과 지적 도움을 가득 채운 에게리아(Egeria)였을 수도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일은, 철학자 자신이 남녀 평등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다른 종류와 질서의 정신 사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추상적 사변의 영역에 생각이 점령된 사람에게 구체적 사실의 생생하고 선명한 제시가 즐겁고 기분 좋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여성의 본능은 종종 그녀가 진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철학적 추론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진리를 예시할 수 있게 한다. 반면, 더 신중한 논리적 방법과 공식적 추론의 느린 과정을 가진 남자는, 결론에 도달하는 행복한 직관이 실제로 그가 자신의 경우에 의식하는 지적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가정하기 쉽다. 따라서 행복한 계약의 양 당사자는 똑같이 만족한다. 추상적 진리는 구체적 예시를 얻고, 구체적 예시는 일련의 추상적 탐구에서 적절한 기초를 찾는다. 아마도 칼라일의 "무지개빛"과 "생동감 있는"이라는 형용사는 밀 부인의 빠른 통찰력을 우연히 언급한 것이며,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작업의 상호 이점에 유용한 빛을 던져준다. 그러나 이런 신비에 베일을 들추려는 시도조차 거의 무례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밀의 아내에 대한 과장된 언급을 안타깝게 여길지라도, 어떤 이유로든 그 부부가 이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테일러 부인이 밀과 결혼 전후에 그의 사상과 공적 작업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남아 있다. 여기서 나는 이전에 쓴 작품[1]에서 이미 작성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밀은 *자서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준다. 그녀를 처음 알았을 때 그의 사상은 논리학 주제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러나 출판된 논리학 작품은 그녀에게 교리에 있어 아무런 빛을 지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밀의 습관은 전체 책을 쓰고 일반적인 구성을 완성한 후, 문구와 구성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힘들게 다시 쓰는 것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테일러 부인은 스타일 비평가로서 그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교리 비평가로서 그녀는 자격이 거의 없었다. 밀은 이 점에서 명확한 인정 몇 가지를 했다. "내 사고 방식에서 실제로 일어난 유일한 혁명은 이미 완료되었다"[2]고 그는 그녀의 영향이 지배적이 되기 전에 말했다. 그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평가(Dr. Bain이 주목할 바 있음)는 처음 읽을 때 이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내 문학적 삶의 대부분 동안 나는 그녀와 관련하여, 내가 사고의 영역에서 가장 유용한 역할을 할 자격이 있다고 꽤 이른 시기부터 여겼던, 원래 사상가들의 해석자이자 그들과 대중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지금까지는 밀은 그의 신탁의 발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서 이루어진 매우 주목할 만한 예외를 보자: "나는 원래 사상가로서의 내 능력에 대해 항상 겸손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추상 과학(논리학, 형이상학, 정치경제학 및 정치의 이론적 원칙)에서는 제외하고 말이다."[3] 밀은 논리학, 형이상학, 경제학 및 정치학에서 원래 사상가였다면, 그는 그녀의 입술에서 이것들을 배우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논리학과 형이상학은 원래 사상의 영역으로, 정직하게 주장할 수 있다면 충분한 구별의 칭호가 된다.

테일러 부인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도움은 특정한 명확한 점으로 제한된다. 순수 과학적 부분은 그녀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받는다. "그러나 이 책에 이전의 어떤 과학적 주장을 가진 정치경제학 해설과 구별되는 일반적인 톤을 부여한 것은 주로 그녀의 영향이었다. 그리고 이는 그 이전 해설들이 거부했던 마음들을 화해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게 만들었다. 이 톤은 주로 부의 생산 법칙과 분배 방식 사이의 적절한 구분을 만드는 데 있었다. 전자는 물체의 속성에 의존하는 자연의 실제 법칙이며, 후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인간의 의지에 의존한다... 나는 실제로 이 관점을 부분적으로 생시모니앙(Saint-Simonians)의 사색에서 깨어난 생각에서 배웠다. 그러나 그것이 책을 관통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살아있는 원칙이 된 것은 아내의 자극 때문이었다."[4] 강조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도,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밀은 스스로 문제를 생각해내고, 생각의 구체적 형태는 아내에 의해 제안되거나 자극받는다. 이 "일반적인 톤" 외에도, 밀은 특정한 기여가 있었다고 말한다. "다른 모든 것보다 의견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장, 즉 노동 계급의 가능한 미래에 관한 장은 전적으로 그녀 덕분이다. 책의 초안에서는 그 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러한 장의 필요성과 그것이 없는 책의 극단적인 불완전성을 지적했다. 그녀는 내가 그것을 쓰게 만든 원인이었다." 여기서 그녀가 밀에게 사회주의로의 경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사색에 진보적 정신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가 이전에 주장했던 소농 소유권에 대한 옹호와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아내의 지적 동반자 관계의 도움을 받아 그가 후속 작품에서 제안한 개인 자유의 교리와도 표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개인 자유의 이상은 사회주의의 이상이 아니며, 사회주의자가 의지하는 정부의 도움 요청은 방임주의

(laissez-faire)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는 밀과 그의 아내가 함께 구상한 것이다. 아마도 약간의 사변적 비전은 밀 부인의 속성이었을 것이며, 엄격한 논리적 원칙의 부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안정적인 영향력[5]의 사례인지, 아니면 밀의 다양한 지적 양분에 하나 더 동화되지 않은 요소를 추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열린 질문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밀의 한 책, *여성의 예속*의 부모임을 인정하는 데 틀리지 않을 것이다. 밀은 이미 남성과 여성이 법적, 정치적, 사회적, 가정적 관계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는 그가 이미 아버지의 *정부에 관한 에세이*와 충돌했던 지점이었다. 그러나 테일러 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실제로 글을 썼으며, 여성의 예속에 대한 밀의 비난의 열정과 열렬함은 틀림없이 아내가 여성의 위치로 인해 초래되는 실질적 장애에 대한 견해에서 비롯되었다.

III.

*자유*는 19세기가 절반이 지나간 1859년에 출판되었지만, 그 일반적인 정신과 일부 특별한 경향에서 이 작은 논문은 태어난 시기보다는 18세기의 관점에 더 속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많은 사색에서 초기 영국 경험주의 학파의 교리와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이름과 연관된 교리 사이의 일종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그의 *논리학*에서 그는 흄(Hume)의 이론을 발전시키지만, 과학의 승리가 초기 사상가의 결론을 얼마나 깊이 수정하는지를 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그의 *정치경제학*에서 그는 리카도(Ricardo)를 개선하고 확대하고자 하지만, 이후—특히 독일—의 주제에 대한 사색에서 나타난 사회학에 의한 정치경제학의 수정만큼 멀리 나아가지는 않는다. *자유* 논문에서 밀은 개인의 권리를 사회에 대항하여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 사회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던 시대의 시작점에 있었다. 18세기의 관점은 개인이 먼저 존재하며, 각자가 자신의 특별한 요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이나 다른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사회적 상태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임의로 생성된 사회적 유기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한했다. 이것은 19세기의 관점과는 거의 다르다. 논리적으로는 개인이 국가보다 우선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자연의 순서에서는 국가가 개인보다 우선이다. 즉, 현대 세계에서 모든 단일 인격이 가지는 권리는 자연의 원래 명령에 의해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태의 성장과 발전에서 천천히 획득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어떤 의도적 행위에 의해 공동체를 만들 때 상실되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래전에 말했듯이, 인간은 자연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며, 그가 속한 질서, 사회, 또는 공동체에 비하면 거의 비존재에 가까운 단순한 항목으로 엄격한 사회적 법 아래에서 살았다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 획득한 특권은 성장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얻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라도 진실이라면, 밀의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개인은 사회적 유기체에 대항할 기회도, 권리도 없다. 사회는 반사회적 성격의 행동이나 심지어 의견에 대해 그를 처벌할 수 있다. 그의 덕은 동료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인정하는 데 있다. 그의 활동 범위는 공익에 의해 제한된다. 모든 사람이 원래 평등하다는 이론이 터무니없고 폭로된 이론인 것처럼, 개인이 사회에 대항하는 정신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생각할 자유를 가진다고 항변하는 것도 오래되고 잘못된 교리이다. 오늘날 우리가 M.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의 *실증철학(Philosophie Positive)*에 크게 빛진 사회와 그 발전에 대한 이 관점은 너무 익숙하고 개인의 주도권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반대 이론에 내재된 진실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진보는 통합과 분화의 공동 과정에 의존한다. 종합, 분석, 그리고 더 큰 종합이 발전의 법칙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사회가 개인에 대한 제한에서 전체적이라면, 예를 들어 자연의 거래에 대한 기만적 비유에 기반한 일부 사회주의 형태에서 유형이 전부이고 개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미래의 더 풍요로운 삶은 개인의 다양한, 심지어 적대적일 수 있는 활동에 의존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주장해야 한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왕, 귀족 계급, 과두적 부자 계급, 심지어 노동 조합과 같은 모든 형태의 정부가 그 행동에서 너무 왜소화되어 있어 미래를 위해 개인이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전 관점이 밀의 *자유* 논문의 가치를 제한했다면, 이러한 고려는 그 영원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사회의 전능함은 확실성의 죽은 수준을 의미한다. 개인의 주장이 경청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 권리는 삶이 빈약한 다양한 요소뿐만 아니라 미래 시대의

희망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인의 주도권과 노력이 영국 역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한, 폰 훔볼트에게서 얻은 제안에 기반을 두었다고 고백하는 밀의 자유는 세상의 사변과 건전성, 그리고 정신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여로 남을 것이다.

아내가 실제로 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본성의 잠재된 열정을 불러일으킨 실제적이고 생생한 힘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풍부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그녀가 아비뇽에서 사망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거의 소원해진 동반자 관계를 되찾았을지라도, 밀은 개인적으로는 더 가난해졌다. 그 상실의 슬픔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베일을 걷어낼 권리도 힘도 없다. 말하지 못한 슬픔을 웅변적으로 표현하는 단순한 말, 즉 "나는 그 상실이 무엇이었고 무엇인지를 희미하게나마 묘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녀가 그것을 원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 대한 생각과 그녀의 기억과의 교감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감소된 힘으로 그녀의 목적을 위해 남은 삶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 COURTNEY. 런던, 1901년 7월 5일.

각주: [1]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 6장 (월터 스콧). [2] 자서전, p. 190. [3] Ibid., p. 242. [4] 자서전, pp. 246, 247. [5] 자서전, p. 252의 유의한 페이지 참조.

목차

1장: 서론 1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28 3장: 웰빙의 요소 중 하나로서의 개성 103 4장: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의 한계 140 5장: 응용 177

이 페이지에서 전개되는 모든 논거가 직접적으로 수렴되는 웅장하고 주도적인 원칙은 가장 풍요로운 다양성 속에서 인간 발전의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중요성이다. - 빌헬름 폰 훔볼트: 정부의 영역과 의무.

1장: 서론

이 에세이의 주제는 의지의 자유라고 불리는 것, 즉 철학적 필연성이라는 잘못 명명된 교리에 불행히도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또는 사회적 자유, 즉 사회가 개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이다. 이 질문은 일반적인 용어로 거의 언급되지 않고,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잠재적인 존재로 인해 시대의 실질적인 논쟁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곧 미래의 중요한 질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며,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를 가장 먼 옛날부터 분열시켜 왔지만, 종의 더 문명화된 부분이 현재 들어선 진보 단계에서는 새로운 조건으로 나타나며, 더 근본적이고 다른 치료법을 필요로 한다.

자유와 권위 사이의 투쟁은 우리가 가장 먼저 친숙해지는 역사의 부분, 특히 그리스, 로마, 잉글랜드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투쟁이 피지배자, 또는 일부 계층의 피지배자와 정부 사이의 투쟁이었다. 자유는 정치 통치자들의 폭정에 대한 보호를 의미했다. 통치자들은 (그리스의 일부 대중 정부에서 제외하고) 자신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상속이나 정복으로부터 권위를 얻었으며, 어쨌든 피지배자들의 뜻에 따라 권위를 유지하지 않았고, 그들의 억압적인 행사에 대한 예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우월성에 감히 도전하지 않았고, 아마도 도전하고 싶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권력은 필요하지만,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에 대해서도 사용하려고 시도할 무기였다. 공동체의 약한 구성원들이 무수한 독수리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나머지보다 강한 약탈 동물이 있어야 했고, 그들을 제압하도록 위임받아야 했다. 그러나 독수리 왕은 하찮은 괴물들보다 무리를 잡아먹는 데 덜 몰두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의 부리와 발톱에 맞서 끊임없이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애국자들의 목표는 통치자가 공동체에 대해 행사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 권력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었고, 이 제한이 그들이 자유라고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첫째,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고 불리는 특정 면책 특권에 대한 인정을 얻음으로써, 이는 통치자가 침해하는 것이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가 침해할 경우 구체적인 저항 또는 일반적인 반란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일반적으로 더 늦은 방편은 헌법적 견제 장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동의 또는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종의 단체의 동의가 통치 권력의 더 중요한 행위 중 일부에 대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제한 방식 중 첫 번째에 대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통치 권력은 다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을 달성하거나, 이미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더 완전히 달성하는 것이 어디에서나 자유 애호가들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인류가 한 명의 적으로 다른 한 명의 적으로 싸우고, 그의 폭정에 대해 다소 효과적으로 보장받는 조건으로 주인의 통치를 받는 것에 만족하는 한, 그들은 이러한 지점을 넘어 자신의 열망을 펼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사에서 시대가 도래하여 사람들은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독립적인 권력이어야 한다는 것을 자연의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국가의 다양한 치안 관사가 자신들의 뜻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한 방식으로만 그들은 정부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안전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점차적으로, 선출되고 임시적인 통치자에 대한 이 새로운 요구는 대중 정당이 존재하는 곳마다 그 정당의 노력의 두드러진 목표가 되었고,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이전의 노력을 상당 부분 대체했다. 통치 권력이 피지배자의 정기적인 선택에서 비롯되도록 투쟁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권력 자체의 제한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통치자의 이익이 습관적으로 국민의 이익과 반대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통치자가 국민과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익과 의지가 국가의 이익이자 의지가 되어야 한다. 국가는 자신의 의지에 맞서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 스스로에게 폭정을 가할 염려가 없었다. 통치자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책임을 지고, 즉시 그들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가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권력을 그들에게 신뢰할 여유가 있었다. 그들의 권력은 단지 국가 자신의 권력일 뿐이며, 집중되고 행사하기에 편리한 형태였다. 이러한 사고방식, 또는 오히려 감정은 지난 세대의 유럽 자유주의, 특히 유럽 대륙 부분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보였다. 정부가 존재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제한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유럽 대륙의 정치 사상가들 사이에서 빛나는 예외로 두드러진다. 비슷한 감정적 분위기가 한동안 그것을 장려한 상황이 변함없이 계속되었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퍼졌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 및 철학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물에서도 성공은 실패가 관찰에서 숨길 수 있었던 결함과 허약함을 드러낸다. 국민이 자신에 대한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개념은 대중 정부가 단지 꿈에 그리거나 과거의 어느 먼 시기에 존재했던 것으로 읽힐 때 자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념은 프랑스 혁명의 일시적인 탈선과 같은 일시적인 변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방해받지 않았다. 그 중 최악의 상황은 찬탈적인 소수의 작품이었고, 어떤 경우에도 대중 기관의 영구적인 작동이 아니라 군주제적 및 귀족적 독재에 대한 갑작스럽고 경련적인 발발에 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주 공화국은 지구 표면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국가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구성원 중 하나로 느껴지게 되었다. 그리고 선출되고 책임 있는 정부는 현재 존재하는 위대한 사실에 대한 관찰과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제 "자치 정부"와 "국민이 자신에 대한 권력"과 같은 구문이 사건의 진정한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은 항상 그것이 행사되는 "국민"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며, 언급되는 "자치 정부"는 각자 자신에 의한 정부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 의한 정부이다. 더욱이 국민의 의지는 실제로 국민의 가장 다수 또는 가장 활동적인 부분의 의지, 즉 다수, 또는 다수로 인정받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의지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그들 중 일부를 억압하려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는 다른 권력 남용만큼이나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개인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의 제한은 권력 소유자가 공동체, 즉 공동체에서 가장 강한 당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중요성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사상가들의 지성과 유럽 사회의 중요한 계층의 성향 모두에게 호소력을 가지며, 그들의 실제 또는 가상의 이익에 민주주의가 불리하기 때문에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정치적 사색에서 "다수의 폭정"은 이제 사회가 경계해야 할 해악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다른 폭정들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폭정은 처음에는 그리고 여전히 일반적으로, 주로 공공 기관의 행위를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사색하는 사람들은 사회 자체가 폭군일 때, 즉 사회 전체가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개인들에 대해 폭정을 가할 때, 그 수단이 정치 공무원의 손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는 자신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 실제로 실행한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명령 대신 잘못된 명령을 내리거나, 간섭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어떤 명령이라도 내린다면, 이는 많은 종류의 정치적 억압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폭정을 행사한다. 왜냐하면, 비록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처벌로 유지되지 않더라도, 삶의 세부 사항에 훨씬 더 깊숙이 침투하여 영혼 자체를 예측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안 관사의 폭정에 대한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배적인 의견과 감정의 폭정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시민적 처벌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관습을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에게 행동 규칙으로 강요하려는 사회의 경향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사회의 방식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개인성의 발전을 속박하고, 가능하면 그 형성을 방해하며, 모든 성격이 자신의 모델에 따라 형성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집단적 의견이 개인의 독립성을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찾고 침해에 맞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사의 좋은 조건에 필수적이며, 정치적 독재에 대한 보호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명제가 일반적인 용어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지라도, 실질적인 문제, 즉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 - 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적 통제 사이의 적절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는 거의 모든 것이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어떤 사람에게든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제약의 강요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일부 행동 규칙은 우선 법에 의해, 그리고 법의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많은 일에 대해 의견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이 무엇이어서 하는가는 인간사의 주요 질문이지만, 가장 명백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결에 있어 가장 적은 진전이 이루어진 질문 중 하나이다. 어느 두 시대, 그리고 거의 어느 두 국가도 그것을 동일하게 결정하지 않았으며, 한 시대 또는 한 국가의 결정은 다른 시대에게는 경이로운 일이다. 그러나 특정 시대와 국가의 사람들은 마치 인류가 항상 동의해 온 주제인 것처럼 그것에 어떤 어려움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규칙은 그들에게 자명하고 스스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의 보편적인 환상은 속담처럼 두 번째 자연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첫 번째 자연으로

오해되는 관습의 마법적인 영향의 한 예이다. 인류가 서로에게 부과하는 행동 규칙에 대한 어떤 의심도 방지하는 관습의 효과는 더욱 완전하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일반적으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각자가 자신에게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런 성격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감정이 이성보다 낫다고 믿는 데 익숙하며, 철학자의 성격을 열망하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믿음을 조장받아 왔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이유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그들의 인간 행동 규제에 대한 의견을 안내하는 실질적인 원칙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자신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각자의 마음속 감정이다. 사실, 자신의 판단 기준이 자신의 선호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유로 뒷받침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의견은 한 사람의 선호로만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비슷한 선호에 대한 단순한 호소라면, 그것은 여전히 한 사람의 선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선호일 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러한 뒷받침을 받는 자신의 선호가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이유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신조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도덕, 취향, 적절함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해서도 그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유일한 이유이며, 심지어 그 신조의 해석에서도 그의 주요 안내자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 비난받을 만한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그들의 욕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한 그들의 욕망을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많다. 때로는 그들의 이성 - 때로는 그들의 편견이나 미신: 종종 그들의 사회적 애정, 드물지 않게 그들의 반사회적 애정, 시기심 또는 질투, 오만 또는 경멸: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그들의 욕망 또는 두려움 - 그들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자기 이익. 어디에든 지배 계급이 있는 곳에서는 그 나라 도덕의 상당 부분이 그 계급의 이익과 계급 우월감에서 비롯된다. 스파르타인과 헤롯 사이의 도덕, 노예주와 노예 사이, 군주와 백성 사이, 귀족과 평민 사이, 남성과 여자 사이의 도덕은 대체로 이러한 계급 이익과 감정의 창조물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감정은 지배 계급 구성원들의 도덕 감정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이전에는 지배적이었던 계급이 그 지배력을 잃었거나, 그 지배력이 인기가 없는 곳에서는 지배적인 도덕 감정이 종종 우월함에 대한 참을성 없는 혐오감의 흔적을 지닌다. 법이나 의견에 의해 강요된 행동 규칙, 행동 및 절제 모두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결정 원칙은 일시적인 주인이나 신의 선호 또는 혐오에 대한 인류의 비굴함이었다. 이러한 비굴함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지만, 위선이 아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진정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법사와 이단자를 불태우게 만들었다. 이러한 여러 더 저열한 영향들 사이에서, 사회의 일반적이고 명백한 이익은 물론 도덕 감정의 방향에서 역할을 했으며, 그 역할은 상당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라기보다는 그로부터 발생한 공감과 반감의 결과로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사회의 이익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감과 반감은 도덕성의 확립에서 마찬가지로 큰 힘을 발휘했다.

따라서 사회, 또는 사회의 일부 강력한 부분의 선호와 혐오는 실제로 법 또는 여론의 처벌 아래 일반적인 준수를 위해 정해진 규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상과 감정에서 사회를 앞서나가는 사람들은 세부 사항에서 갈등을 겪었을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가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해야 하는지 탐구하는 데 더 몰두했으며, 사회의 선호나 혐오가 개인에게 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적이었던 특정 사안에 대해 사람들의 감정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기보다는, 이단자들 전체와 함께 자유 수호를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했다. 원칙적으로 더 높은 입장을 취하고 일관성을 유지한 유일한 경우는 종교적 신념의 경우였다. 이 경우는 여러 면에서 교훈적이며, 소위 도덕 감정의 오류 가능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진실된 광신자의 '신학적 혐오(odium theologicum)'는 도덕 감정의 가장 명백한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보편 교회라고 칭하는 것의 명예를 처음으로 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교회 자체만큼이나 종교적 의견의 차이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갈등의 열기가 가라앉고 어떤 당파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각 교회나 종파는 이미 차지한 땅을 유지하는 데 희망을 제한하게 되자, 소수자들은 다수가 될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개종시키지 못할 사람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간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거의 유일하게 이 전장에서 개인의 사회에 대한 권리가 광범위한 원칙에 근거하여 주장되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려는 사회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반박되었다. 세상이 종교적 자유를 얻게 해준 위대한 작가들은 대부분 양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는 권리로 주장하고, 인간이 자신의 종

교적 신념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을 절대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로 아끼는 모든 것에 대한 편협함은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종교적 무관심이 신학적 논쟁으로 평화가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여 저울의 무게를 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적 자유가 거의 어디에서도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다. 심지어 가장 관용적인 나라에서도 거의 모든 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관용의 의무가 묵시적인 유보와 함께 인정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 조직에 대한 의견 차이는 참지만, 교리에 대한 의견 차이는 참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가톨릭교도나 유니테리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계시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을 용납한다. 소수는 자비를 조금 더 확장하지만, 신과 미래 상태에 대한 믿음에서 멈춘다. 다수의 감정이 여전히 진실되고 강렬한 곳에서는, 그것이 복종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음이 발견된다.

영국에서는 우리의 정치적 역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록 여론의 명에는 더 무거울지라도, 법의 명에는 유럽의 대부분 다른 나라보다 가볍다. 그리고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적인 행동에 직접 간섭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이 있다. 이는 개인의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존중에서라기보다는, 정부를 공중과 반대되는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는 여전히 남아 있는 습관 때문이다. 다수는 아직 정부의 힘을 자신들의 힘으로, 또는 정부의 의견을 자신들의 의견으로 느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개인의 자유는 이미 공공 여론으로부터 받는 침해만큼 정부로부터의 침해에 노출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이 이전에 통제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개인을 통제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의 감정이 불러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문제가 법적 통제의 합법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별력이 거의 없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매우 유익한 감정이 특정 적용 사례에서는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정부 간섭의 적절성 또는 부적절성을 통상적으로 판단하는 인정된 원칙은 없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결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이 이루어지거나 악이 바로잡혀야 할 때마다 정부가 그 일을 맡도록 기꺼이 부추길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회적 악이라도 감수하기를 선호하며, 정부 통제의 대상이 되는 인간 이익의 부서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보다 그러한 악을 감수하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특정 사안에서도 자신들의 감정의 이러한 일반적인 방향에 따라, 또는 정부가 하도록 제안되는 특정 일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 또는 정부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그들이 가지는 믿음에 따라 어느 한쪽에 서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일에 적합한지에 대해 그들이 일관되게 고수하는 어떤 의견에 따라서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이나 원칙의 부재로 인해 현재 한쪽이 다른 쪽만큼이나 자주 틀리며, 정부 간섭은 거의 같은 빈도로 부적절하게 요청되고 부적절하게 비난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 에세이의 목적은 법적 처벌이라는 물리적 힘의 형태든, 아니면 공공 여론의 도덕적 강제든, 강요와 통제의 방식으로 개인이 속한 사회의 개인에 대한 모든 처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자격이 있는 하나의 매우 단순한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 원칙은 인류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들 중 누구의 행동 자유에 간섭할 정당성을 가지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보호라는 것이다. 문명 사회 구성원 중 누구에게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의 육체적 또는 도덕적 이익은 충분한 정당성이 되지 못한다.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심지어 올바른 일일 것이기 때문에 그를 정당하게 강요하거나 삼가게 할 수는 없다. 이것들은 그에게 항의하거나, 그와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그를 설득하거나, 그에게 간청하기 위한 좋은 이유이지, 그를 강요하거나 그가 다르게 행동할 경우 어떤 해악을 가하는 정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그것을 정당화하려면 그를 막고자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행동 중 그가 사회에 책임질 부분은 타인과 관련된 부분뿐이다. 오직 자신에게만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의 독립성은 권리상 절대적이다. 자신에 대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개인은 주권자이다.

이 교리가 능력의 성숙기에 있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나 법이 성년 또는 여성의 나이로 정할 수 있는 나이 미만의 젊은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해악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인종 자체가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사회의 낙후된 상태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발적인 진보의 길에 있는 초기 어려움은 매우 커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은 거의 없다. 그리고 개선의 정신으로 가득 찬 통치자는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독재는 야만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정부 방식이다. 단, 그 목적이 야만인의 개선이고 그 수단이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정당화될 경우에 해당된다. 자유는 원칙으로서, 인류가 자유롭고 동등한 토론을 통해 개선될 능력을 갖춘 시점 이전의 어떤 상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그들이 아크바르(Akbar)나 샤를마뉴(Charlemagne)를 만날 만큼 운이 좋다면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인류가 설득이나 납득을 통해 자신의 개선을 이끌어낼 능력을 갖추는 즉시 (이는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모든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에 도달한 시점이다), 직접적인 형태든, 아니면 불응에 대한 고통과 처벌의 형태든 강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만 정당화된다.

나는 이 논증이 유용성과는 독립적인 추상적 권리의 개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이점도 포기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유용성을 모든 윤리적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호소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영구적인 이익에 가장 넓은 의미의 유용성이어야 한다. 나는 이러한 이익이 각자의 행동 중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만 개인의 자발성을 외부 통제에 복종시키는 것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법에 의해, 또는 법적 처벌이 안전하게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인 비난에 의해 그를 처벌할 일차적인 근거가 있다. 또한 그가 마땅히 행해야 할 타인의 이익을 위한 많은 긍정적인 행위도 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공동 방어 또는 자신이 보호받는 사회의 이익에 필요한 다른 어떤 공동 작업에 자신의 공정한 몫을 분담하는 것, 그리고 동료 인간의 생명을 구하거나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 자비의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명백히 인간의 의무일 때마다, 그는 사회에 대해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을 질 수 있다. 사람은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하지 않음으로써도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그는 그 해악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을 진다.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신중한 강제력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 누구에게든 책임을 묻는 것이 규칙이다. 악을 방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명확하고 중대한 많은 사례가 있다. 개인의 외부 관계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그는 법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보호자로서 사회에 책임을 진다.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좋은 이유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사건의 특별한 편의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즉, 그가 자신의 재량이 맡겨졌을 때, 사회가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식보다 전반적으로 더 잘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경우이기 때문이거나,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 방지할 악보다 더 큰 다른 악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책임의 강제가 배제될 때, 행위자 자신의 양심이 빈 판단 자리에 나서서 외부 보호가 없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는 동료 인간의 판단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사회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행동 영역이 있다. 이는 개인의 삶과 행동 중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숙임수 없는 동의와 참여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오직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때, 나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발성에 근거할 수 있는 반론은 나중에 고려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 자유의 적절한 영역이다. 그것은 첫째, 의식의 내면 영역을 포함한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실용적이든 사변적이든, 과학적이든, 도덕적이든, 신학적이든 모든 주제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절대적인 자유를 요구한다. 의견을 표현하고 출판하는 자유는 다른 원칙에 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 부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의 자유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며, 상당 부분 동일한 이유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둘째, 이 원칙은 취향과 추구의 자유를 요구한다. 자신의 성격에 맞게 삶의 계획을 세우는 자유; 따를 수 있는 결과에 따라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유를 요구한다. 동료 인간의 방해 없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비록 그들이 우리의 행동이 어리석거나, 비뚤어지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지라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이다. 셋째, 각 개인의 이러한 자유로부터, 동일한 한계 내에서 개인들 간의 결합의 자유가 따른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도 자유롭게 결합하는 자유이다. 결합하는 사람들은 성년이며 강제되거나 속지 않았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자유가 대체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정부 형태가 어떻든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자유라는 이름에 걸맞은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각자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의 적절한 보호자이다. 인류는 각자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각자를 강요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다.

이 교리가 새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명한 진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재의 의견과 관행의 일반적인 경향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교리는 없다. 사회는 개인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우수성에 대한 자신의 개념에 사람들을 순응시키기 위해 (자신의 지식에 따라) 똑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대 공화국들은 공적 권위에 의한 사적 행동의 모든 부분을 규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고대 철학자들은 이를 옹호했다. 이는 국가가 시민 각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훈련 전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에서 비롯된 사고방식이었다. 이는 강력한 적에게 둘러싸여 외적 공격이나 내적 동요로 전복될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고, 약간의 에너지와 자제력 이완 기간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 자유의 건전하고 영구적인 효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소규모 공화국에서는 용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대 세계에서는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무엇보다 영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의 분리(이는 사람들의 양심의 방향을 세속적인 일을 통제하는 손 외의 다른 손에 맡겼다)로 인해 법률에 의한 사생활 세부 사항에 대한 그러한 큰 간섭이 방지되었다. 그러나 도덕적 억압의 도구는 사회적 문제에서보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서 지배적인 의견과의 차이에 대해 더 강력하게 행사되었다. 도덕 감정 형성의 요소 중 가장 강력한 종교는 거의 항상 인간 행동의 모든 부서를 통제하려는 계층의 야망이나 정교도 정신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종교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온 일부 현대 개혁자들은 영적 지배권 주장에서 교회나 종파에 뒤지지 않았다. 특히 콩트 씨는 그의 *실증 정치학 개론 (Traité de Politique Positive)*에서 개인이 대한 사회의 독재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법적 수단보다는 도덕적 수단을 통해), 이는 고대 철학자들 중 가장 엄격한 규율주의자의 정치적 이상에서 상상된 어떤 것보다도 더 나아간 것이다.

개별 사상가들의 특정한 신조와는 별개로, 세상 전체적으로도 여론의 힘과 심지어 입법의 힘에 의해서도 사회의 개인에 대한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의 경향은 사회를 강화하고 개인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침해는 저절로 사라지는 악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악이다. 통치자로서든 동료 시민으로서든, 자신의 의견과 성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 규칙으로 강요하려는 인류의 성향은 인간 본성에 수반되는 가장 좋은 감정 중 일부와 가장 나쁜 감정 중 일부에 의해 너무나 강력하게 지지되어, 힘의 부족 외에는 거의 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힘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악에 맞서 강력한 도덕적 신념의 장벽이 세워지지 않는 한, 현재의 세계 상황에서는 그것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논의를 위해 일반적인 논지에 즉시 들어가기보다는, 우선 본 장에서 제시된 원칙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현재의 의견에 의해 인정되는 단 하나의 분과에 한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 단 하나의 분과는 사상의 자유이다. 이로부터 관련된 언론과 글쓰기의 자유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자유가 상당 부분 종교적 관용과 자유 제도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의 정치적 도덕의 일부를 형성하지만, 그것이 기반하는 철학적 및 실제적 근거는 일반 대중에게는 그리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 여론 지도자들 중 많은 이에게도 기대했던 만큼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올바르게 이해될 때, 주제의 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며, 이 부분의 질문을 철저히 고려하는 것이 나머지 부분으로의 가장 좋은 서론이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가 말하려는 것 중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아닌 분들에게는, 3세기 동안 수없이 논의된 주제에 대해 제가 감히 한 번 더 논의하려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CHAPTER II.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하여

희망컨대, 부패하거나 폭정적인 정부에 대한 안전 장치 중 하나로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할 필요가 있는 시대는 지났을 것이다. 이제는 국민과 이해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에게 의견을 지시하고 어떤 교리나 주장을 들을 수 있는지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논쟁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질문의 측면은 이전 작가들에 의해 너무나 자주 그리고 성공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므로, 이곳에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는 없다. 언론에 관한 영국 법은 튜더 시대만큼이나 오늘날까지 비굴하지만, 반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장관과 판사가 정상적인 판단을 잃는 일시적인 공황 상태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토론에 실제로 적용될 위험은 거의 없다[6]. 그리고 일반적으로 헌정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완전히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이 공중의 일반적인 불관용의 도구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 표현을 통제하려 시도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과 완전히 일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한 어떤 강제력 행사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나는 국민이 스스로 또는 정부를 통해 그러한 강제를 행사할 권리를 부정한다. 그 권력 자체는 불법적이다. 최고의 정부도 최악의 정부보다 더 정당성이 없다. 그것은 공공 여론에 따라 행사될 때, 반대될 때보다 더 해롭거나, 더 해롭다. 인류 전체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의견이고,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이라면, 인류는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 한 사람이 힘을 가졌더라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만약 의견이 소유자 외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개인적 소유물이라면, 그것을 누리는 데 방해받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 손해라면, 그 손해가 소수에게 가해지는지 다수에게 가해지는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견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의 특수한 해악은 그것이 인류 전체를 강탈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도 강탈하는 것이다.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입는다. 만약 그 의견이 옳다면, 그들은 오류를 진리로 바꿀 기회를 박탈당한다. 만약 틀렸다면, 그들은 거의 똑같이 큰 이익, 즉 오류와의 충돌로 인해 생성되는 진리에 대한 더 명확한 인식과 더 생생한 인상을 잃는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가설은 그에 해당하는 별개의 논증 분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권위에 의해 억압하려 하는 의견이 거짓 의견인지 결코 확신할 수 없으며, 확신하더라도 그것을 억압하는 것은 여전히 악일 것이다.

첫째: 권위로 억압하려는 의견은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억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진실을 부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류가 없다. 그들은 모든 인류에 대해 문제를 결정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배제할 권위가 없다. 의견이 거짓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확신이 절대적인 확신과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모든 토론을 침묵시키는 것은 무오류를 가정하는 것이다. 그것의 비난은 혼란 논증에 기반을 둘 수 있으며, 혼하기 때문에 더 나쁘지 않다.

불행하게도 인류의 양식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의 오류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항상 인정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그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오류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이 매우 확신하는 어떤 의견이 자신이 범하기 쉬운 오류의 예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가정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절대 군주나 무한한 존경에 익숙한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에 대해 이러한 완전한 확신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더 행복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의견이 논쟁되는 것을 듣고, 잘못했을 때 바로잡히는 데 완전히 익숙하지 않지만,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habitually deference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의견에 대해서만 동일한 무한한 신뢰를 갖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독한 판단에 대한 사람의 자신감 부족에 비례하여, 그는 일반적으로 "세상" 전체의 무오류성에 암묵적인 신뢰를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세상은 그가 접촉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그의 당, 그의 종파, 그의 교회, 그의 사회 계층이다.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나라나 시대와 같이 포괄적인 것을 의미할 때이다. 그리고 그가 다른 시대, 국가, 종파, 교회, 계층, 당이 정반대로 생각했거나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이러한 집단적 권위에 대한 그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다른 사람들의 반대되는 세계에 맞서 옳을 책임을 부여하며, 이러한 수많은 세계 중 어느 것이 신뢰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단순한 우연에 의해 결정되었고, 런던에서 그를 교회원

으로 만든 동일한 원인이 베이징에서 그를 불교도로 유교도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결코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대가 개인보다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양의 논증으로도 명백하다. 모든 시대는 후세가 거짓일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다고 여긴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일반적인 많은 의견이 미래 시대에 거부될 것이라는 것은, 한때 일반적이었던 많은 의견이 현재에 거부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이 논증에 대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반론은 아마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 것이다. 오류의 전과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어떤 공적 기관이 자체 판단과 책임으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무오류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은 인간에게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잘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전혀 사용하지 말라고 말해야 하는가?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오류 면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적 확신에 따라 행동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의견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익을 돌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남겨둘 것이다. 모든 행동에 적용되는 반론은 어떤 특정 행동에도 타당한 반론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은 의무이다. 신중하게 형성하고,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확신할 때 (이러한 추론자들은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피하고, 진심으로 인류의 복지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교리를, 현재에서든 내세에서든, 다른 사람들이 덜 계몽된 시대에 현재 진실이라고 믿어지는 의견을 박해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널리 퍼지도록 허용하는 것은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러나 정부와 국가는 권위 행사의 적절한 대상이라고 부인되지 않는 다른 일에서도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나쁜 세금을 부과했고, 부당한 전쟁을 일으켰다. 따라서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어떤 도발이 있더라도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람과 정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해야 한다. 절대적인 확실성이라는 것은 없지만, 인간 생활의 목적에 충분한 확신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우리의 의견을 진실하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되고 해롭다고 간주하는 의견의 전과로 나쁜 사람들이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을 금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정한다고 답한다. 그것을 반박할 모든 기회를 가졌음에도 반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진실이라고 추정하는 것과, 그 반박을 허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진실을 가정하는 것 사이에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우리의 의견을 반박하고 부정할 완전한 자유는 우리가 행동의 목적을 위해 그 진실을 가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바로 그 조건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조건에서도 인간 능력을 가진 존재는 옳다고 할 어떤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의견의 역사든, 인간 삶의 일반적인 행동이든 고려할 때, 그것이 현재보다 더 나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확실히 인간 이해력의 내재된 힘 때문은 아니다. 자명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는 한 사람에 대해 전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흔아홉 명이나 있다. 그리고 백 번째 사람의 능력은 상대적일 뿐이다. 과거 모든 세대의 저명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현재 오류라고 알려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아무도 정당화하지 않을 수많은 일을 했거나 승인했다. 그렇다면 인류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견과 합리적인 행동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실제로 이러한 우세가 존재한다면—인간사가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 않거나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라면—이는 인간 정신의 특성, 즉 지적 또는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의 모든 존경스러운 것의 근원인 그의 오류는 수정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는 토론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잘못된 의견과 관행은 사실과 논쟁에 점차 굴복한다. 그러나 사실과 논쟁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그것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매우 소수의 사실만이 그 의미를 드러내는 설명 없이 스스로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판단의 전체적인 힘과 가치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힐 수 있다는 하나의 속성에 달려 있으므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끊임없이 가까이에 있을 때만 그것에 의존할 수 있다. 판단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의 경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는 자신의 의견과 행동에 대한 비판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 대해 말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듣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정당한 만큼의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자신에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것의 오류를 설명했다. 그는 어떤 주제의 전부를 아는

데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든 종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 방식 외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혜를 얻지 못했으며, 인간 지성이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현명해지는 것은 본성이 아니다.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비교하여 수정하고 완성하는 꾸준한 습관은 그것을 실천하는 데 의심과 망설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위한 유일한 안정적인 기초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명백하게 자신에게 반대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지하고, 모든 반대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취했으며—반대와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찾았고, 어떤 곳에서도 주제에 대한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그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다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이 낫다고 생각할 권리가 있다.

인류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 즉 자신의 판단을 가장 신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의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중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과 다수의 어리석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잡다한 집단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가장 편협한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조차 성인을 시성할 때 "악마의 변호인"을 인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한다. 가장 신성한 사람이라도, 악마가 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평가하기 전에는 사후의 영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뉴턴의 철학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인류는 현재 그 진실에 대해 느끼는 만큼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타당하다고 믿는 신념은 전 세계에 그것이 근거 없음을 증명하라는 지속적인 요청 외에는 의지할 보호 장치가 없다. 그 도전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졌는데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확실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존하는 인간 이성의 상태가 허용하는 최선을 다했다. 진실이 우리에게 도달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논쟁의 장이 열려 있다면, 인간 정신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더 나은 진실이 발견되기를 바랄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가능한 진실에 대한 접근을 달성했다고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오류 가능한 존재가 달성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이며, 이것이 그것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람들이 자유 토론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이상하다. 그 이유가 극단적인 경우에 좋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모든 의심스러운 주제에 대해 자유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특정 원칙이나 교리는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즉 그들이 그것이 확실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다. 허용된다면 그 확실성을 부인할 사람이 있지만 허용되지 않는 동안 어떤 명제를 확실하다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확실성의 판단자이며,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판단자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신앙이 부족하지만 회의론을 두려워하는" 시대로 묘사된 현재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확신하기보다는 그것 없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확신한다. 의견을 대중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진실성보다는 사회에 대한 중요성에 기반하고 있다. 주장되는 바와 같이, 웰빙에 필수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정부가 사회의 다른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그러한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 의무인 certain beliefs가 있다. 그러한 필요성과 의무의 선상에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무오류보다 적은 것으로도 정부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의무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인류의 일반적인 의견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된다. 또한 종종 주장되고, 더 자주 생각되는 것은, 나쁜 사람들만이 이러한 건전한 신념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쁜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토론에 대한 제약의 정당성을 교리의 진실성 문제가 아니라 유용성의 문제로 만들며, 그 수단을 통해 의견의 무오류 판단자임을 주장하는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를 만족시킨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사람들은 무오류 가정이 단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의견의 유용성 자체는 의견 문제이다. 의견 자체만큼 논쟁의 여지가 있고, 토론에 열려 있으며, 토론을 필요로 한다. 비난받는 의견이 자신을 완전히 방어할 기회가 없는 한, 의견이 거짓이라고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해롭다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오류 판단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단자가 그 의견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더라도 그 의견

의 유용성이나 무해함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의견의 진실성은 그 유용성의 일부이다. 어떤 명제를 믿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가? 나쁜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진실에 반하는 어떤 신념도 진정으로 유용할 수 없다. 그리고 유용하다고 들었지만 거짓이라고 믿는 어떤 교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받을 때,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받아들여진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주장을 가능한 모든 이점을 취하는 것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들은 유용성 문제를 마치 진실성 문제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무엇보다도 그들의 교리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 또는 믿는 것이 그렇게 필수적이라고 주장된다. 한쪽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때 유용성 문제에 대한 공정한 토론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법이나 공공 감정이 어떤 의견의 진실성을 논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것의 유용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용적이지 않다. 그들이 허용하는 최대치는 그것의 절대적인 필연성 또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의 명백한 죄에 대한 완화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의견을 비난했기 때문에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을 거부하는 해악을 더 충분히 예시하기 위해, 토론을 구체적인 사례로 고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가장 불리한 사례, 즉 진실성 및 유용성 면에서 의견 자유에 반대하는 논증이 가장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례를 선호하여 선택한다. 공격받는 의견이 신과 미래 상태에 대한 믿음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 교리 중 하나라고 가정하자. 그러한 토대 위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부당한 상대방에게 큰 이점을 준다. 왜냐하면 그는 확실히 말할 것이고 (그리고 부당해지려는 의도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말할 것이다), 이것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만큼 충분히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리인가? 신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오류를 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 중 하나인가? 그러나 나는 어떤 교리(그것이 무엇이든)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오류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관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대 측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을 들을 기회를 허용하지 않고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가장 엄숙한 확신을 지지하는 쪽에서 주장될지라도 이 주장을 비난하고 규탄하는 것을 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확신이 의견의 거짓성뿐만 아니라 해로운 결과, 해로운 결과뿐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채택하여) 부도덕성과 불경성에 대해 아무리 확고할지라도, 만약 그가 그러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비록 그의 국가나 동시대인의 공적인 판단에 의해 뒷받침될지라도, 그 의견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는 무오류를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견이 부도덕하거나 불경하다고 불리기 때문에 그 가정이 덜 반대할 만하거나 덜 위험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경우 중 가장 치명적인 경우이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한 세대의 사람들이 후세의 경악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다. 법의 팔이 최고의 사람들과 가장 고귀한 교리를 뿌리 뽑는 데 사용된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사례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들이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비참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일부 교리들은 살아남아 (마치 조롱하듯) 그 교리나 그 교리의 받아들여진 해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유사한 행동을 변호하는 데 인용되기도 했다.

인류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시대의 법적 당국과 공공 여론 사이에 기억할 만한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 자주 상기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인적 위대함이 풍부한 시대와 국가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그와 그 시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의해 그 시대에서 가장 덕이 높은 사람으로 후세에 전해졌으며, 우리는 그를 모든 후대 덕 교육자들의 우두머리이자 원형으로 알고 있다. 플라톤의 고귀한 영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현명한 공리주의 모두의 원천이자, 모든 다른 철학의 원천인 "i maestri di color che sanno"(아는 자들의 스승들)이다. 이후에 살았던 모든 저명한 사상가들의 인정된 스승이며—2천 년 이상 지난 후에도 여전히 명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의 고향 도시를 빛내는 나머지 모든 이름들을 거의 능가하는—그는 불경죄와 부도덕죄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동포들에 의해 사형당했다. 불경죄는 국가가 인정한 신을 부정하는 것 때문이며, 실제로 그의 고발자는 그가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변론"). 부도덕죄는 그의 교리와 지침으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것 때문이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그가 유죄라고 정직하게 판단했으며, 당시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공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을 범죄자로서 사형에 처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소크라테스의 비난 이후 반전이 없을 유일한 다른 사법적 부당함의 사례로 넘어가자면, 약 1800년 전에 고틀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의 삶과 대화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도덕적 위대함에 대한 그러한 인상을 남겨, 이후 18세기가 그를 인격으로서 전능자에 대한 경배를 바쳤던 그 사람은 치욕적으로 처형당했다. 무엇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단순히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의 정반대로 오해했으며, 자신들이 그를 대한 태도 때문에 지금 불경함의 기적으로 간주되는 그 존재처럼 취급했다. 인류가 현재 이러한 비참한 사건들, 특히 두 번째 사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그 불행한 행위자들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극도로 불공정하게 만든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보다 나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들은 그들 시대와 민족의 종교적, 도덕적, 애국적 감정을 충분히 또는 그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현재를 포함한 모든 시대에서, 흠 없이 존경받으며 살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의 나라의 모든 생각에 따르면 가장 큰 죄를 구성하는 말이 발설되었을 때 옷을 찢은 대제사장은 현재 존경받고 건강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들이 표방하는 종교적, 도덕적 감정에 대해 그러하듯이, 그의 공포와 분노에 있어서 완벽하게 진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그의 행동에 몹시리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그의 시대에 살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그가 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첫 순교자들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정통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박해자 중 한 명이 성 바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오류의 인상 깊음이 그것에 빠진 자의 지혜와 미덕으로 측정된다면,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사례일 것이다. 만약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동시대인 중에서 자신이 가장 뛰어나고 계몽되었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었다면, 그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황제였다. 문명 세계 전체의 절대 군주였던 그는 평생 동안 가장 흠 없는 정의뿐만 아니라, 그의 스토아적 배경에서 덜 기대되었던 가장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했다. 그에게 기인한 몇 가지 결점은 모두 관대함의 측면에 있었다. 반면 그의 저술, 즉 고대 정신의 최고의 윤리적 산물은 그리스도의 가장 특징적인 가르침과 거의 구별되지 않거나 전혀 다르지 않다. 단어의 교리적 의미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이후에 통치했던 기독교 군주들보다 더 나은 기독교인이었던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했다. 인류의 이전의 모든 업적의 정점에 위치하며, 열린, 억압받지 않는 지성과 그의 도덕적 저술에서 그리스도적 이상을 스스로 구현하도록 이끌었던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가 세상에 선이 될 것이 악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지 못했으며, 그에게 깊이 스며든 그의 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존하는 사회는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그는 알았다. 그러나 그 상태 그대로, 그는 현재의 유대와 경건함에 의해 유지되고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다고 보았거나 그렇게 생각했다. 인류의 통치자로서 그는 사회가 산산조각 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고, 기존의 유대가 제거될 경우 그것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다른 유대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보지 못했다. 새로운 종교는 이러한 유대를 해체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그 종교를 채택하는 것이 그의 의무가 아닌 이상,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 그의 의무인 것처럼 보였다. 기독교 신학이 그에게 진실이거나 신성한 기원이라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의 이 이상한 역사가 그에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는 전혀 믿을 수 없는 토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체계가 모든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증된 그 개혁적 매개체로 그에게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철학자이자 통치자는 엄숙한 의무감 아래 기독교 박해를 승인했다. 내 생각에 이것은 모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실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콘스탄티누스 대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후원 아래 제국의 종교로 채택되었다면 세상의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다른 것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씁쓸하다. 그러나 반기독교 가르침을 처벌하는 어떤 변명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기독교 전파를 처벌하는 데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에게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진실에도 반한다. 어떤 기독교인도 무신론이 거짓이며 사회 해체로 이어진다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기독교에 대해 믿었던 것보다 더 굳게 믿지 않는다.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 중 가장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그가 그렇게 믿었다. 의견 전파에 대한 처벌을 승인하는 어떤 사람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보다 자신이 더 현명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신의 시대의 지혜에 더 깊이 통달하고, 자신의 지성으로 그보다 더 고양되었으며, 진리를 찾는 데 더 열심이거나, 찾았을 때 그것에 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한다고 자만하지 않는다면—그 위대한 안토니누스가 불행한 결과로 저지른 자신과 대중의 공동 무오류 가정에서 삼가라.

비종교적 의견을 억제하기 위한 처벌의 사용을 마르쿠스 안토니누스를 정당화하지 않는 어떤 논증으로도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종교적 자유의 적들은 궁지에 몰릴 때 때때로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존슨 박사처럼 기독교 박해자들이 옳았다고 말한다. 박해는 진리가 통과해야 하고 항상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시련이며, 법적 처벌은 결국 진리에 대해 무력하지만, 때로는 해로운 오류에 대해 유익하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종교적 불관용에 대한 논증의 한 형태로, 주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진리가 박해받아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게 박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새로운 진리의 수용에 의도적으로 적대적이라고 비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인류가 빚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의 관대함을 칭찬할 수는 없다. 세상에 심오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몰랐던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현세적 또는 영적 이익의 어떤 중요한 지점에서 세상이 잘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인간이 동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봉사이며, 초기 기독교인과 종교 개혁자들의 경우처럼 존슨 박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고 믿는다. 그러한 훌륭한 혜택의 저자들이 순교로 보답받아야 한다는 것, 그들의 보상이 가장 비열한 범죄자처럼 취급되는 것이 이 이론에 따르면 비참한 오류와 불행이 아니라, 인류가 배움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며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상태이다. 이 교리에 따르면, 새로운 진리의 제안자는 로크리아(Locrians)의 입법에서 새로운 법을 제안한 자처럼 목에 올가미를 두르고 서 있어야 하며, 대중 집회가 그의 이유를 듣고 즉시 그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즉시 조여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은인들을 대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혜택 자체에 그다지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주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주로 새로운 진리가 한때는 바람직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진리가 항상 박해를 이긴다는 말은 사람들이 서로 반복하여 상식처럼 되어버린 유쾌한 거짓말 중 하나이지만, 모든 경험이 그것을 반박한다. 역사는 박해로 인해 진리가 억압된 사례들로 가득하다. 영원히 억압되지 않더라도 수세기 동안 뒤로 밀려날 수 있다. 종교적 의견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종교 개혁은 루터 이전에 적어도 스무 번 이상 일어났지만 억압당했다. 브레시아의 아르놀트(Arnold of Brescia)는 억압당했다. 프라 돌치노(Fra Dolcino)는 억압당했다. 사보나롤라(Savonarola)는 억압당했다. 알비주아(Albigois)는 억압당했다. 보두아(Vaudois)는 억압당했다. 롤라드(Lollards)는 억압당했다. 후스파(Hussites)는 억압당했다. 루터 시대 이후에도 박해가 계속된 곳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플랑드르,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는 개신교가 뿌리 뽑혔다. 그리고 메리 여왕이 더 오래 살았거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했다면 영국에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박해는 이단자가 효과적으로 박해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당파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성공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근절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사람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는 박해가 단지 가끔 발생하고 짧은 기간 지속되었으며, 거의 방해받지 않는 선전 활동의 긴 간격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확산되고 지배적이 되었다. 진리가 단순히 진리로서 오류에 부여되지 않은 어떤 내재된 힘을 가지고 감옥과 화형에 맞서 승리한다는 것은 한낱 감상적인 생각이다. 사람들은 오류에 대해서도 종종 그러하듯이 진리에 대해 더 열심인 것이 아니며, 법적 또는 심지어 사회적 처벌을 충분히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든 전과를 막는 데 성공할 것이다. 진리가 가진 진정한 이점은 이것에 있다. 어떤 의견이 진실일 때, 한 번, 두 번, 또는 여러 번 소멸될 수 있지만, 시대가 흐르는 동안 그것을 다시 발견할 사람이 일반적으로 발견될 것이며, 그 재출현 중 하나가 유리한 상황에서 박해를 면하여 모든 후속 억압 시도에 저항할 만큼 충분한 힘을 얻는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의견의 도입자를 사형시키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인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에게 무덤을 세운다. 우리가 이제 이단자들을 사형시키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현대 감정이 아마도 가장 혐오스러운 의견에 대해서도 용인할 penal infliction의 양은 그것들을 근절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법적 박해의 흔적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자만하지 말자. 의견에 대한 처벌, 또는 적어도 그 표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법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의 집행은 심지어 이 시대에도 흔치 않은 일이어서, 언젠가 완전한 힘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 1857년, 콘월 카운티의 여름 순회 재판에서 한 불행한 사람[7], 삶의 모든 관계에서 흠잡을 데 없는 행실을 가졌다고 알려진 그는 기독교에 대해 어떤 공격적인 말을 하고 문에 쓴 죄로 2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기 한 달 내에, Old Bailey에서 두 사람이 두 번의 별도 기회에[8] 배심원에서 제외되었고, 그들 중 한 명은 판사와 변호인 중 한 명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다. 그들이 신학적 신념이 없다고 정직하게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외국인[9]은 같은 이유로 도둑에 대해 정의를 거부했다. 이 구제 거부는 법적 교리 때문에 발생했다. 즉, 신(어떤 신이든 충분하다)과 미래 상태에 대한 믿음을 표방하지 않는 사람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법의 보호에서 제외된 무법자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 또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경우 처벌 없이 강탈되거나 폭행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의 증명이 그들의 증언에 달려 있다면 다른 누구라도 처벌 없이 강탈되거나 폭행당할 수 있다 있다. 이것이 근거하는 가정은 미래 상태를 믿지 않는 사람의 맹세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동의하는 사람들의 역사적 무지를 많이 보여주는 명제이다(모든 시대의 불신자들 중 상당 부분이 뛰어난 청렴성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덕성과 업적으로 가장 평판이 좋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친한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 규칙은 자살적이며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무신론자는 거짓말쟁이라고 가장하여, 거짓말할 의사가 있는 모든 무신론자의 증언은 받아들이고, 혐오스러운 신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불명예를 감수하는 사람들의 증언만을 거부한다. 이렇게 명백히 터무니없는 규칙은 표방하는 목적에 관한 한, 증오의 표시, 박해의 유물로서만 유지될 수 있다 있다. 더욱이 박해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된 사람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박해이다. 이 규칙과 그것이 암시하는 이론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거의 모욕적이다. 왜냐하면 미래 상태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단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규칙의 저자와 조력자들이 기독교 덕에 대해 형성한 개념이 그들 자신의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가정함으로써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실제로 박해의 조각과 잔재에 불과하며, 박해하려는 의도보다는, 더 나쁜 형태의 법적 박해가 약 한 세대 동안 중단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공공의 마음 상태에는 더 나쁜 형태의 법적 박해가 약 한 세대 동안 중단될 것이라는 안전 장치가 없다. 이 시대에는 일상적인 평온한 표면이 과거의 악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만큼이나 새로운 혜택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의해 자주 흔들린다. 현재 종교의 부활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적어도 좁고 덜 교양 있는 마음에서는 항상 편견의 부활만큼이나 크다. 그리고 이 나라의 중산층에 항상 머물러 있는 편협함의 강한 영구적인 효소가 사람들의 감정에 남아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박해의 적절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도록 유발하는 데 거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10]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정신적 자유의 장소로 만들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는 의견과 소중히 여기는 감정 때문이다. 오랫동안 법적 처벌의 주된 해악은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그 낙인이 실제로 효과적이며, 너무 효과적이어서 사회의 금지령 아래 있는 의견을 표방하는 것은 영국에서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훨씬 덜 흔하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법적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는 의견을 공언하는 것이 더 흔하다. 재정적 상황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은 법만큼이나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빵을 벌 수단을 박탈당하는 것만큼이나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싫어한다. 이미 빵이 확보되어 있고, 권력자나 단체, 또는 대중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의견도 공개적으로 공언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단지 나쁘게 생각되고 나쁘게 말해지는 것뿐이며, 이것은 그것을 견디기 위해 아주 영웅적인 성격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동정심을 호소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만큼의 악을 지금 가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게 예전만큼의 악을 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당했지만, 소크라테스 철학은 하늘의 태양처럼 떠올라 지적 천체 전체를 비추었다. 기독교인들은 사자에게 던져졌지만, 기독교 교회는 웅장하고 퍼져나가는 나무처럼 자라나 더 오래되고 덜 강한 성장을 압도하고 그 그림자로 질식시켰다. 우리의 단순한 사회적 불관용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어떤 의견도 뿌리 뽑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것들을 위장하거나 그것들을 확산시키려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삼가게 만든다. 우리에게 이단적인 의견은 10년 또는 한 세대 동안 눈에 띄게 얻거나 잃지 않는다. 그것들은 결코 멀리 그리고 넓게 불타오르지 않고, 그것들이 비롯되는 생각하고 학구적인 사람들의 좁은 원 안에서 계속 연기만 피우며, 인류의 일반적인 일에 진실되거나 기만적인 빛을 비추는 일은 결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마음들에게는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가 유지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금

하는 불쾌한 과정 없이, 모든 지배적인 의견을 걸음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유지하는 동시에, 생각이라는 질병에 시달리는 이단자들이 이성을 행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적 세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모든 것이 이미 있는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편리한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지적 평화를 위해 지불되는 대가는 인간 정신의 전체적인 도덕적 용기의 희생이다. 가장 활동적이고 탐구적인 지성 중 상당 부분이 자신의 진정한 신념의 원칙과 근거를 스스로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대중에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내적으로 포기한 전제에 자신의 결론을 최대한 맞추려 노력하는 상태에서는, 한때 지적 세계를 장식했던 개방적이고 두려움 없는 성격과 논리적이고 일관된 지성을 배출할 수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범함에 단순히 순응하는 사람이거나, 진리를 위해 시간을 버는 사람이며, 그들의 모든 중요한 주제에 대한 주장은 듣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자신을 설득한 주장이 아니다. 이러한 대안을 피하는 사람들은 원칙의 영역에 감히 들어가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것들로 생각과 관심을 좁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마음이 강화되고 확장되기만 한다면 스스로 해결될 작은 실제적인 문제들로 좁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결코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인간의 마음을 강화하고 확장할 가장 높은 주제에 대한 자유롭고 대담한 사색은 포기된다.

이단자들이 이러한 자제력을 보이는 것이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선 그 결과 이단적 의견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토론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러한 토론을 견딜 수 없는 의견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통적인 결론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탐구에 금지령이 내려짐으로써 가장 많이 손상되는 것은 이단자들의 정신이 아니다. 가장 큰 해악은 이단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가해지며, 그들의 전체 정신적 발전은 제한되고 이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의 이성은 겁먹게 된다. 대담하고 활기차며 독립적인 사상의 궤적을 따라가지 못하여 비종교적이거나 부도덕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어떤 것에 도달할까 두려워하는, 유망한 지성과 소심한 성격을 결합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잃는지 누가 계산할 수 있겠는가? 그들 중에는 때때로 깊은 양심과 섬세하고 세련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는 침묵시킬 수 없는 지성으로 궤변을 부리며 삶을 보내고, 양심과 이성의 지시를 정통과 조화시키려 노력하는 데 재능의 모든 자원을 소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상이로서 자신의 지성이 이끄는 어떤 결론이든 따라야 할 첫 번째 의무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없다.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의 오류는 단지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실된 의견보다 진리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 위대한 사상가를 형성하는 것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필요한 것은 생각의 자유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도 가능한 정신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만큼, 아니 그 이상 필수적이다. 정신적 노예 상태에서도 위대한 개별 사상가가 있었고 다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지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은 결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원칙이 논쟁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곳, 인류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에 대한 토론이 끝났다고 간주되는 곳에서는, 역사의 일부 시대를 매우 주목할 만하게 만든 일반적인 높은 수준의 정신 활동을 찾을 수 없다. 논쟁이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크고 중요한 주제를 피할 때마다, 사람들의 정신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가장 평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조차 생각하는 존재의 존엄성으로 끌어올리는 충동이 주어진 적은 없었다. 우리는 종교 개혁 직후 유럽의 상태에서 그러한 예를 보았으며, 18세기 후반의 사변적 운동에서 또 다른 예(대륙과 더 교양 있는 계층에 한정됨)를 보았고, 피테 시대와 피히테 시대의 독일의 지적 발효에서 훨씬 더 짧은 기간의 세 번째 예를 보았다. 이 시기들은 발전시킨 특정 의견에서는 크게 달랐지만, 세 시기 모두 권위의 멍에가 깨졌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각각에서 이전의 정신적 독재는 타도되었고, 새로운 독재는 아직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 이 세 시기에 주어진 충동이 현재의 유럽을 만들었다. 인간 정신이나 제도에서 일어난 모든 단일 개선은 이 세 시기 중 하나 또는 다른 시기로 명확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한동안 모든 세 가지 충동이 거의 소진되었음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었으며, 우리는 다시 정신적 자유를 주장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논의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받아들여진 의견 중 어떤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가정을 버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그 진실이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때 그것이 어떻게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자.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 거짓일 가능성을 아무리 마지못해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진실되든 간에, 완전히, 자주, 두려움 없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은 독단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의견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심 없이 동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다행히 이전만큼 많지는 않다)이 있다. 비록 그가 그 의견의 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가장 피상적인 반론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변호를 할 수 없을지라도 말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일단 그들의 신조가 권위로부터 가르쳐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데서 오는 어떤 좋은 점도, 어떤 해악도 없다고 당연히 생각한다. 그들의 영향력이 우세한 곳에서는 받아들여진 의견을 현명하고 신중하게 거부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지만, 여전히 경솔하고 무지하게 거부될 수 있다. 토론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일단 토론이 시작되면 확신에 기반하지 않은 신념은 가장 가벼운 논증의 semblance 앞에서도 무너지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차치하고 - 진실된 의견이 마음에 남아 있지만 편견으로, 논증과 무관하고 논증에 저항하는 신념으로 남아 있다고 가정하자 - 이것은 합리적인 존재가 진리를 유지해야 할 방식이 아니다. 이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지되는 진리는 진리를 표명하는 단어에 우연히 달라붙은 또 하나의 미신일 뿐이다.

인류의 지성과 판단력이 배양되어야 한다면, 개신교도들조차 부인하지 않는 한 가지 일인데, 이러한 능력은 그 어떤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을까? 그가 그것에 대해 의견을 가져야 할 만큼 그에게 중요한 것들 외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만약 이해력의 배양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한 가지 일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의견의 근거를 배우는 데 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올바르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그들은 적어도 일반적인 반론에 대해 그것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들의 의견의 근거를 가르치도록 하라. 의견이 단지 논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앵무새처럼 반복된다는 것은 아니다. 기하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단순히 정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도 이해하고 배운다. 그리고 그들이 기하학적 진리의 근거에 대해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반증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은 수학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거기에는 문제의 잘못된 측면에 대해 전혀 말할 것이 없다. 수학적 진리의 증거의 특이성은 모든 논증이 한쪽에 있다는 것이다. 반론도 없고 반론에 대한 답변도 없다. 그러나 의견 차이가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 진리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이유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 자연 철학에서조차 항상 동일한 사실에 대한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태양 중심설 대신 지구 중심설, 산소 대신 플로지스톤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다른 이론이 왜 진실일 수 없는지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 때까지 우리는 우리 의견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훨씬 더 복잡한 주제, 즉 도덕, 종교, 정치, 사회 관계, 그리고 삶의 일로 눈을 돌리면, 논쟁되는 모든 의견에 대한 논증의 4분의 3은 그것과 다른 어떤 의견을 지지하는 결모습을 흘뜨리는 데 있다. 고대의 가장 위대한 웅변가 중 한 명(한 명을 제외하고)은 자신이 항상 자신의 사건만큼,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하게 상대방의 사건을 연구했다고 기록에 남겼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주제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법정 성공의 수단으로 키케로가 실천한 것을 모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사건의 한쪽 면만 아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그의 이유는 좋을 수 있고, 아무도 그것을 반증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상대방의 이유를 반증할 능력이 똑같이 부족하다면,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는 어떤 의견을 선호할 근거가 없다. 그에게 합리적인 입장은 판단 유보일 것이며, 그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는 권위에 이끌리거나,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장 경향을 느끼는 쪽을 채택한다. 또한 그가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상대방의 주장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승이 제시하는 그대로 듣고, 반박으로 제시하는 것과 함께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의 마음과 실제로 접촉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진심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서 들어야 한다. 그는 그것을 가장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형태로 알아야 한다. 그는 주제의 진실된 관점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어려움의 전체 힘을 느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거하는 진리의 부분을 결코 실제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교육받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의 백 명 중 아흔아홉 명은 이러한 상태에 있다.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 그들의 결론은 진실일 수 있지만, 그들이 아는 바에 따르면 거짓일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위치에 자신을 놓아 본 적이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할지 고려해 본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단어의

적절한 의미에서 자신이 표방하는 교리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부분, 다른 것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이 그것과 조화될 수 있거나, 겉으로 보기에 강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려 사항을 알지 못한다. 모든 면에 똑같이 그리고 공정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양쪽 이유를 가장 밝은 빛으로 보려고 노력한 사람 외에는, 저울을 기울이고 완전히 정보를 얻은 마음의 판단을 결정하는 진리의 모든 부분은 낯선 것이다.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주제의 진정한 이해에 이러한 훈련이 너무 필수적이어서, 만약 모든 중요한 진리의 반대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상상하고, 가장 숙련된 악마의 변호인이 불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증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고려 사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유 토론의 적은 일반적인 인류가 철학자나 신학자에 의해 자신의 의견에 대해 말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리한 상대방의 모든 오해나 오류를 폭로할 수 있을 필요는 없다. 항상 그들에게 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도 반박되지 않은 채로 남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단순한 마음은 그들에게 가르쳐진 진리의 명백한 근거를 배운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권위에 의존할 수 있으며,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지식이나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임무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이 이미 해결했거나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안심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대해, 그것을 믿는 것과 함께 해야 할 진리에 대한 이해의 양에 가장 쉽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인정하더라도, 자유 토론에 대한 논증은 전혀 약화되지 않는다. 이 교리조차도 모든 반론이 만족스럽게 답변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론이 말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답변될 수 있겠는가? 또는 반대자가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음을 보여줄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답변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대중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려움을 해결할 철학자와 신학자는 가장 당혹스러운 형태로 그러한 어려움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자유롭게 진술되고, 그것이 허용하는 가장 유리한 빛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난처한 문제를 다루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그것은 확신으로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허용될 수 있는 사람들과 신뢰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넓은 구분을 둔다. 실제로 어느 쪽도 무엇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적어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대자의 주장을 알기 위해 이단적인 서적을 읽을 수 있다. 이는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단적인 서적을 읽는 것은 허용되고 meritorious이다. 평신도들은 특별한 허가 없이는 읽을 수 없으며, 이는 얻기 어렵다. 이 규율은 적의 입장을 아는 것이 교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것과 일관되게 나머지 세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단을 찾는다. 따라서 대중에게 허용하는 것보다 엘리트에게 더 많은 정신적 교양을 제공하지만, 더 많은 정신적 자유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그것은 자신의 목적에 필요한 종류의 정신적 우월성을 얻는 데 성공한다. 자유 없는 교양은 넓고 자유로운 마음을 만들지 못하지만, 어떤 원인을 변호하는 데 능숙한 nisi prius 변호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개신교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수단이 거부된다. 개신교도들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종교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각자 스스로 져야 하며, 교사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세계 상태에서는 교육받은 사람이 읽는 글이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차단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류의 교사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자유롭게 쓰고 출판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받아들여진 의견이 진실일 때 자유 토론의 부재가 초래하는 해로운 영향이, 사람들이 그 의견의 근거를 모르는 상태로 남겨두는 데 국한된다면, 이것이 지적인 해악이라면 도덕적인 해악은 아니며, 성격에 대한 영향으로 간주되는 의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토론이 없을 때 의견의 근거가 잊혀질 뿐만 아니라, 의견 자체의 의미도 너무 자주 잊혀진다. 그것을 전달하는 단어들은 더 이상 아이디어를 제안하지 않거나, 원래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아이디어의 작은 부분만을 제안한다. 생생한 개념과 살아있는 믿음 대신, 암기하여 보존된 몇 개의 구절만 남거나, 어떤 부분이라도 의미의 껍데기와 껍질만 남고, 더 미묘한 본질은 사라진다. 이 사실이 차지하고 채우는 인간 역사의 위대한 장은 아무리 진지하게 연구하고 사색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거의 모든 윤리적 교리와 종교적 신조의 경험에서 예증된다. 그것들은 그것을 만든 사

람들, 그리고 창시자의 직접적인 제자들에게는 의미와 활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의미는 줄어들지 않는 힘으로 계속 느껴지며, 교리나 신조가 다른 신조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지속되는 한, 더욱 완전한 의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승리하여 일반적인 의견이 되거나, 진행이 멈춘다. 얻은 땅을 계속 유지하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 중 하나가 분명해지면, 주제에 대한 논쟁은 시들해지고 점차 사라진다. 교리는 받아들여진 의견으로서가 아니라, 인정된 종파나 의견의 분파 중 하나로서 자리를 잡았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채택하기보다는 물려받았으며, 이러한 교리 중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의 전환은 이제 예외적인 사실이므로, 그것을 표방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거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처음처럼 세상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세상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는 대신, 그들은 체념에 빠져들었고, 가능하면 자신들의 신조에 반대하는 논증을 듣지 않으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약 있다면) 자신들의 신조를 위한 논증으로 괴롭히지 않는다. 이 시점부터 일반적으로 교리의 살아있는 힘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모든 신조의 교사들이 신자들의 마음에 명목상 인정하는 진리에 대한 생생한 이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그래서 그것이 감정에 침투하여 행동에 대한 진정한 지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다. 신조가 여전히 존재를 위해 싸우고 있을 때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는다. 약한 전사들조차 그때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다른 교리들 사이의 차이를 알고 느끼며, 모든 신조의 존재의 그 시기에는 그것의 근본 원칙을 모든 사상의 형태로 실현하고,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그것들을 숙고하고 고려했으며, 그것에 철저히 스며든 마음에서 신념이 성격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세습적인 신조가 되고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마음이 처음처럼 신념이 제시하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활력을 발휘하도록 강요되지 않을 때—신념의 모든 것 중 형식적인 표현 외에는 잊거나, 의식 속에서 실현하거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검증할 필요를 면제하는 것처럼, 둔하고 무감각한 동의를 하는 경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결국 그것은 인간 존재의 내면 생활과 거의 전혀 연결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 시대에 흔히 나타나는 사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신조는 마치 마음 밖에 있는 것처럼 남아 있어, 우리의 본성의 더 높은 부분에 향하는 다른 모든 영향력에 대해 그것을 감싸고 굳게 만든다. 어떤 새롭고 살아있는 확신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나타내지만, 그 자체로는 마음이나 가슴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들을 빈 채로 지키는 파수꾼 역할만 한다.

본질적으로 마음에 가장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교리가 상상, 감정 또는 이해에서 결코 실현되지 않고 죽은 신념으로 마음에 남아 있는 정도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유지하는 방식에서 예증된다. 여기서 기독교란 모든 교회와 종파가 그렇게 여기는 것—신약성경에 포함된 격언과 교훈—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신성하게 여겨지고, 모든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천 명의 기독교인 중 한 명도 그러한 법을 참조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을 지침하거나 검증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실제로 참조하는 기준은 그의 국가, 그의 계급, 또는 그의 종교적 직업의 관습이다. 따라서 그는 한편으로는 그에게 자신의 통치를 위한 규칙으로서 틀림없는 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윤리적 격언의 모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격언 중 일부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다른 것들과는 그만큼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와는 직접적인 반대에서 있고, 대체로 기독교 신념과 세속 생활의 이해관계 및 제안 사이의 타협인 일상적인 판단과 관습의 집합을 가지고 있다. 이 기준 중 첫 번째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다른 기준에는 실제적인 충성을 바친다. 모든 기독교인은 축복받은 자는 가난하고 겸손하며 세상에 의해 학대받는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믿는다. 그들이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판단받지 않도록 믿는다. 그들이 전혀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누군가 그들의 망토를 가져가면, 그들은 그의 걸옷도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이 내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그들이 완벽해지고 싶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들은 불성실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항상 칭찬받고 결코 논의되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것들을 믿는다. 그러나 행동을 규제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념의 의미에서, 그들은 이러한 교리들을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보통인 지점까지만 믿는다. 그들의 온전한 상태에서의 교리는 적을 공격하는 데 유용하며,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위한 이유로 제시될 것으로 이해된다(가능할 때). 그러나

그 격언들이 그들이 결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한한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다고 가장하는 매우 비인기적인 성격 중 하나로 분류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교리들은 일반 신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그것들의 소리에 대한 습관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단어에서 의미로 확산되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식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감정은 없다. 행동이 관련될 때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에 대해 안내받기 위해 A 씨와 B 씨를 둘러본다.

이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경우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만약 그랬다면 기독교는 경멸받던 히브리인의 미미한 종교에서 로마 제국의 종교로 결코 확장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적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라고 말했다 때 (이는 지금 누구에게도 나올 법한 말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이후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자신들의 신님의 의미를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하는 데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18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유럽인과 유럽인의 후손에게 거의 국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자신들의 교리에 대해 매우 진지하며, 일반 사람들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엄격한 종교인들에게조차, 그들의 마음에서 비교적 활동적인 부분은 칼뱅이나 녹스, 또는 그들과 성격이 훨씬 더 가까운 어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부분인 경우가 흔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 속에 수동적으로 공존하며, 매우 사랑스럽고 온화한 말씀에 단순히 귀 기울이는 것 외에는 거의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종교의 상징인 교리가 인정된 모든 종교에 공통적인 교리보다 더 많은 활력을 유지하는 이유, 그리고 교사들이 그 의미를 살아 있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실한 한 가지 이유는 특정한 교리가 더 많이 의문을 제기받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자주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습자 모두 전쟁터에 적이 없자마자 자신의 자리에서 잠든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이나 종교뿐만 아니라 삶의 현명함과 지식에 관한 전통적인 교리에도 해당된다. 모든 언어와 문학은 삶에 대한 일반적인 관찰, 즉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찰로 가득하다.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반복하거나 동의하며 듣고,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지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을 통해,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진정으로 배우게 된다. 예기치 못한 불행이나 실망 속에서 고통받을 때마다, 평생 그에게 익숙했던 어떤 격언이나 흔한 말을 그 사람이 떠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만약 그가 지금까지 이 전에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었다면, 그는 그 재난을 피했을 것이다. 물론 이것에는 토론의 부재 외의 다른 이유도 있다. 완전한 의미를 실현할 수 없는 많은 진리가 있으며, 개인적인 경험이 그것을 마음속으로 가져올 때까지는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의미조차도 더 많이 이해되었을 것이며, 이해된 것은 훨씬 더 깊이 마음에 새겨졌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찬반 양론이 토론되는 것을 듣는 데 익숙했다라면 말이다. 인간의 치명적인 경향, 즉 더 이상 의심스럽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중단하는 경향이 그들 오류의 절반의 원인이다. 한 동시대 작가는 "확정된 의견의 깊은 잠"에 대해 잘 말했다.

그런데! (질문될 수 있다) 의견 일치의 부재가 진정한 지식의 필수 조건인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인류의 일부가 오류 속에 고집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즉시 그것은 현실적이고 중요한 믿음이 아니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명제가 그것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지 않는 한 철저히 이해되고 느껴지지 않는가? 인류가 어떤 진리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는 즉시 그 진리가 그들 안에서 사라지는가? 개선된 지성의 가장 높은 목표와 최상의 결과는 지금까지 모든 중요한 진리의 인정에서 인류를 점점 더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리고 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만 지속되는가? 정복의 열매는 승리의 완전함 때문에 사라지는가?

나는 그런 말을 단언하지 않는다.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더 이상 논쟁하거나 의심받지 않는 교리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웰빙은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된 진리의 수와 중요성으로 거의 측정될 수 있다. 심각한 논쟁의 하나하나의 종식은 의견 통합의 필연적인 사건 중 하나이며, 이는 진실된 의견의 경우만큼 유익하고, 의견이 잘못되었을 때는 위험하고 해롭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다양성의 점진적인 축소는 그 용어의 두 가지 의미 모두에서 필요하다. 즉, 불가피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결과가 유

이해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 반대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거나 그것에 대해 변호해야 할 필요성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진리의 지적이고 살아있는 이해에 대한 중요한 도움의 상실은 그것의 보편적인 인식의 혜택보다 중요하지 않은 단점이 아니다. 이러한 이점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때, 나는 인류의 교사들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을 보고 싶다. 즉, 반대하는 챔피언에 의해 학습자에게 그 질문의 어려움이 마치 강요당하는 것처럼 학습자의 의식에 그것을 제시하는 어떤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한 방안을 찾는 대신, 그들은 이전에 가졌던 방안들을 잃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훌륭하게 예시된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은 이러한 종류의 방안이었다. 그것은 철학과 삶의 위대한 질문에 대한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토론이었으며, 받아들여진 의견의 평범한 것들을 단순히 받아들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그 주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자신이 아직 표방하는 교리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뛰어난 기술로 지시되었다. 이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교리의 의미와 증거 모두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반한 안정적인 신념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중세의 학교 논쟁도 다소 유사한 목적을 가졌다. 그것들은 학생이 자신의 의견과 (필연적으로 상호 관련하여) 반대되는 의견을 이해하고, 하나의 근거를 강요하고 다른 하나의 근거를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논쟁들은 사실 치유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다. 제시된 전체가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권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 훈련으로서 그것들은 "소크라테스인들"의 지성을 형성한 강력한 변증법보다 모든 면에서 열등했다. 그러나 현대 정신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둘 다에게 빚지고 있으며, 현재의 교육 방식은 어느 쪽의 자리도 최소한으로 채워주지 못한다. 교사나 책에서 모든 교육을 받는 사람은, cram으로 만족하는 습관적인 유희에서 벗어나더라도, 양쪽을 들을 의무가 없다. 따라서 사상가들 사이에서도 양쪽을 아는 것은 흔한 업적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변호하기 위해 모두가 말하는 것의 가장 약한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반박으로 의도한 부분이다. 현재 시대에는 부정적 논리, 즉 긍정적인 진리를 확립하지 않고 이론의 약점이나 실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부정적 비판은 궁극적인 결과로서는 충분히 빈약할 것이지만, 가치 있는 긍정적인 지식이나 확신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체계적으로 그것을 훈련받기 전까지는, 사변의 수학 및 물리학 분야 외에는 위대한 사상가가 거의 없을 것이며, 일반적인 지성의 평균 수준도 낮을 것이다.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의 의견도 지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받거나, 스스로 경험하거나, 상대방과 활발한 논쟁을 벌일 때 요구되었을 정신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 말이다. 따라서 그것이 없을 때 필수적이지만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것, 자발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만약 받아들여진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법이나 여론이 허용한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념의 확실성이나 활력을 위해 훨씬 더 큰 노력으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우리를 위해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자.

다양한 의견이 유익한 주요 원인 중 하나에 대해 여전히 말할 것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는 인류가 현재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적 발전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가능성만을 고려했다. 즉, 받아들여진 의견이 거짓일 가능성과 따라서 다른 의견이 진실일 가능성, 또는 받아들여진 의견이 진실일 때, 그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깊은 감정을 위해서는 반대되는 오류와의 충돌이 필수적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흔한 경우가 있다. 상반되는 교리가 하나는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진실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비순응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진 교리가 진리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경우이다. 감각으로 인지되지 않는 주제에 대한 대중적인 의견은 종종 진실이지만, 전체 진리는 거의 또는 전혀 아니다. 그것들은 진리의 일부이다. 때로는 더 큰, 때로는 더 작은 일부이지만, 과장되고 왜곡되며, 그것과 함께하고 제한되어야 할 진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반면에 이 단적인 의견은 일반적으로 억압되고 무시된 진리의 일부이다. 그것들은 자신들을 억압했던 속박을 깨고, 일반적인 의견에 포함된 진리와 화해를 추구하거나, 그것과 적으로 마주하며, 유사한 배타성으로 자신들을 전체 진리로 내세운다. 후자의 경우는 현재까지 가장 흔하다. 왜냐하면 인간 정신에서는 편향성이 항상 규칙이었고, 다방면성은 예외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견의 혁명에서조차 진리의 한 부분은 사라지고 다른 부분이 떠오른다. 추가되어야 할 진보조차 대부분 다른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진리를 대체할 뿐이다. 개선은 주로 새로운 진

리의 조각이 이전의 것을 대체하는 것보다 시대의 필요에 더 적합하고 더 필요한 것에 있다. 따라서 진실된 기초 위에 서 있을 때조차도 지배적인 의견의 부분적인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의견이 생략한 진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모든 의견은, 어떤 양의 오류와 혼란이 그 진리와 혼합되어 있을지라도,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 인간사의 신중한 판단자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간과했을 진리를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것 중 일부를 간과한다고 해서 분노할 의무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오히려 그는 대중적인 진리가 편향적일 때, 인기 없는 진리도 편향적인 주장자를 가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한 주장자들은 대개 가장 에너지 넘치고, 그들이 전체라고 선포하는 지혜의 조각에 대해 마지못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18세기에, 교육받은 거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에게 이끌린 교육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소위 문명, 그리고 근대 과학, 문학, 철학의 경이에 감탄에 빠져 있었고, 근대인과 고대인의 불일치 정도를 크게 과대평가하면서, 그 차이 전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믿음에 빠져 있었을 때, 루소의 역설이 마치 폭탄처럼 중앙에서 터져 나와, 편향된 의견의 응집된 덩어리를 해체하고 그 요소들을 더 나은 형태와 추가 성분으로 재조합하도록 강요했을 때 얼마나 건강한 충격이 일어났는가. 일반적인 의견이 루소의 의견보다 진실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진실에 더 가까웠다. 그것들은 더 많은 긍정적인 진리를 포함했고, 훨씬 적은 오류를 포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교리에는 대중적인 의견이 필요로 했던 바로 그러한 진리의 상당 부분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것과 함께 의견의 흐름을 따라 내려왔다. 그리고 이것들이 홍수가 가라앉았을 때 남겨진 침전물이다. 단순한 삶의 우월성, 인위적인 사회의 속박과 위선의 활력 저하 및 도덕성 저하 효과는 루소가 글을 쓴 이후로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한 효과를 낼 것이다. 비록 현재는 이전만큼이나 주장되어야 하고, 이 주제에 대한 말은 거의 힘을 다했으므로 행동으로 주장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정치에서, 다시 말해, 질서나 안정의 당파와 진보나 개혁의 당파 모두 건강한 정치 생활 상태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다. 어느 한쪽이 질서와 진보 모두의 당파가 될 만큼 정신적 이해를 넓혀서, 보존할 만한 것과 제거되어야 할 것을 알고 구별할 때까지는 말이다. 이러한 사고 방식 각각은 다른 방식의 결합으로부터 유용성을 얻는다. 그러나 상당 부분 다른 방식과의 반대가 각자가 이성과 건전성의 한계 안에 머물도록 한다. 민주주의와 귀족정치, 재산과 평등, 협력과 경쟁, 사치와 절제, 사교성과 개성, 자유와 규율, 그리고 다른 모든 실용 생활의 고정적인 대립 관계에 유리한 의견이 동등한 자유로 표현되고, 동등한 재능과 에너지로 강요되고 방어되지 않는다면, 두 요소 모두 마땅한 것을 얻을 기회는 없다. 한쪽 저울은 반드시 올라가고 다른 쪽은 내려갈 것이다. 삶의 위대한 실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리는 반대되는 것들을 화해시키고 결합시키는 문제이어서, 정확성에 근접하여 조정을 할 만큼 충분히 넓고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이는 적대적인 것발아래 싸우는 전투원들 사이의 거친 투쟁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방금 열거한 위대한 열린 질문 중 어느 것이든, 두 의견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나은 주장권을 가진다면, 단순히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장려되고 지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것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소수에 속하는 의견이다. 그것은 현재 간과된 이익, 즉 마땅한 몫보다 적게 얻을 위험에 처한 인간 복지의 측면을 대변하는 의견이다. 나는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제의 대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에 대해 어떤 불관용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들은 인정되고 증가된 사례를 통해, 현존하는 인간 지성의 상태에서 진리의 모든 측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오직 의견의 다양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의 보편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다. 어떤 주제에 대해 세상의 명백한 의견 일치에 예외를 이루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록 세상이 옳을지라도, 그들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말할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그들의 침묵으로 인해 진리가 어떤 것을 잃을 가능성이 항상 있다.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받아들여진 원칙, 특히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한 원칙은 반쪽 진리 이상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 도덕은 그 주제에 대한 전체 진리이며,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과 다른 도덕을 가르친다면, 그는 전적으로 오류 속에 있다." 이것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이므로, 일반 원칙을 시험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도덕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단언하기 전에, 기독교 도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신약성경의 도덕을 의미한다

면, 나는 이 책 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지식을 얻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이 도덕의 완전한 교리로 발표되었거나 의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복음은 항상 기존의 도덕을 언급하며, 그 교훈을 그 도덕이 수정되거나 더 넓고 더 높은 것에 의해 대체되어야 할 특정 사항에 국한시킨다. 더욱이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자신을 표현하며, 종종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입법의 정확성보다는 시나 웅변의 감동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윤리적 교리의 체계를 추출하는 것은 구약성경, 즉 정교하지만 여러 면에서 야만적이고 야만적인 민족만을 위한 체계로부터 보충하지 않고는 항상 가능했다. 바울 성도, 즉 자신의 스승의 교리를 해석하고 체계를 완성하는 이러한 유대적 방식의 명백한 적은, 동등하게 기존의 도덕, 즉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도덕을 가정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의 조언은 상당 부분 그것에 대한 적응의 체계이다. 심지어 노예 제도에 대한 명백한 승인을 부여하는 정도까지도 그렇다. 기독교적 도덕이라고 불리지만, 오히려 신학적 도덕이라고 불려야 할 것은 그리스도나 사도들의 작품이 아니라 훨씬 후대의 기원이며, 처음 다섯 세기의 가톨릭 교회가 점진적으로 구축했으며, 비록 근대인과 개신교도들이 암묵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 의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수정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중세에 추가되었던 것들을 잘라내는 것으로 만족했으며, 각 종파는 자신들의 성격과 경향에 맞게 새로운 추가를 통해 그 자리를 채웠다. 인류가 이러한 도덕과 그것의 초기 교사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부인할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 많은 중요한 면에서 불완전하고 편향적이며, 그것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사상과 감정이 유럽 생활과 성격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사는 지금보다 더 나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한다. 기독교 도덕(소위)은 반동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상당 부분 이교주의에 대한 항의이다. 그것의 이상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며, 활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다. 고귀함보다는 무죄함, 선의 적극적인 추구보다는 악으로부터의 절제이다. 그 교훈들에서 (잘 말해졌듯이) "너는 ~하지 말라"가 "너는 ~해야 한다"보다 부당하게 우세하다. 관능에 대한 공포에서 그것은 금욕주의를 이상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점진적으로 합법주의로 타협되었다. 그것은 미덕적인 삶에 대한 정해지고 적절한 동기로서 천국의 희망과 지옥의 위협을 제시한다. 이것은 고대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미치지 못하며, 각자의 의무감이 동료 인간의 이익과 분리됨으로써 인간 도덕에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데 가능한 모든 것을 한다. 이는 그들에게 동료 인간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이기적인 동기가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수동적 복종의 교리이다. 그것은 확립된 모든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가르친다. 비록 종교가 금지하는 것을 명령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이교 국가들의 도덕에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가 개인의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며 불균형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순수한 기독교 윤리에서는 그 의무의 위대한 부서는 거의 언급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 코란에서는 "만약 어떤 통치자가 자신의 영토에 그보다 더 자격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직책에 임명한다면, 그는 신과 국가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격언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신약성경이 아니라 코란이다. 현대 도덕에서 대중에 대한 의무라는 개념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것은 기독교적 출처가 아니라 그리스적이고 로마적 출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지어 사생활의 도덕에서도 관대함, 고귀함, 개인적 존엄, 심지어 명예감까지도 우리 교육의 순수 인간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며, 표면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가치가 복종인 윤리 기준에서 결코 성장할 수 없었다.

나는 기독교 윤리에 내재된 이러한 결점들이 모든 방식에서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점, 또는 그것이 포함하지 않는 완전한 도덕 교리의 많은 필수 요소들이 그것과 화해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스도 자신의 교리나 훈계에 대해서는 훨씬 덜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그것이 의도되었을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볼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포괄적인 도덕이 요구하는 어떤 것보다도 조화될 수 없다. 윤리에서 뛰어난 모든 것은 그 언어에 대한 폭력 없이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어떤 실천적인 행동 체계를 추론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 가해진 폭력보다 크지 않다. 그러나 이것과 일치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포함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즉, 가장 높은 도덕성의 많은 필수 요소는 기독교 창시자의 기록된 발언에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되도록 의도되지 않은 것들 중 일부이며, 기독교 교회에 의해 그 발언을 기반으로 구축된 윤리 체계에서 완전히 버려진 것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자가 그것을 승인하고 강요하도록 의도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제공하려 했던 우리를 위한 완전한 규칙을 기독교 교리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협소한 이론이 심각한 실제적 악이 되고 있으며, 매우 선의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덕적 훈련과 가르침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전적으로 종교적인 유형에 따라 마음과 감정을 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이전에 기독교 윤리와 공존하고 그것을 보충했으며, 그것의 일부 정신을 받고 자신의 일부를 주입했던 세속적인 기준(더 나은 이름이 없으므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을 버림으로써, 낮고 비열하며 노예 같은 유형의 성격이 초래될 것이며, 심지어 지금도 초래되고 있다고 매우 우려한다. 이러한 성격은 자신이 최고 의지라고 여기는 것에 복종할지라도, 최고 선이라는 개념에 도달하거나 공감할 수 없다. 나는 인류의 도덕적 갱신을 위해 기독교 윤리와 함께 기독교 출처에서만 발전될 수 있는 어떤 윤리 외의 다른 윤리가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기독교 체계는 불완전한 인간 정신 상태에서는 진리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규칙에 예외가 아니라고 믿는다. 기독교에 포함되지 않은 도덕적 진리를 무시하기를 중단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이 포함하는 어떤 진리도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편견이나 간과는 발생할 때 전적으로 악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항상 면제될 수는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선을 위해 지불된 대가로 간주되어야 한다. 진리의 일부가 전체라고 주장하는 배타적인 주장은 반대되어야 하고,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반동적인 충동으로 인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차례로 불공정해진다면, 이러한 편향성은 다른 편향성과 마찬가지로 애도될 수 있지만, 용납되어야 한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공정해지도록 가르치려 한다면, 그들 스스로 불신에 대해 공정해야 한다. 문학사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 즉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도덕적 가르침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몰랐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알고 거부했던 사람들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진리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

나는 가능한 모든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의 가장 무제한적인 사용이 종교적 또는 철학적 종파주의의 해악을 증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좁은 능력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모든 진리는, 세상에 다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적어도 첫 번째 진리를 제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되고, 가르쳐지고, 여러 면에서 심지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 확실하다. 나는 모든 의견이 종파적으로 되는 경향이 가장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 치료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의해 강화되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마땅히 보여져야 했지만 보여지지 않았던 진리가 반대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의해 선포되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거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충돌이 건전한 효과를 미치는 것은 열정적인 당파가 아니라 더 차분하고 사심 없는 방관자에게이다. 진리의 일부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 아니라, 그것의 절반의 조용한 억압이 무서운 악이다. 사람들이 양쪽의 말을 모두 듣도록 강요될 때는 항상 희망이 있다. 그들이 한쪽의 말만 들을 때 오류는 편견으로 굳어지고, 진리 자체는 과장되어 거짓이 됨으로써 진리의 효과를 잃는다. 그리고 어떤 질문의 양쪽을 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드물기 때문에, 그 질문의 한쪽만을 대변하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진리는 그것의 모든 측면, 진리의 어떤 부분이라도 포함하는 모든 의견이 단순히 변호자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경청될 수 있도록 변호될 때만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제 인류의 정신적 웰빙(그들의 다른 모든 웰빙이 여기에 달려 있다)에 필요한 의견의 자유와 의견 표현의 자유를 네 가지 뚜렷한 근거에서 인식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겠다.

첫째, 어떤 의견이 침묵하도록 강요된다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그 의견은 진실일 수 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오류를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침묵당한 의견이 오류일지라도, 그것은 진리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매우 흔히 포함한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일반적이거나 지배적인 의견이 좀처럼 전체 진리가 아니므로, 상반된 의견의 충돌을 통해서만 진리의 나머지 부분이 공급될 기회가 생긴다. 셋째, 받아들여진 의견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전체 진리일지라도,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논쟁되도록 허용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편견의 방식으로, 그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이해나 감정 없이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넷째, 교리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약화되고, 성격과 행동에 대한 그것의 중요한 효과를 잃을 위험이 있다. 독단은 단순히 형식적인 직업이 되어, 선을 위해서는 무력하지만 땅을 차지하고, 이성이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오는 어떤 진정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의 성장을 막는다.

의견의 자유에 대한 주제를 떠나기 전에, 모든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이 방식이 온건하고 공

정한 토론의 한계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부 주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가정된 한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만약 시험이 의견 공격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면, 경험은 공격이 효과적이고 강력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어떤 상대방이라도 주제에 대해 어떤 강한 감정을 보이면 온건하지 않은 상대방으로 그들에게 보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더 근본적인 반론에 병합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은, 비록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매우 반대할 만하며 정당하게 심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주요 위반 행위는 우발적인 자기 노출 외에는 유죄 판결을 받기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꾀변을 부리고, 사실이나 주장을 숨기고, 사건의 요소를 잘못 진술하거나 반대 의견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가장 악화된 정도에 이르기까지, 무지하거나 무능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다른 많은 면에서 그렇게 여겨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완벽한 선의로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근거에서 양심적으로 그 왜곡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하다고 낙인찍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법이 이러한 종류의 논쟁적 잘못에 개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일반적으로 온건하지 않은 토론이라고 흔히 불리는, 즉 비난, 비꼬는 말, 인신 공격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무기에 대한 비난은 양쪽에 똑같이 금지할 것이 제안된다면 더 많은 공감을 받을 만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지배적인 의견에 맞서 사용되는 것만 제한하려 한다. 지배적이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비난 없이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직한 열정과 의로운 분노의 칭찬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어떤 해악이든, 그것들이 비교적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 가장 크다. 그리고 어떤 의견이 이러한 주장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불공정한 이점도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의견에 귀속된다. 논쟁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종류의 위반 행위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나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비방에 대해 어떤 인기 없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노출되기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소수이고 영향력이 적으며, 자신들 외에는 누구도 그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지는 데 큰 관심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무기는 사건의 본질상 지배적인 의견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없고, 설령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대의에 반발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받아들여지는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은 신중한 언어의 온건함과 불필요한 불쾌감을 신중하게 피함으로써만 청중을 얻을 수 있으며, 약간의 정도라도 벗어나면 거의 항상 입지를 잃는다. 반면에 지배적인 의견 측에서 사용되는 무제한적인 비난은 실제로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표방하는 것과 그것을 표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막는다. 따라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이러한 비난적인 언어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선택해야 한다면, 종교에 대한 공격보다는 불신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과 권위가 어느 쪽이든 억제하는 일에는 관여할 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반면에 여론은 각 개인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결을 결정해야 한다. 어느 쪽의 주장에서 있든, 그의 변론 방식에 솔직함의 부족, 악의, 편견, 또는 감정의 불관용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비난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취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악덕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 비록 그것이 우리 자신의 질문과 반대되는 입장일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 침착하게 상대방과 그들의 의견이 실제로 무엇인지 보고 정직하게 말하며, 그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아무것도 과장하지 않고, 그들에게 유리한, 또는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영예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공개 토론의 진정한 도덕이며, 비록 종종 위반되지만, 많은 논쟁가들이 상당 부분 그것을 준수하고 있으며, 양심적으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FOOTNOTES

[6] 이 글을 쓰자마자, 마치 이를 강렬히 부정이라도 하듯, 1858년 정부의 언론 기소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공공 토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본문의 단 한 글자도 바꾸지 못했으며, 공포에 휩싸인 순간을 제외하면 정치적 토론에 대한 처벌의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라졌다는 내 확신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다. 첫째, 그 기소는 계속되지 않았고, 둘째, 엄밀히 말해 정치적 기소가 아니었다. 기소된 혐의는 제도나 통치자의 행위 또는 인물을 비

관한 것이 아니라, 폭정 제거의 정당성이라는 부도덕하다고 여겨진 가르침을 펴뜨린 것으로 간주된 것이었다.

본 장의 논거가 조금이라도 타당하다면, 어떤 가르침이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그것을 윤리적 신념의 문제로 삼아 자유롭게 주장하고 토론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폭정 제거의 가르침이 그러한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일이다. 나는 단지 이 주제가 항상 도덕의 열린 질문 중 하나였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법 위에 자신을 두어 법적 처벌이나 통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범죄자를 개인 시민이 처단하는 행위는, 여러 국가와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 범죄가 아니라 고귀한 덕행으로 여겨져 왔다. 옳든 그르든, 이는 암살의 성격이 아니라 내전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특정 사례에서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처벌의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명백한 행동이 뒤따랐고 그 행동과 부추김 사이에 적어도 개연성 있는 연관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 그 경우에도, 외국 정부가 아니라 공격받은 바로 그 정부만이 자위의 행사로서 자신의 존재를 겨냥한 공격에 대해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다.

[7] 토마스 풀리(Thomas Pooley), 보드민 법정, 1857년 7월 31일. 그해 12월, 그는 왕실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받았다.

[8] 조지 제이콥 홀리오크(George Jacob Holyoake), 1857년 8월 17일; 에드워드 트루러브(Edward Truelove), 1857년 7월.

[9] 글라이헨 남작(Baron de Gleichen), 말보로 스트리트 경찰 법원, 1857년 8월 4일.

[10] 세포이 반란 당시 우리 국민성의 최악의 부분이 드러난 가운데, 박해자의 열정이 크게 섞여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경고를 얻을 수 있다. 설교단에서 나온 광신자나 사기꾼의 헛소리는 주목할 가치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복음주의파의 지도자들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통치하는 원칙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공적 자금으로 지원받지 않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실제든 가식이든 기독교인에게만 공적 직책이 주어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1857년 11월 12일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한 국무차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의 신앙에 대한 관용, 즉 그들이 종교라고 부르는 미신을 영국 정부가 용인한 것은 영국 이름의 우위를 낮추고 기독교의 건전한 성장을 막는 효과를 가져왔다... 관용은 이 나라 종교적 자유의 큰 초석이었다. 그러나 그 귀중한 단어 ‘관용’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관용은 모든 이에게 완전한 자유, 즉 동일한 기초 위에서 예배하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예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의 중재를 믿는 모든 기독교 종파와 교파에 대한 관용을 뜻한다.” 나는 이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즉, 자유주의 내각 아래에서 이 나라의 높은 직책을 맡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모든 이는 관용의 범위 밖에 있다는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어리석은 태도 이후에 누가 종교적 박해가 사라졌으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을 수 있겠는가?

CHAPTER III.

개인성(Individuality), 웰빙의 요소 중 하나로서

인간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하고, 그 의견을 아무런 제약 없이 표현해야 하는 이유가 그러하며, 이 자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주장되지 않는다면 지적 본성과 이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해로운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같은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따라 행동할 자유, 즉 자신의 위협과 책임 하에서 동료 인간의 물리적 또는 도덕적 방해 없이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할 자유를 요구하는지 살펴보자. 물론 이 마지막 조건은 필수적이다. 누구도 행동이 의견만큼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견조차도, 그것이 표현되는 상황이 어떤 해로운 행위를 명백히 부추기는 경우에는 면책 특권을 잃는다. 예를 들어, 곡물 상인이 가난한 자를 굶주리게 한다는 의견이나 사유재산이 강탈이라는 의견은 언론을 통해 단순히 유포될 때는 방해받지 않아야 하지만, 곡물 상인의 집 앞에 모인 흥분한 군중에게 구두로 전달되거나 같은 군중 사이에서 플래카드 형태로 배포될 때는 정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종류의 행동은 불리한 여론에 의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류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통제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는 이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타인에게 방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일에서 자신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면, 의견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비용으로 그 의견을 실천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증명한다. 인류는 오류가 없지 않으며, 그들의 진리는 대부분 반쪽 진리에 불과하다. 의견의 일치가 가장 완전하고 자유로운 반대 의견의 비교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성은 악이 아니라 선이다. 인류가 현재보다 훨씬 더 진리의 모든 면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원칙은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도, 의견에도 적용된다. 인류가 불완전한 동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유익하듯, 다양한 삶의 실험이 존재하는 것도 유익하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성격의 다양성에 자유로운 여지를 주어야 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의 가치는 누군가 그것을 시도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요컨대, 타인과 주로 관련되지 않는 일에서는 개인성이 스스로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자신의 성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전통이나 관습이 행동의 규칙이 되는 곳에서는 인간 행복의 주요 요소 중 하나가, 그리고 개인적·사회적 진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이 원칙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인정받은 목적을 향한 수단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목적 자체에 무관심하다는 데 있다. 만약 개인성의 자유로운 발전이 웰빙의 주요 필수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진다면, 그것이 문명, 교육, 훈육, 문화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모든 것과 동등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필수적 부분이자 조건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자유가 과소평가될 위험은 없을 것이며, 자유와 사회적 통제 사이의 경계를 조정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적 자발성이 일반적인 사고 방식에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거나 그 자체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다수는 현재 인류의 방식에 만족하고 있으며(그 방식은 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방식이 모든 이에게 충분히 좋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더구나 자발성은 대부분의 도덕적·사회적 개혁자들의 이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인류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성가시고 반항적인 장애물로 여겨진다. 독일 밖에서는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가 학자이자 정치가로서 두드러지게 주장한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의 목적, 또는 이성과의 영원하고 불변의 명령에 의해 규정된 목적, 즉 막연하고 일시적인 욕망에 의해 제안되지 않는 목적은 그의 능력을 완전하고 일관된 전체로 최고로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특히 동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이들이 항상 주목해야 하는 목표는 힘과 발전의 개인성”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즉, “자유와 다양한 상황”이며,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개인적 활력과 다채로운 다양성”이 생기고, 이는 “독창성”으로 나타난다고 했다.[11]

사람들이 폰 훔볼트와 같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고, 개인성에 이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놀라워할지라도, 이 문제는 결국 정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행동의 우수성에 대한 누구의 관념도 사람들이 서로를 절대적으로 모방하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과 일의 처리에 자신의 판단이나 개인적 성격의 혼

적을 전혀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무런 지식도 없었다는 듯 살아야 한다거나, 경험이 어떤 존재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 다른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듯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터무니없다. 누구도 사람들이 젊었을 때 인류 경험의 확정된 결과로부터 배우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성숙한 인간에게는 경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특권이자 적절한 조건이다. 기록된 경험 중 어떤 부분이 자신의 상황과 성격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 다른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은 그들의 경험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증거이다. 이는 추정 증거로서 그의 존중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첫째, 그들의 경험은 너무 좁을 수 있으며, 그들이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둘째, 그들의 경험 해석이 올바를 수 있지만 그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관습은 관습적인 상황과 성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의 상황이나 성격은 비관습적일 수 있다. 셋째, 관습이 관습으로서 좋고 그에게 적합하더라도, 단지 관습이라는 이유로 관습에 따르는 것은 그에게 인간의 독특한 재능인 어떤 자질도 교육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한다. 인간의 지각, 판단, 분별력, 정신적 활동, 심지어 도덕적 선호의 능력은 선택을 할 때만 발휘된다. 관습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는 최선을 분별하거나 바라는 연습을 얻지 못한다. 정신적·도덕적 능력은 근육의 힘처럼 사용함으로써만 향상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단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단지 그렇게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능력을 발휘시키지 못한다. 의견의 근거가 그 사람 자신의 이성에 설득력이 없다면, 그의 이성은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행동을 유도하는 동기가 그의 감정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애정이나 타인의 권리가 관련되지 않은 경우), 그의 감정과 성격을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만드는 대신 무기력하고 둔감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세상이나 그 일부가 그를 위해 삶의 계획을 선택하게 하는 사람은 모방이라는 원숭이 같은 능력 외에 다른 능력이 필요 없다. 스스로 계획을 선택하는 사람은 모든 능력을 사용한다. 그는 관찰을 통해 보고, 추론과 판단을 통해 예견하며, 결정을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활동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분별력을 발휘하며, 결정한 후에는 자신의 의도적 결정을 고수하기 위해 확고함과 자제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은 그가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행동의 비율이 클수록 정확히 그 비율에 맞춰 필요하고 발휘된다. 그는 이러한 것들 없이도 좋은 길로 인도되고 해로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의 상대적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 정당하게 완성되고 아름다워지는 데 사용되는 인간의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인간 자신이다. 집을 짓고, 곡물을 재배하고, 전투를 벌이고, 소송을 다루며, 심지어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기계, 즉 인간 형태의 자동인형으로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자동인형으로 현재 문명화된 세계의 사람들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 될 것이다. 그들은 확실히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낼 것의 빈약한 표본에 불과하다. 인간 본성은 모델에 따라 만들어지고 정해진 일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설정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내적 힘의 경향에 따라 모든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나무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습을 지능적으로 따르거나 때로는 관습에서 지능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맹목적이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낫다는 점은 아마도 인정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우리의 이해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과 충동 역시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강한 충동을 갖는 것이 위험과 함정 외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려는 의지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욕망과 충동은 신념과 억제만큼 완전한 인간의 일부이다. 강한 충동은 적절히 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만 위험하다. 한 세트의 목표와 성향이 강하게 발전하면서, 그와 공존해야 할 다른 것들이 약하고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을 때 위험하다. 사람들이 강한 욕망 때문에 잘못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이다. 강한 충동과 약한 양심 사이에는 자연적 연결이 없다. 자연적 연결은 반대 방향에 있다. 한 사람의 욕망과 감정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다양하다는 것은 단지 그가 인간 본성의 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더 많은 악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더 많은 선을 행할 수도 있다. 강한 충동은 에너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에너지는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에너지 넘치는 본성에서는 항상 게으르고 무감각한 본성보다 더 많은 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교양 있는 감정

이 가장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개인적 충동을 생생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강한 감수성은 또한 미덕에 대한 가장 열정적인 사랑과 가장 엄격한 자제력을 생성하는 원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배양함으로써 사회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이익을 보호한다. 영웅이 만들어지는 재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욕망과 충동이 자신의 것, 즉 자신의 본성이 자신의 교양에 의해 발전되고 수정된 표현인 사람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욕망과 충동이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은 증기기관이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성격이 없다. 게다가 그의 충동이 자신의 것이면서 강하고, 강한 의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는 에너지 넘치는 성격을 가진다. 욕망과 충동의 개인성이 펼쳐지도록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가 강한 본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많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고, 에너지의 높은 평균 수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한다.

사회 초기 상태에서는 이러한 힘이 사회가 당시 가지고 있던 규율과 통제의 능력을 너무 앞섰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랬다. 자발성과 개인성의 요소가 과도했던 시절이 있었고, 사회적 원칙은 이에 맞서 힘겹게 싸워야 했다. 당시의 어려움은 강한 신체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도록 요구하는 어떤 규칙에 복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과 규율은, 교황이 황제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인간 전체에 대한 권력을 주장하며 그의 성격을 통제하기 위해 그의 모든 삶을 통제하려고 했다. 사회는 다른 충분한 수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사회는 개인성을 상당히 극복했다. 인간 본성을 위협하는 위험은 개인적 충동과 선호의 과잉이 아니라 부족이다. 지위나 개인적 재능으로 강한 사람들이 법과 규범에 대해 습관적으로 반항하고, 그들의 손이 닿는 사람들이 약간의 안전이라도 누리기 위해 엄격히 죄사슬로 묶어야 했던 시절부터 상황은 크게 변했다. 우리 시대에는 가장 높은 계층에서 가장 낮은 계층까지, 모든 사람이 적대적이고 두려운 검열의 눈 아래에서 살아간다. 타인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오직 자신과 관련된 일에서도 개인이나 가족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선호하는가? 내 성격과 기질에 무엇이 맞는가? 내 안의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이 공정하게 발휘되고 성장하며 번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지위에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내 계층과 재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더 나쁜 경우) 내 계층과 상황보다 더 높은 계층과 상황의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보다 관습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관습적인 것 외의 성향을 가질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신 자체가 멍에에 굴복한다. 심지어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 하는 일에서도 순응이 가장 먼저 고려된다. 그들은 무리 속에서 산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들 중에서만 선택을 행사한다. 취향의 독특함, 행동의 괴팍함은 범죄와 동등하게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자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으므로써 따를 본성이 없게 된다. 그들의 인간적 능력은 시들고 굶주린다. 그들은 강한 소망이나 본래의 즐거움을 가지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집에서 자란, 또는 진정으로 그들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가지지 못한다. 이제 이것이 인간 본성의 바람직한 상태인가, 아닌가?

칼뱅주의 이론에 따르면 그렇다. 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의지(Self-will)이다.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선은 복종(Obedience)에 포함된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의무가 아닌 것은 모두 죄이다.” 인간 본성은 근본적으로 부패했으므로, 인간 본성이 그 안에서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삶의 이론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간의 능력, 역량, 감수성을 짓밟는 것이 악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기는 능력 외에는 어떤 능력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가 그 가정된 뜻을 더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는 그 능력이 없는 편이 낫다. 이것이 칼뱅주의의 이론이며, 자신을 칼뱅주의자로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완화된 형태로 이를 믿는다. 완화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는 것에 덜 금욕적인 해석을 부여하는 데 있다. 즉, 인류가 그들의 성향 중 일부를 충족시키는 것이 그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종의 방식, 즉 권위가 규정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좁은 삶의 이론과 그것이 지지하는 경직되고 억압된 인간 성격 유형에 대한 강한 경향이 현재 어떤 교활한 형태로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억압되고 왜소화된 인간이 그들의 창조자가 의도한 대로라고 생각한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 자연이

만든 대로가 아니라, 가치를 잘라 등글게 만들거나 동물 모양으로 자른 것이 훨씬 더 멋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인간이 선한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 종교의 일부라면, 이 존재가 모든 인간 능력을 배양하고 펼치기 위해 주었으며, 뽑아내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신앙과 더 일치한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피조물이 그들 안에 구현된 이상적 개념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해, 행동, 즐거움의 능력이 증가할 때마다 기뻐한다고 믿는 것이 더 일치한다. 칼뱅주의와는 다른 인간 우수성의 유형이 있다. 인간 본성이 단지 부정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부여되었다는 개념이다. “이교적 자기 주장(Pagan self-assertion)”은 “기독교적 자기 부정(Christian self-denial)”과 마찬가지로 인간 가치의 요소 중 하나다.[12] 플라톤적이고 기독교적인 자기 통제의 이상과 융합되지만 이를 대체하지 않는 그리스적 자기 발전의 이상이 있다. 존 녹스(John Knox)보다 알키비아데스(Alcibiades)가 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만, 둘 중 어느 하나보다 페리클레스(Pericles)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페리클레스를 가진다면, 그는 존 녹스가 가진 좋은 것 중 어떤 것도 결여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 안의 개인적인 것을 모두 균일하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이익에 의해 부과된 한계 내에서 그것을 배양하고 불러내는 것이 인간을 고귀하고 아름다운 관찰의 대상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의 성격이 그들을 닮아가는 것처럼, 같은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도 풍부하고 다양하며 활기를 띠게 되어 높은 사상과 고양된 감정에 더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하고, 개인을 인류와 연결하는 유대를 강화한다. 이는 인류를 소속할 가치가 무한히 더 큰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개인성이 발전하는 비율에 따라 각 사람은 자신에게 더 가치 있게 되며, 따라서 타인에게도 더 가치 있게 될 수 있다. 자신의 존재에 더 큰 삶의 충만함이 있으며, 구성 단위에 삶이 더 많을수록 그들이 구성하는 전체에도 더 많은 삶이 있다. 인간 본성의 더 강한 표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의 억제력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발전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다.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며 자신의 성향을 만족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잃는 발전의 수단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발전을 희생하여 얻어진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도, 이기적인 부분에 대한 억제가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본성의 더 나은 발전에서 완전한 보상이 있다. 타인을 위해 정의의 엄격한 규칙에 묶이는 것은 타인의 선을 목표로 하는 감정과 능력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타인의 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에서 단순히 그들의 불쾌감 때문에 억제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발전시키지 않으며, 억제에 저항하면서 펼쳐질 수 있는 성격의 힘 외에는 아무것도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전체 본성을 둔화시키고 무디게 한다. 각자의 본성에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도록 허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떤 시대든 이 여유가 행사된 비율에 따라 그 시대는 후대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 남는다. 심지어 전체정치도 개인성이 그 아래에 존재하는 한 최악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성을 짓밟는 것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하나님의 뜻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든 사람들의 명령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든, 전체정치다.

개인성이 발전과 동일하며, 개인성을 배양하는 것만이 잘 발전된 인간을 만들거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했으므로, 여기서 논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사를 어떤 상태가 인간 자신을 그들이 될 수 있는 최선의 것에 더 가깝게 만든다는 것보다 더 좋거나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또는 선을 방해하는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이 이를 방해한다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고려만으로는 설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발전된 인간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용성을 가지는지, 자유를 원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방해 없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대해 어떤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그렇다면 그들이 어찌면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독창성이 인간사에서 귀중한 요소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한때 진리였던 것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닐 때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행을 시작하고, 인간 삶에서 더 계몽된 행동과 더 나은 취향 및 감각의 본보기를 세울 사람들은 항상 필요하다. 세상이 이미 모든 방식과 관행에서 완벽에 도달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이것을 잘 부정할 수 없다. 이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채택된다면 확립된 관행에 개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실험을 하는 사람은 인류 전체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소수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인간 삶은 정체된 연못이 되었을 것이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좋은 것을 도입하는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다. 이미 존재했던 것들 속에 삶을 유지시키는 것은 그들이다. 만약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인간 지성은 필요 없게 될까? 오래된 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왜 하는지 잊고 인간처럼 아니라 가축처럼 그것을 하는 이유가 될까? 최고의 신념과 관행조차 기계적인 것으로 퇴화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독창성이 그 신념과 관행의 근거가 단지 전통적인 것이 되는 것을 막는 연속적인 사람들이 없다면, 그러한 죽은 물질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어떤 것의 가장 작은 충격에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비잔틴 제국에서처럼 문명이 사라져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물론 천재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항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들을 얻으려면 그들이 자랄 토양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재는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 천재적인 사람들은 단어의 의미상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개성적이다. 결과적으로 사회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제공하는 소수의 틀 중 어떤 것에 자신들을 맞추는 데 덜 능력이 있다. 만약 그들이 소심함 때문에 이러한 틀 중 하나에 강제로 들어가고, 압력 아래에서 확장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모든 부분을 확장되지 않은 채로 두는 데 동의한다면, 사회는 그들의 천재성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족쇄를 부순다면, 그들은 그들을 평범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한 사회의 표적이 되어 "거칠고", "변덕스러운" 등으로 엄숙한 경고와 함께 지적된다. 마치 나이가 가라 강이 네덜란드 운하처럼 제방 사이로 부드럽게 흐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천재의 중요성과 사상과 실천 모두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허용할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이론적으로는 아무도 그 입장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에 전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천재가 사람에게 흥미진진한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다면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의미, 즉 사상과 행동의 독창성은 아무도 그것이 감탄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그것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놀랄 일이 아니다. 독창성은 독창적이지 않은 마음이 그 효용을 느끼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 줄지 알 수 없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만약 그들이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 줄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독창성이 아닐 것이다. 독창성이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첫 번째 봉사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일단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들은 스스로 독창적이 될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 동안, 어떤 사람이 처음 한 일이 아닌 것은 결코 없었다는 것과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은 독창성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아직 성취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것을 믿을 만큼 겸손하게 자신을 두고, 그들이 결핍을 덜 의식할수록 독창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자.

엄밀히 말해, 실제 또는 가정된 정신적 우월함에 대해 어떤 경의가 표명되거나 심지어 지불될지라도, 전 세계적인 사물의 일반적인 경향은 인류 사이에서 평범함이 지배적인 권력이 되게 하는 것이다. 고대 역사에서, 중세 시대에서, 그리고 봉건제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긴 전환기를 통해 감소하는 정도에서, 개인은 그 자체로 권력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큰 재능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면, 그는 상당한 권력이었다. 현재 개인들은 군중 속에 묻혀 있다. 정치에서는 공공 여론이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거의 상투적인 표현이다. 이름에 걸맞은 유일한 권력은 대중의 권력이며, 정부가 대중의 성향과 본능의 대변자가 될 때의 정부의 권력이다. 이것은 사생활의 도덕적 및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실이다. 공공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같은 종류의 공중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백인 인구이다. 영국에서는 주로 중산층이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대중, 즉 집단적 평범함이다. 그리고 더욱 새로운 것은, 대중은 이제 교회나 국가의 고위 인사, 명백한 지도자, 또는 책으로부터 의견을 얻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신문을 통해 즉석에서 그들에게 연설하거나 그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신들과 매우 닮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현재의 인간 정신의 낮은 상태와 일반적인 규칙으로 볼 때 더 나은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평범한 정부의 통치가 평범한 정부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민주주의나 다수의 귀족에 의한 정부는 정치적 행위에서든, 그것이 육성하는 의견, 자질, 정신 상태에서든, 주권 다수가 더 재능 있고 교육받은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조언과 영향에 의해 안내되도록 허용한 경우(최고의 시기에는 항상 그래왔다)를 제외하고는 평범함 이상으로 높아진 적이 없었고, 높아질 수도 없었다. 모든 현명하거나 고귀한 것의 시작은 개인에게서 오며 와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어떤 한 개인에게서 온다. 평범한 사람의 영광과

영예는 그가 그 주도권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현명하고 고귀한 것에 내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눈을 뜨고 그것으로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천재의 강한 사람이 세계 정부를 강제로 장악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도록 만드는 영웅 숭배 종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길을 제시할 자유뿐이다.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강요하는 권력은 나머지 모든 사람의 자유와 발전에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 자신에게도 부패를 가져온다. 그러나 단순히 평균적인 사람들의 대중의 의견이 어디에서나 지배적인 권력이 되거나 되어가고 있을 때, 그러한 경향에 대한 균형추와 교정은 생각의 더 높은 곳에서 있는 사람들의 점점 더 뚜렷한 개성일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예외적인 개인들은 억제되기보다는 대중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다른 시대에는 그들이 단지 다르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더 좋게 행동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는 데 이점이 없었다. 이 시대에는 단순히 비순응의 본보기, 단순히 관습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봉사이다. 정확히 의견의 폭정이 괴팍함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 폭정을 깨기 위해 사람들이 괴팍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괴팍함은 성격의 강인함이 풍부했던 곳과 시기에 항상 풍부했다. 그리고 사회의 괴팍함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그 사회가 포함한 천재, 정신적 활력, 도덕적 용기의 정도에 비례했다. 지금 그렇게 감히 괴팍한 사람이 적다는 것은 시대의 주된 위험을 나타낸다.

나는 비관습적인 것들에 가능한 가장 자유로운 여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중 어떤 것이 관습으로 전환되기에 적합한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동의 독립성과 관습에 대한 무시는 단지 더 나은 행동 방식과 더 일반적인 채택에 가치 있는 관습이 나타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만 장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또한 명백한 정신적 우월성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할 정당한 주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인간 존재가 어떤 하나의, 또는 소수의 패턴에 따라 구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상당한 양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다. 그것이 그 자체로 가장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자신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양과 같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양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것은 없다. 사람은 자신의 치수에 맞게 만들어지거나, 선택할 수 있는 창고 전체가 있지 않으면 자신에게 맞는 코트나 부츠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그에게 코트보다 삶에 맞추는 것이 더 쉽거나, 인간 존재는 발 모양보다 전체적인 신체적 및 영적 구조에서 서로 더 비슷한가? 만약 사람들이 단지 취향의 다양성을 가질 뿐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그들을 모두 하나의 모델에 따라 형성하려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은 또한 그들의 영적 발전을 위해 서로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이 동일한 물리적 분위기와 기후에서 건강하게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도덕적 환경에서 건강하게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더 높은 본성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일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방해물이 된다. 동일한 삶의 방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자극이 되어 그의 행동과 즐거움의 모든 능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부담이 되어 모든 내면 생활을 중단시키거나 억누른다. 인간 존재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즐거움의 원천, 고통의 감수성, 그리고 서로 다른 물리적 및 도덕적 요인이 그들에게 미치는 작용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 상응하는 다양성이 없다면, 그들은 행복의 정당한 몫을 얻지도 못하고, 그들의 본성이 가능한 정신적, 도덕적, 심미적 수준으로 성장하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왜 관용은, 공공 감정과 관련된 한, 그것을 지지하는 다수에 의해 동의를 강요받는 취향과 삶의 방식에만 확대되어야 하는가?[13] (일부 수도권 기관을 제외하고) 취향의 다양성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 곳은 없다. 어떤 사람은 노젓기, 흡연, 음악, 체육 활동, 체스, 카드, 공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비난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각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 모두 너무 많아서 억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남자, 그리고 특히 여자는 마치 심각한 도덕적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많은 비하적인 발언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평가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다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기 위해 지위나 다른 계급의 표시, 또는 지위 있는 사람들의 존중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다소 누리는 것,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특권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비하적인 말보다 더 나쁜 것의 위험을 감수한다. 그들은 'lunatico 위원회'에 회부될 위험이 있으며, 재산을 빼앗겨 친척에게 넘겨질 위험이 있다.

현재 공공 여론의 방향에는 개성의 뚜렷한 표현에 대해 불관용하게 만드는 데 특별히 작용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인류의 일반적인 평균은 지성뿐만 아니라 성향도 평범하다. 그

들은 특이한 일을 하도록 유도할 만큼 강한 취향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경멸하는 거칠고 절제 없는 사람들과 함께 분류한다. 이제, 일반적인 사실 외에, 도덕 개선을 향한 강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하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분명해진다. 이 시대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행동의 규칙성을 높이고 과도함을 억제하는 면에서 많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료 인간의 도덕적 및 신중한 개선보다 더 매력적인 분야가 없는 박애주의 정신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시대의 경향은 대부분의 이전 시대보다 공공이 일반적인 행동 규칙을 규정하고, 모든 사람이 승인된 기준에 순응하도록 노력하는 데 더 기울게 만든다. 그리고 그 기준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강렬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 성격의 이상은 어떤 뚜렷한 성격도 없는 것이다. 마치 중국 여성의 발처럼 압축에 의해 손상시키는 것, 즉 인간 본성의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그 사람이 평범한 인류와 윤곽에서 뚜렷하게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모든 부분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의 절반을 배제하는 이상에 흔히 해당하는 것처럼, 현재의 승인 기준은 나머지 절반의 열등한 모방만을 생산한다. 강건한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위대한 에너지와 양심적인 의지에 의해 강하게 통제되는 강한 감정 대신, 그 결과는 약한 감정과 약한 에너지이며, 따라서 의지나 이성의 힘 없이도 규칙에 대한 외적인 순응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대규모의 에너지 넘치는 성격은 단지 전통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 나라에는 이제 사업 외에는 에너지를 발산할 출구가 거의 없다. 그 사업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일에서 남은 작은 에너지는 어떤 취미에 소비된다. 그것은 유용하거나 심지어 박애적인 취미일 수 있지만, 항상 한 가지 일이며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일이다. 영국의 위대함은 이제 모두 집단적이다. 개인적으로는 작지만, 결합하는 습관을 통해서만 어떤 위대한 일을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박애주의자들은 이것에 완벽하게 만족한다. 그러나 영국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든 것은 이것과는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관습의 독재는 어디에서나 인간 진보의 영원한 장애물이다. 이는 관습적인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목표로 하려는 경향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자유 정신 또는 진보나 개선 정신이라고 불린다. 개선 정신이 항상 자유 정신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개선을 강요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 정신은 그러한 시도에 저항하는 한, 국지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개선 반대자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선의 유일하고 변함없는 영구적인 원천은 자유이다. 왜냐하면 자유를 통해 개인 수만큼 가능한 독립적인 개선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 사랑이든 개선 사랑이든, 어떤 형태의 진보 원칙은 관습의 지배에 반대되며, 최소한 그 명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투쟁은 인류 역사의 주요 흥미로운 부분을 구성한다. 세계의 대부분은 엄밀히 말해 역사가 없다. 왜냐하면 관습의 독재가 완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양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일에서 관습이 최종적인 결정이며, 정의와 옳음은 관습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에 취한 어떤 폭군이 아닌 이상, 관습의 주장에 저항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본다. 그 국가들은 한때 독창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인구가 많고, 문자를 알고, 삶의 많은 기술에 능숙하게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국가들이었다. 지금 그들은 무엇인가? 조상들이 숲을 헤매던 시대에 웅장한 궁전과 화려한 신전을 가졌지만, 그들 위에서 관습은 자유와 진보와 분리된 지배만을 행사했던 부족들의 백성 또는 부양자들이다. 한 민족은 일정 기간 동안 진보적일 수 있으며, 그리고 나서 멈추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 멈추는가? 개인성을 갖는 것을 멈출 때이다. 만약 비슷한 변화가 유럽 국가들에게 닥친다면, 그것은 정확히 같은 형태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위협받는 관습의 독재는 정확히 정체성이 아니다. 그것은 특이함을 금지하지만, 모든 것이 함께 변화한다면 변화를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상들의 고정된 의상을 버렸다. 모두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입어야 하지만, 패션은 일년에 한두 번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아름다움이나 편리함의 어떤 아이디어에서가 아니라, 변화 자체를 위한 것이 되도록 주의한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나 편리함의 동일한 아이디어가 동시에 전 세계를 사로잡고, 다른 순간에 모두 동시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보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계적인 것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고, 더 나은 것으로 대체될 때까지 그것들을 유지한다. 우리는 정치, 교육, 심지어 도덕에서도 개선을 갈망한다. 비록 후자에서는 개선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가 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강요하여 우리만큼 선하게 만드는 것에 있지만 말이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만한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개인성이다. 우리가 모두 똑같이 만들었다면 우리는 경이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다름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형의 불완전성과 다른 사람의 우월성, 또는 둘 모두의 장점을 결합하여 둘보다 더 나은 것을 생산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을 잊고 말이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경고적인 예가 있다. 중국은 많은 재능과 일부 면에서는 지혜까지 가진 민족이다. 이는 초기부터 특히 좋은 관습 체계를 갖추는 드문 행운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 관습 체계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계몽된 유럽인조차 특정 제한 내에서 현자 및 철학자의 칭호를 부여해야 할 사람들의 작품이다. 그들은 또한 공동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능한 한 최상의 지혜를 인상시키고, 그것을 가장 많이 습득한 사람이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보장하는 뛰어난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분명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인간 진보의 비밀을 발견했으며, 세계 운동의 선두에 꾸준히 서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그들은 정체되어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외국인에 의해서일 것이다. 그들은 영국 박애주의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즉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고, 모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같은 원칙과 규칙으로 지배하게 만드는 것에서 모든 희망을 넘어 성공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열매이다. 현대의 여론 체제는 조직화되지 않은 형태로, 중국의 교육 및 정치 체계가 조직화된 형태이다. 그리고 개인성이 이 명예에 맞서 성공적으로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면, 유럽은 고귀한 선조와 공인된 기독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중국이 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무엇이 유럽을 지금까지 이러한 운명으로부터 구원했는가? 무엇이 유럽 국가들을 정체된 인류 부분이 아닌 발전하는 부분으로 만들었는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뛰어난 우월성이 아니다. 그것이 존재할 때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목할 만한 성격과 문화의 다양성이다. 개인, 계층, 국가들은 서로 극도로 달랐다. 그들은 각자 가치 있는 어떤 것으로 이끄는 다양한 길을 개척했다.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 다른 길을 여행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불관용적이었고, 각자는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강요한다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서로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좀처럼 영구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각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 선을 받아들이는 것을 견디게 되었다. 내 판단으로는 유럽은 이러한 다양한 길 때문에 진보적이고 다면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혜택을 상당히 적게 가지고 있기 시작했다. 그것은 확실히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는 중국적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드 토크빌 씨는 그의 마지막 중요한 저서에서 현재의 프랑스인들이 이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서로 훨씬 더 닮았다고 언급한다. 같은 말은 영국인에게 훨씬 더 큰 정도로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인용한 빌헬름 폰 훔볼트의 구절에서 그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서 인간 발전의 두 가지 필요한 조건을 지적한다. 즉, 자유와 다양한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두 번째는 이 나라에서 매일 감소하고 있다. 서로 다른 계층과 개인들을 둘러싸고 그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환경은 매일 더 동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서로 다른 계급, 서로 다른 동네, 서로 다른 직업과 전문직이 서로 다른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살았다. 현재는 상당 부분 동일한 곳에서 살고 있다. 비교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이제 같은 것을 읽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장소에 가고, 같은 대상에 희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권리와 자유, 그리고 그것들을 주장할 같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 남아 있는 지위의 차이가 크더라도, 사라진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동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대의 모든 정치적 변화는 그것을 촉진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낮은 것을 높이고 높은 것을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모든 확장은 그것을 촉진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사람들을 공통의 영향력 아래로 데려오고, 사실과 감정의 일반적인 스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통신 수단의 개선은 먼 곳의 주민들을 개인적인 접촉으로 데려오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거주지 변경의 빠른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그것을 촉진한다. 상업과 제조업의 증가는 편안한 환경의 이점을 더 널리 확산시키고, 가장 높은 야망의 대상까지도 일반 경쟁에 개방함으로써 그것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상승 욕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성격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성격이 된다. 이 나라와 다른 자유 국가에서 국가에서의 공공 여론의 우위의 완전한 확립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요인이다. 대중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게 했던 다양한 사회적 우위가 점차 평준화되면서, 공중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알려진 경우, 그들의 의지에 저항한다는 생각 자체가 실용적인 정치가들의 마

음에서 점점 더 사라진다. 비순응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지원, 즉 수의 우위에 반대하며 공중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과 경향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회 내의 실질적인 권력이 사라진다.

이 모든 원인들의 결합은 개성에 적대적인 영향력의 너무 큰 덩어리를 형성하여, 그것이 어떻게 그 입지를 지킬 수 있을지 쉽게 알 수 없다. 그것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공중의 지적인 부분이 그것의 가치를 느끼고, 심지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들에게는 더 나쁜 것으로 보일지라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말이다. 만약 개성의 주장이 주장된다면, 지금이 바로 강제적인 동화가 완성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때이다. 침해에 성공적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다른 모든 사람이 우리와 닮아야 한다는 요구는 그것이 먹고 사는 것에 의해 성장한다. 만약 삶이 거의 하나의 균일한 유형으로 축소될 때까지 저항이 기다린다면, 그 유형으로부터의 모든 벗어남은 불경하고, 부도덕하며, 심지어 괴물 같고 자연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인류는 얼마 동안 다양성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다양성을 생각할 수 없게 빠르게 된다.

각주: [11] 정부의 영역과 의무, 빌헬름 폰 훔볼트 남작의 독일어 원문, pp. 11-13. [12] 스티어링의 에세이. [13]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 관리 능력이 없다고 사법적으로 선언될 수 있는 증거의 종류에는 경멸스럽고 두려운 면이 모두 있다. 그리고 그의 사망 후, 그의 재산 처분이 무효화될 수 있다. 만약 소송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말이다. 이 비용은 재산 자체에 부과된다. 그의 일상 생활의 모든 사소한 세부 사항이 조사되고, 가장 낮은 사람들의 인식 및 묘사 능력의 매체를 통해 볼 때 절대적인 평범함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 발견되면, 배심원에게 정신 이상 증거로 제시되며 종종 성공한다. 배심원들은 증인들보다, 심지어 그렇더라도, 약간 덜 저속하고 무지하다. 반면에 판사들은 인간 본성과 삶에 대한 그 비범한 지식 부족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는데, 종종 그들을 오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재판들은 인간 자유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감정과 의견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개성에 어떤 가치도 두지 않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각 개인이 자신의 판단과 성향에 좋다고 보이는 대로 무관한 일에서 행동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판사와 배심원은 제정신인 사람이 그러한 자유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예전에는 무신론자를 화형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을 때, 자비로운 사람들은 대신 정신 병원에 보내자고 제안하곤 했다. 요즘 우리가 이것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행위자들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때문에 박해하는 대신,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렇게 인간적이고 기독교적인 방식을 채택했으며, 그들이 그로 인해 마땅한 대가를 받았다는 조용한 만족감을 함께 누렸기 때문이다.

CHAPTER IV.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

그렇다면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주권의 정당한 한계는 무엇인가? 사회의 권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인간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개인성에 할당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회에 할당되어야 하는가?

각각은 그것이 더 특별히 관련된 것을 가질 때 적절한 몫을 받을 것이다. 개인성에는 주로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삶의 부분이 속해야 하고, 사회에는 주로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속해야 한다.

비록 사회가 계약에 기반한 것은 아니고, 그로부터 사회적 의무를 추론하기 위해 계약을 발명하는 것이 어떤 좋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의 보호를 받는 모든 사람은 그 혜택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각자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해 특정 행동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든다. 이 행동은 첫째, 서로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 또는 명시적인 법적 조항이나 암묵적인 이해에 의해 권리로 간주되어야 할 특정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둘째, 각자가 사회나 그 구성원을 상해와 괴롭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발생하는 노동과 희생의 몫(어떤 공정한 원칙에 따라 정해질)을 분담하는 것이다. 사회는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강제할 정당성을 가진다. 이것이 사회가 할 수 있는 전부인 아니다. 개인의 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들의 복지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들의 구성된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가해자는 법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여론에 의해 정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의 행동 중 일부가 타인의 이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즉시, 사회는 그것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며, 그것에 간섭함으로써 일반 복지가 증진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논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자신 외의 다른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는 경우(관련된 모든 사람이 성인이며 일반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질문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그러한 모든 경우에 행동을 하고 결과에 따르는 데에는 완전한 자유, 즉 법적 및 사회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 교리를 크게 오해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서로의 삶의 행동에 관여할 일이 없으며, 자신의 이익이 관련되지 않는 한 서로의 잘됨이나 복지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무관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감소 대신, 타인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심 없는 노력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심 없는 자비는 문자적이거나 비유적인 채찍이나 매질 외에 사람들을 그들의 선으로 설득할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자기 본연의 덕목을 과소평가할 마지막 사람이다. 그것들은 사회적 덕목에 비하면 중요성에서 단지 두 번째일 뿐이며, 심지어 두 번째일지라도 그렇다. 둘 다 배양하는 것은 교육의 똑같은 임무이다. 그러나 교육조차 강제뿐만 아니라 확신과 설득에 의해 작용하며, 교육기간이 지난 후에는 전자에 의해서만 자기 본연의 덕목이 함양되어야 한다. 인간은 더 나은 것과 더 나쁜 것을 구별하는 도움과 전자를 선택하고 후자를 피하도록 격려하는 의무를 서로에게 지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자극하여 더 높은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고, 감정과 목표를 어리석은 것 대신 현명한 것으로, 타락시키는 것 대신 고양시키는 대상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성년의 다른 인간에게,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삶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복지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다. 강한 개인적인 애착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그것에 가질 수 있는 관심은 그 자신이 가지는 관심에 비하면 사소하다. 사회가 그에게 개인적으로 가지는 관심(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행동을 제외하고)은 부분적이며, 전적으로 간접적이다. 반면에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관해서는 가장 평범한 남성이나 여성은 다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지식의 수단을 훨씬 능가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만 관련된 일에서 그의 판단과 목적을 지배하기 위한 사회의 간섭은 일반적인 추정에 근거해야 한다. 이는 완전히 잘못될 수 있으며, 심지어 옳더라도, 그러한 경우의 상황에 대해 외부에서만 보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개별 사례에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간사의 이러한 부서에서는 개인성이 적절한 행동 영역을 가진다. 인간이 서로에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반적인 규칙이 대체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그의 개인적인

자발성이 자유로운 행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고려 사항, 그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권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그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심지어 강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그 자신에게 있다. 조언과 경고에 반하여 그가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오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에 그에게 좋은 것으로 그를 강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의 해악보다 훨씬 크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대하는 감정이 그의 자기 본연의 자질이나 결함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만약 그가 자신의 선에 기여하는 어떤 자질에서 뛰어나다면, 그는 그만큼 감탄의 적절한 대상이다. 그는 인간 본성의 이상적 완전성에 그만큼 더 가깝다. 만약 그가 그러한 자질에서 극도로 부족하다면, 감탄과 반대되는 감정이 뒤따를 것이다. 어떤 정도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비록 그 표현이 반대할 만하지는 않지만) 저속함 또는 취향의 타락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가 있다. 이는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필연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혐오감의 대상, 또는 극단적인 경우 경멸의 대상이 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감정을 갖지 않고서는 반대되는 자질을 충분히 강하게 가질 수 없다. 누구에게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판단하고, 그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또는 열등한 존재로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과 느낌은 그가 피하고 싶은 사실이므로, 그가 스스로 노출시키는 다른 불쾌한 결과처럼 미리 그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좋은 일이 현재의 일반적인 예의 개념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제공된다면, 그리고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무례하거나 건방지게 여겨지지 않고 정직하게 지적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의 불리한 의견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 그의 개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성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의 사회를 찾을 의무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권리가 있다(피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게 대해 경고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 외에는, 선택적인 좋은 일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신에게만 관련된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단지 그 잘못 자체의 자연적인, 그리고 말하자면 자발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며, 처벌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에게 가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무모함, 고집, 자만심을 보이는 사람 - 적절한 수단 내에서 살 수 없는 사람 - 해로운 방종을 자제할 수 없는 사람 - 감정과 지성의 즐거움을 희생하며 동물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낮아지고, 그들의 호의적인 감정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에서 특별한 우수성으로 그들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리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들의 좋은 일에 대한 자격을 확립하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해 불평할 권리는 없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타인의 불리한 판단으로부터 엄격하게 분리할 수 없는 불편함만이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동 및 성격 부분에 대해,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받아야 할 유일한 것이다.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요구한다. 그들의 권리 침해; 자신의 권리로 정당화되지 않는 어떤 손실이나 손해의 가해; 그들과의 거래에서의 거짓 또는 이중성; 그들에 대한 이점의 부당하거나 관대하지 못한 사용; 심지어 그들을 상해로부터 방어하는 이기적인 자체-이것들은 도덕적 비난의 적절한 대상이며, 심각한 경우에는 도덕적 보복 및 처벌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성향도 적절하게 부도덕하며, 혐오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난의 적절한 대상이다. 성격의 잔인함; 악의와 악한 성품; 모든 열정 중에서 가장 반사회적이고 혐오스러운 질투; 위장과 불성실; 충분치 않은 원인에 대한 화병, 그리고 도발에 비례하지 않는 분노; 타인을 지배하려는 사랑; 한 사람의 몫 이상의 이점을 독점하려는 욕망(그리스인의 *πλεονεξία*[플레오넥시아]); 타인의 비하에서 만족을 얻는 자만심; 자신과 자신의 관심사를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불확실한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는 이기주의;-이것들은 도덕적 악덕이며, 나쁘고 혐오스러운 도덕적 성격을 구성한다. 이전에 언급된 자기 본연의 잘못과는 다르며, 이는 적절하게 부도덕한 것이 아니며, 어떤 수준에 이르든 악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어떤 양의 어리석음, 또는 개인적 존엄과 자존감의 부족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타인에 대한 의무 위반

을 수반할 때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타인을 위해 개인은 자신을 돌볼 의무가 있다. 스스로에 대한 의무라고 불리는 것은, 상황이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의무를 만들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의무적이지 않다. 스스로에 대한 의무라는 용어는 신중함 이상의 것을 의미할 때, 자존감 또는 자기 발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누구도 동료 인간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인류의 선을 위해 그가 그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이 신중함 또는 개인적 존엄성 부족으로 인해 마땅히 초래할 수 있는 고려 상실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 그에게 마땅히 돌아갈 비난 사이의 구별은 단순히 명목상의 구별이 아니다. 우리가 그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일에서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큰 차이가 있다. 만약 그가 우리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혐오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사물에게서도 멀리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를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이미 그의 오류의 모든 처벌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그가 잘못된 관리로 자신의 삶을 망친다면,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그의 삶을 더 망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처벌하고 싶어하기보다는, 그의 행동이 초래하는 악을 어떻게 피하거나 고칠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그의 처벌을 완화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동정의 대상, 어쩌면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분노나 원망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그를 사회의 적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는 최악의 행동은, 우리가 자비롭게 그에게 관심이나 걱정을 보여주며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를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가 동료 인간의 보호에 필요한 규칙을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위반했다면 상황은 훨씬 다르다. 그의 행동의 악한 결과는 그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떨어진다. 그리고 사회는 모든 구성원의 보호자로서 그에게 보복해야 한다. 처벌이라는 명시적인 목적으로 그에게 고통을 가해야 하며, 그것이 충분히 가혹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경우에 그는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범죄자이며, 우리는 그에게 심판할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우리 자신의 형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자신의 일의 규제에 있어서 그에게 허용하는 것과 같은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서 우연히 따라오는 고통 외에는 그에게 어떤 고통도 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여기서 지적된, 한 사람의 삶 중 자신에게만 관련된 부분과 타인에게 관련된 부분 사이의 구별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질문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어떤 행동 부분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무관심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도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심각하거나 영구적으로 해를 끼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적어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종종 그들을 훨씬 넘어 해악이 미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재산을 손상시킨다면, 그는 직간접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보통 다소간 공동체의 일반 자원을 감소시킨다. 만약 그가 자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저하시킨다면, 그는 자신에게 행복의 어떤 부분이라도 의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료 인간에게 빛진 봉사를 할 자격을 상실한다. 어쩌면 그들의 애정이나 자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매우 흔하다면, 저질러진 어떤 범죄도 선의 총량에서 더 많이 깎아내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악덕이나 어리석음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의 본보기로 인해 해롭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고 알게 되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거나 오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통제하도록 강요받아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만약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악하거나 사려 깊지 못한 개인에게 국한될 수 하더라도, 사회는 명백히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스스로 지도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가?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가 어린이와 미성년자에게 당연히 주어질 수 있다면, 사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성년자에게도 그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만약 도박, 음주, 부절제, 게으름, 불결함이 행복에 해롭고 개선에 큰 방해가 되는 만큼, 법으로 금지된 많은 또는 대부분의 행동만큼 그렇다면, 왜 (질문될 수 있다) 법이 실행 가능성과 사회적 편의성과 일치하는 한, 이러한 것들도 억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리고 법의 피할 수 없는 불완전성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최소한 여론은 이러한 악덕에 대해 강력한 경찰을 조직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

에게 사회적 처벌을 엄격히 가해야 하지 않는가? 여기서는 (말하자면) 개인성을 제한하거나, 새롭고 독창적인 삶의 실험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없다. 방지하려는 유일한 것은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도되고 비난받은 것들이다. 경험이 어떤 사람의 개성에게도 유용하거나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들이다. 도덕적 또는 신중한 진리가 확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경험의 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세대가 그들의 선조에게 치명적이었던 동일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뿐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해악이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동정과 이익 모두를 통해, 그리고 경미한 정도로는 사회 전체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종류의 행동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할당 가능한 의무를 위반하게 될 때, 그 경우는 자기 본연의 범주에서 벗어나 용어의 적절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도한 음주나 사치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거나, 가족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같은 원인으로 인해 그들을 부양하거나 교육할 능력이 없어진다면, 그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고 정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치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나 채권자에 대한 의무 위반 때문이다. 만약 그들에게 헌납되었어야 할 자원이 가장 신중한 투자처로 전용되었다면, 도덕적 책임은 같았을 것이다. 조지 바르셀은 애인을 위해 돈을 얻으려고 삼촌을 살해했지만, 만약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그랬다면 마찬가지로 교수형을 당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나쁜 습관으로 인해 가족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남자의 혼한 경우, 그는 불친절함이나 배운망덕함에 대해 비난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가 함께 삶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거나 개인적인 유대 때문에 그들의 편안함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럽다면, 그 자체로는 악덕이 아닌 습관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감정에 일반적으로 마땅히 고려해야 할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더 긴급한 의무에 의해 강요되거나 허용 가능한 자기 선호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그 실패에 대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그 원인이나, 단지 자신에게 개인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순전히 자기 본연의 행동으로 인해 대중에 대해 자신에게 부과된 어떤 명확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그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어떤 사람도 단순히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 안 된다. 그러나 군인이나 경찰관은 근무 중에 취한 것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 요컨대, 개인 또는 대중에 대해 명확한 손해 또는 명확한 손해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 경우는 자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도덕 또는 법의 영역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단순히 우연한, 또는 말하자면 구성적인 손해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공공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고, 자신을 제외한 어떤 특정 개인에게도 눈에 띄는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사회에 초래하는 불편함은, 인간 자유의 더 큰 선을 위해 사회가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성인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면, 사회가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혜택을 사회에 제공할 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한다는 구실 아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처벌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사회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처벌하는 것 외에는, 사회의 약한 구성원을 합리적인 행동의 보통 기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 점을 논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사회는 그들의 존재의 초기 전체 기간 동안 그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그것은 그들이 삶에서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할 유년기와 미성년기 전체 기간을 가졌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훈련과 전체 환경의 주인이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을 완벽하게 현명하고 선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선함과 지혜가 너무나 한심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의 최선의 노력도 개별 사례에서는 항상 가장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떠오르는 세대를 전체적으로 자신만큼 좋게, 그리고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만약 사회가 상당수의 구성원이 먼 동기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에 의해 행동할 능력이 없는 단순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내버려둔다면, 결과에 대해 사회는 스스로를 비난해야 한다. 교육의 모든 권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진 의견의 권위가 항상 행사하는 우월함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그들을 아는 사람들의 혐오감이나 경멸을 초래하는 자연적인 처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 외에, 정의와 정책의 모든 원칙에 따라 결과에 직면해야 할 사람들에게 결정권이 있어야 하는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명령을 내리고 복종을 강제할 권력이 필요하다고 사회가 가장하지 않게 하자. 또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더 나은 수단을 불신하고 좌절시키는 경향이 더 나쁜 수단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신중함이나 절제로 강요하려는 대상 중에 활기차고 독립적인 성격의

재료가 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명예에 반항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에 자신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결코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찬탈된 권위에 맞서고, 그것이 명령하는 것의 정반대를 과시하며 행하는 것이 용기와 용맹의 표시로 쉽게 여겨진다. 마치 찰스 2세 시대에 청교도들의 광신적인 도덕적 불관용을 계승한 저속함의 유행과 같이 말이다. 악덕하거나 자기를 탐닉하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나쁜 본모기를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해지는 것에 관해서는, 나쁜 본모기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악행자가 처벌받지 않고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본모기의 경우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행위자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본모기가 전반적으로 해로운 것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 행동이 정당하게 비난받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것과 함께 따르는 고통스럽거나 굴욕적인 결과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전히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대중의 간섭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은, 그것이 간섭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그리고 잘못된 장소에서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적 도덕성, 즉 타인에 대한 의무 문제에 대해, 대중의 의견, 즉 지배적인 다수의 의견은 비록 종종 틀리더라도, 여전히 더 자주 옳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문에 대해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 방식이 허용된다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한 다수의 의견이 소수에게 법으로 강요될 때, 자기 본연의 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옳을 만큼 틀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공공 의견은 최선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좋거나 나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의미한다. 반면에 종종 그것조차 의미하지 않는다. 대중은 완벽한 무관심으로, 자신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이나 편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선호만을 고려한다. 자신이 혐오하는 어떤 행동이라도 자신에게 상해라고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마치 종교적 광신자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감정을 무시한다고 비난받았을 때, 그들이 자신의 혐오스러운 예배나 신조를 고집함으로써 그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자신의 의견에 대한 감정과,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불쾌해하는 다른 사람의 감정 사이에는 등가가 없다. 도둑이 지갑을 가져가려는 욕망과 정당한 소유자가 그것을 지키려는 욕망 사이에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취향은 그의 의견이나 지갑만큼이나 그 자신의 특별한 관심사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불확실한 문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방해받지 않고, 보편적인 경험이 비난한 행동 방식을 삼가도록 요구하는 이상적인 대중을 상상하기는 쉽다. 그러나 자신의 검열에 그러한 한계를 설정한 대중을 어디에서 보았는가? 또는 대중이 보편적인 경험에 대해 언제 신경 쓰는가? 개인적인 행동에 간섭할 때 그것은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느끼는 것의 엄청난 정도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희미하게 위장되어 모든 도덕주의자와 사변적 작가의 10분의 9에 의해 종교와 철학의 지시라고 인류에게 제시된다. 이들은 사물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행동 규칙을 우리 자신의 마음과 가슴 속에서 찾으라고 말한다. 가난한 대중은 이러한 지침을 적용하고, 만약 그들이 그것에 대해 상당히 만장일치라면, 자신들의 선악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전 세계에 의무화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지적된 해악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나라의 대중이 부적절하게 자신의 선호에 도덕법의 성격을 부여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나는 현재의 도덕 감정의 일탈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리고 예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주제이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원칙이 심각하고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내가 상상 속의 악에 맞서 장벽을 세우려 노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덕적 경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의 범위를, 개인의 가장 확실하게 합법적인 자유를 침해할 때까지 확대하는 것이 모든 인간 성향 중 가장 보편적인 것 중 하나라는 것을 풍부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첫 번째 사례로, 종교적 의견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 특히 종교적 의례, 특히 종교적 금식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이유 외에는 더 나은 근거 없이 사람들이 품는 반감을 고려해 보

자. 다소 사소한 예를 들자면, 기독교의 신조나 관행 중 이슬람교도의 기독교도에 대한 증오심을 더 격렬하게 만드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도와 유럽인들이 더 진심으로 혐오하는 행위는 거의 없으며, 이슬람교도가 이러한 특정한 방식으로 굶주림을 해소하는 것을 혐오하는 것만큼 심하다. 우선, 그것은 그들의 종교에 대한 위반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그들의 혐오감의 정도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포도주 또한 그들의 종교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그것을 마시는 것은 모든 이슬람교도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혐오스러운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부정한 짐승"의 고기에 대한 그들의 혐오감은, 일단 그것이 감정에 완전히 스며들면 개인적인 습관이 전혀 청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게서조차 항상 유발하는 본능적인 반감과 유사한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힌두교도에게서 매우 강렬한 종교적 불순 감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제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경우, 그 다수가 국내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새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14] 이것이 공공 여론의 도덕적 권위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 이러한 대중에게는 그 관행이 정말로 혐오스럽다. 그들은 또한 그것이 신에 의해 금지되고 혐오받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 금지는 종교적 박해로 비난받을 수도 없다. 그것은 기원상 종교적일 수 있지만, 종교 때문에 박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의 종교도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의무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비난의 유일한 타당한 근거는, 개인의 개인적인 취향과 자기 본연의 관심사에 대해 공중이 간섭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대부분의 스페인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방식 외의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지극히 부당하고 최고 존재에게 극도로 불쾌한 행위로 간주한다. 그리고 스페인 땅에서는 다른 공개 예배가 합법적이지 않다. 남유럽 전역의 사람들은 결혼한 성직자를 비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함, 품위 없는, 저속한, 혐오스러운 것으로 본다. 개신교도들은 이러한 완벽하게 진실된 감정과 비가톨릭교도에 대해 그것들을 강요하려는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나 인류가 타인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일에 서로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어떤 원칙으로 이러한 경우를 일관되게 배제할 수 있겠는가? 또는 신과 인간 앞에서 스캔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억압하려는 사람들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개인적인 부도덕으로 간주되는 어떤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불경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관행을 억압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박해자들의 논리를 채택하고, 우리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고,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의향이 없는 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심각한 부당함으로 여길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앞선 사례들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우발적인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당하게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나라의 여론은 육류 섭취 금지를 강요하거나, 사람들의 신념이나 성향에 따라 예배하거나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것에 간섭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다음 사례는 우리가 모든 위험을 벗어나지 못한 자유 간섭에서 가져올 것이다. 청교도가 뉴잉글랜드와 영국 연방 시대에 충분히 강력했던 곳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며 모든 공공 및 거의 모든 사적인 오락을 억제하려 노력했다. 특히 음악, 춤, 공공 게임, 또는 오락 목적의 다른 모임, 그리고 연극을 억제하려 했다. 이 나라에는 이러한 오락이 도덕 및 종교적 관념에 의해 비난받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현재 왕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우세한 권력인 중산층에 속하므로, 이러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언젠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남은 공동체의 일부는 엄격한 칼뱅주의자 및 감리교도의 종교적, 도덕적 감정에 의해 허용될 오락을 규제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상당한 단호함으로 이러한 침입적으로 경건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일이나 신경 쓰라고 바라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주장을 가진 모든 정부와 모든 대중에게 해야 할 말이다. 그러나 주장의 원칙이 인정된다면, 누구도 다수 또는 해당 국가의 다른 우세한 권력의 의미에서 그것이 실행되는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없으며, 종교적 직업이 그 잃어버린 기반을 되찾는 데 성공한다면, 쇠퇴한다고 여겨지는 종교들이 종종 그래왔듯이, 모든 사람들은 뉴잉글랜드 초기 정착민들이 이해했던 기독교 공동체의 이상에 순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보자. 어쩌면 앞서 언급한 것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현대 세계에는 대중적 정치 제도와 함께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회의 민주적 구조를 향한 강한 경향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국가

—사회와 정부 모두 가장 민주적인 국가—인 미국에서는, 자신들이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화려하거나 값비싼 생활 방식의 어떤 모습도 불쾌하게 여기는 다수의 감정이 상당히 효과적인 사치 제한 법으로 작용하며, 연방의 많은 지역에서는 실제로 매우 큰 소득을 가진 사람이 대중의 비난을 초래하지 않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소비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단언된다. 이러한 진술들이 현존하는 사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분명히 많이 과장되었을 지라도, 그것들이 묘사하는 상황은 민주적 감정이 개인들이 자신의 수입을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중이 거부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개념과 결합된 결과로 상상할 수 있고 가능하며, 또한 가능성 있는 결과이다. 우리는 단지 사회주의 의견의 상당한 확산을 더 가정하기만 하면, 어떤 매우 소량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육체 노동으로 벌어들이지 않은 어떤 소득을 소유하는 것은 다수의 눈에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과 유사한 의견들은 이미 장인 계층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주로 그 계층, 즉 그 구성원의 의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한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노동자 대다수를 구성하는 형편없는 노동자들은 형편없는 노동자들이 훌륭한 노동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며, 아무도 뛰어난 기술이나 근면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 없이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단호히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숙련된 노동자가 더 유용한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그리고 고용주가 그것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도덕 경찰, 때로는 물리적인 경찰까지 동원한다. 만약 대중이 사적인 일에 대해 어떤 관할권을 가진다면, 나는 이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어떤 개인의 특정 대중이 그 개인의 행동에 대해 일반 대중이 일반인에 대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권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상적인 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시대에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훨씬 더 큰 침해가 위협되고 있으며, 대중에게 법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고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수의 것도 금지할 무제한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제안되고 있다.

금주령을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한 영국 식민지와 미국 거의 절반의 주민들은 발효 음료의 어떤 사용도 의학적 목적 외에는 법으로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판매 금지는 사실상, 의도된 대로, 사용 금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법의 실행 불가능성으로 인해 그것을 채택했던 여러 주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주를 포함하여, 폐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비슷한 법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많은 자칭 박애주의자들에 의해 상당한 열의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형성된 협회, 또는 스스로를 "동맹"이라고 부르는 단체는 그 비서와 정치인의 의견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는 극소수의 영국 공인 중 한 사람과의 서신 교환을 통해 어느 정도 유명세를 얻었다. 이 서신에서 스탠리 경의 역할은 정치계에서 활약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자질이 드물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의해 그에게 이미 걸고 있는 희망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광신주의와 박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될 수 있는 어떤 원칙의 인정"을 "깊이 후회할 것"이라는 동맹의 대변인은 그러한 원칙과 협회의 원칙을 나누는 "넓고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을 지적하려 한다. "사상, 의견, 양심에 관한 모든 문제는 내게는 입법의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행위, 습관, 관례에 관한 모든 것은 국가 자체에 부여된 재량권에만 종속되며, 개인에게는 속하지 않는다." 이들 중 어느 것과도 다른 세 번째 부류, 즉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행위와 습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비록 발효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발효 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거래이며, 거래는 사회적 행위이다. 그러나 불평하는 침해는 판매자의 자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와 소비자의 자유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에게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얻는 것을 의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러나 비서는 "시민으로서, 나의 사회적 권리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행위에 의해 침해될 때마다 입법할 권리를 주장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회적 권리"의 정의에 대해: "만약 어떤 것이 나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다면, 분명히 독주 거래가 그렇다. 그것은 끊임없이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하고 조장함으로써 나의 일차적인 안전 권리를 파괴한다. 그것은 내가 세금을 내어 지원해야 하는 비참함을 초래함으로써 나의 평등 권리를 침해한다. 그것은 나의 길을 위협으로 둘러싸고, 상호 지원과 교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회를 약화시키고 타락시킴으로써 나의 자유로운 도덕적 및 지적 발전 권리를 방해한다." 이러한 "사회적 권리" 이론은 이전에는 명확한 언어로 표현된 적이 없을 것이다. 이는 모든 개인이 마땅히 행동해야 할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모든 개인의 절대적인 사회적 권리라는 것, 즉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

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며, 나에게 입법부에 그 불편함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원칙은 어떤 단일 자유 간섭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것이 정당화하지 않을 자유 위반은 없다. 그것은 비밀리에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자유 외에는 어떤 자유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해롭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동맹이 나에게 부여한 모든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교리는 모든 인류에게 서로의 도덕적, 지적, 심지어 신체적 완벽에 대한 기득권을 부여하며, 이는 각 요구자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정의해야 한다.

개인의 정당한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의 또 다른 중요한 예는 단순히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성공적으로 실행된 안식일 입법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일상적인 직업으로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삶의 필요가 허용하는 한, 비록 유대인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종교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매우 유익한 관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은 근면한 계층 사이에서 그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 없이는 준수될 수 없으므로, 일부 사람들이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필요성을 부과하는 한, 법이 특정 날에 주요 산업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각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관습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허용되고 옳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각 개인의 관행 준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정당성은, 개인이 자신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선택한 직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오락에 대한 법적 제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도라도 유효하지 않다. 일부 사람들의 오락이 다른 사람들의 일일 노동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 말하자면 유익한 휴식은 소수의 노동 가치가 있다. 단, 그 직업이 자유롭게 선택되었고 자유롭게 포기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말이다. 노동자들은 일요일에 모두 일하면 6일의 임금으로 7일의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용이 중단되는 한,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 여전히 일해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비례적인 임금 증가를 얻는다. 그리고 그들은 임금보다 여가를 선호한다면 그러한 직업을 따를 의무가 없다. 만약 더 나은 해결책이 모색된다면,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주중에 다른 날에 휴일을 정하는 관습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일요일 오락에 대한 제한이 옹호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들이 종교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너무나 널리 퍼져서 항의되어야 할 입법 동기이다. "신들의 불의는 신들이 처리한다." 신이 전능자에 대한 어떤 가상의 위반을 복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그것이 동료 인간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종교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저질러진 모든 종교 박해의 기초였으며, 만약 인정된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정당화할 것이다. 일요일 기차 여행을 막으려는 반복된 시도, 박물관 개방에 대한 저항 등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은 옛 박해자들의 잔인함은 없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정신 상태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그것은 자신의 종교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에서 허용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그것은 신이 불신자의 행위를 혐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죄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일반적으로 인간 자유에 대해 거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러한 사례들에 덧붙여, 물론 교리는 주목할 만한 현상에 주목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이 나라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노골적인 박해의 언어를 더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사기의 산물이며, 창시자의 비범한 자질에 의한 위세조차 뒷받침되지 않지만, 수십만 명이 믿고 있으며, 신문, 철도, 전신 시대에 사회의 기초가 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계시와 그에 기반한 종교라는 예상치 못하고 교훈적인 사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와 관련된 것은, 이 종교도 다른 더 나은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순교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언자이자 창시자는 그의 가르침 때문에 폭도들에 의해 사형당했다. 그 추종자들 중 다른 사람들은 같은 무법적인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처음 성장했던 나라에서 집단적으로 강제로 추방되었다. 지금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 외딴 곳으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원정을 보내고 강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단지 편리하지 않을 뿐)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종교적 관용의 일반적인 제약을 깨뜨리는 이러한 반감의 주요 유발 요인인 물론교 교리의 조항은 일부다처제를 승인하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중국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영어를 사용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천할 때는 꺼지지 않는 적대감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러한 물론 제도에 대해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더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 원칙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용인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의 절반의 사슬을 단순히 다시 묶는 것이고, 다른 절반을 그

들에 대한 의무의 상호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그것에 관련된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만큼, 그리고 그것에 의해 고통받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만큼, 다른 어떤 형태의 결혼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아무리 놀랍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여성들에게 결혼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과 관습에서 설명된다. 이는 많은 여성이 전혀 아내가 되지 않는 것보다 여러 아내 중 하나가 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결합을 인정하거나, 물론교 의견 때문에 주민의 일부를 자신의 법률로부터 해방시키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적대적인 감정에 대해 정당하게 요구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양보했을 때; 그들의 교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라들을 떠나, 그들이 처음으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지구의 먼 구석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다른 나라에 침략을 가하지 않고, 그들의 방식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떠날 완전한 자유를 허용한다면, 폭정의 원칙 외에 어떤 원칙으로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법 아래 사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최근의 한 작가는 여러 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일부다처제 공동체에 대해 십자군이 아니라 '문명군'을 제안하며 (그 자신의 말을 사용하자면), 그에게는 문명의 후퇴 단계로 보이는 것을 종식시키려 한다. 나에게도 그렇게 보이지만, 어떤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게 문명화되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나쁜 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고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스캔달이라는 이유로 종식시키도록 요구하기 위해 그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개입해야 한다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이 원한다면 선교사를 보내 그것에 대해 설교하도록 하고, 어떤 공정한 수단(교사들을 침묵시키는 것은 그 수단 중 하나가 아님)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 사이에서 유사한 교리의 진행에 반대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야만주의가 스스로 세상을 지배했을 때 문명이 그것을 이겼다면, 야만주의가 잘 제압된 후에 다시 살아나 문명을 정복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그렇게 패배한 적에게 굴복할 수 있는 문명은, 우선 너무 타락하여 지정된 사제와 교사도, 다른 누구도 그것을 위해 나설 능력이나 수고를 하려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문명이 떠날 통지를 빨리 받을수록 더 좋다. 그것은 에너지틱한 야만인에 의해 파괴되고 재생성될 때까지(서양 제국처럼) 악화될 뿐이다.

각주:

[14] 봄베이 파르시족의 사례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이다. 칼리프 앞에서 고국을 탈출한 페르시아 불승배자의 후손인 이 근면하고 진취적인 부족이 서인도에 도착했을 때, 힌두 군주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는 조건으로 그들을 관용했다. 나중에 그 지역이 이슬람 정복자의 지배하에 들자, 파르시족은 돼지고기를 삼가는 조건으로 그들로부터 관용의 지속을 얻었다. 처음에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었던 것이 두 번째 천성이 되었고, 파르시족은 오늘날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모두를 삼간다. 비록 종교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중 금식은 그들의 부족의 관습으로 자리 잡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동양에서 관습은 종교이다.

CHAPTER V.

적용(Applications)

이 페이지에서 주장된 원칙들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의 기초로 더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정부와 도덕의 다양한 부서에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익을 가져올 전망을 가지기 어렵다. 내가 세부 사항에 대해 제안하려는 몇 가지 관찰은 원칙들을 그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들을 예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는 적용이라기보다는 적용의 표본을 제공한다. 이는 이 에세이의 전체 교리를 구성하는 두 가지 격언의 의미와 한계를 더 명확히 하고, 어느 격언이 해당 사례에 적용되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판단을 돕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격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 외의 다른 어떤 사람의 이익과 관련된 한,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언, 가르침, 설득, 그리고 회피만이 사회가 그의 행동에 대한 혐오나 비난을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둘째, 타인의 이익에 해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지며, 사회가 자신의 보호를 위해 어느 한쪽 또는 다른 한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사회의 간섭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타인의 이익에 대한 손해 또는 손해 가능성뿐이므로, 따라서 그것이 항상 그러한 간섭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 개인이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할 때 필연적으로 그리고 따라서 합법적으로 타인에게 고통이나 손실을 초래하거나, 그들이 합리적으로 얻을 희망이 있었던 선을 가로챈다. 개인들 간의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종종 나쁜 사회 제도로부터 발생하지만, 그러한 제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불가피하며, 어떤 제도 하에서도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과밀한 직업이나 경쟁 시험에서 성공하는 사람; 둘 다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선호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손실, 그들의 낭비된 노력, 그리고 그들의 실망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결과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된다. 즉, 사회는 실망한 경쟁자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고통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법적 또는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공 수단이 일반 이익에 반하는, 즉 사기나 배신,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된 경우에만 간섭할 의무를 느낀다.

또한, 거래는 사회적 행위이다. 어떤 종류의 상품이든 대중에게 판매하려는 사람은 타인의 이익과 일반 사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한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원칙적으로 사회의 관찰권에 속한다. 따라서 한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경우에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제조 공정을 규제하는 것이 의무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랜 투쟁 끝에, 상품의 저렴함과 좋은 품질 모두 생산자와 판매자를 완전히 자유롭게 내버려 두되, 구매자가 다른 곳에서 스스로를 공급할 수 있는 동등한 자유의 유일한 견제 아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 이제 인식되었다. 이것이 소위 자유 무역 교리이다. 이는 이 에세이에서 주장된 개인 자유의 원칙과는 다르지만 동등하게 확고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무역 또는 무역 목적의 생산에 대한 제약은 실제로 제약이다. 그리고 모든 제약, 제약으로서, 악이다. 그러나 문제의 제약은 사회가 제약할 수 있는 행동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며, 그것들이 원하는 결과를 실제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개인 자유의 원칙이 자유 무역 교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그 교리의 한계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혼합에 의한 사기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공공 통제가 허용되는가? 위험한 직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예방 조치나 조치가 고용주에게 어느 정도 강요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사람들을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통제하는 것보다 항상 더 낫다는 점에서만 자유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반면에 무역 간섭과 관련된 질문들은 본질적으로 자유의 질문이다. 이미 언급된 메인 법과 같은 것; 아편의 중국 수입 금지; 독극물 판매 제한; 요컨대, 간섭의 목적이 특정 상품의 입수를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경우이다. 이러한 간섭은 생산자나 판매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구매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반대할 만하다.

이러한 예 중 하나인 독극물 판매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소위 경찰 기능의 적절한 한계, 즉 범죄 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자유가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 침해될 수 있는가? 정부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능 중 하나는 범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고, 그 후

에 그것을 탐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방 기능은 처벌 기능보다 자유에 해를 끼치며 남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합법적인 행동 자유 중 어떤 부분도 어떤 형태의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공정하게도, 표현될 수 없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이나 심지어 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범죄가 저질러질 때까지 비활동적으로 지켜볼 의무가 없으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만약 독극물이 살인 범죄 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구매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것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무고한 목적뿐만 아니라 유용한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으며, 한 경우에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경우에도 작동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 기관이 적절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공무원이나 다른 누군가가 안전하지 않다고 확인된 다리를 건너려 시도하는 사람을 보았고, 위험을 경고할 시간이 없다면, 그들은 그의 자유를 실제로 침해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돌려보낼 수 있다.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데 있으며, 그는 강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성이 아니라 단지 해악의 위험만 있을 때는, 그 사람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가 위험을 감수하도록 유도할 동기의 충분성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그가 어린이이거나, 망상 상태이거나, 사색 능력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어떤 흥분 또는 몰입 상태에 있지 않은 한), 나는 그가 위험에 대해 경고만 받아야 하며, 스스로를 그것에 노출시키는 것을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독극물 판매와 같은 문제에 적용되는 유사한 고려 사항은 어떤 규제 방식이 원칙에 반하는지 또는 반하지 않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물에 위험한 성격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예방 조치는 자유 침해 없이 강제될 수 있다. 구매자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 독성 물질이라는 것을 모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의사 처방서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용도로 물건을 얻는 것을 때로는 불가능하게 만들고 항상 비싸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범죄를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다른 목적을 위해 독성 물질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 고려할 만한 침해 없이, 벤담의 적절한 언어로 "사전 지정 증거"라고 불리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익숙하다. 계약이 체결될 때, 법이 그 이행을 강제하는 조건으로서 서명, 증인 입회 등과 같은 특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관례적이고 옳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고, 상황에 법적으로 무효로 만들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효과는 허위 계약이나 상황을 알았다면 그 유효성을 파괴했을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유사한 성격의 예방 조치는 범죄 도구로 적합한 물건의 판매에 강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거래의 정확한 시간,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판매된 정확한 품질과 양을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필요한 목적을 묻고 받은 답변을 기록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의사 처방이 없었을 경우, 나중에 그 물건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어떤 제3자의 입회가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얻는 데 중대한 방해가 되지 않지만, 탐지 없이 그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데는 매우 상당한 방해가 될 것이다.

사회에 내재된, 사전에 예방 조치를 통해 자신에 대한 범죄를 막을 권리는, 순전히 자기 본연의 잘못은 예방이나 처벌의 방식으로 적절히 간섭될 수 없다는 격언에 대한 명백한 제한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 음주는 입법 간섭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음주의 영향 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폭력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법적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나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나중에 취한 상태로 발견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다른 범죄에 대해 그가 받을 처벌이 더 엄중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도록 음주가 자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스스로를 취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이다. 다시 말해, 게으름은 대중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또는 계약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정 없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게으름 또는 다른 피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해,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자녀를 부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수단이 없다면 강제 노동을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정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행위자 자신에게만 해로운 많은 행위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개적으로 행해지면 좋은 예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에 대

한 위반 행위의 범주에 속하므로 정당하게 금지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행위는 예외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주제와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행동에 대한 공개성의 반대는 그 자체로 비난받을 만하지 않거나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하다.

내용은 원칙과 일관되게 답을 찾아야 할 또 다른 질문이 있다. 비난받을 만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해악이 전적으로 행위자에게 돌아가므로 자유에 대한 존중으로 인해 사회가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개인적인 행동의 경우, 행위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자유롭게 권유하거나 선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 자기 본연의 행동의 경우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유혹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행위이며, 따라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통제에 종속된다고 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약간의 사색은 첫인상을 바로잡아준다. 즉, 이 경우가 개인 자유의 정의에 엄밀히 포함되지 않더라도, 개인 자유 원칙이 기반하는 이유들은 그것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만 관련된 일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하에서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면, 그들은 마찬가지로 무엇이 그렇게 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서로 상의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제안을 주고받을 자유를 가져야 한다. 허용되는 모든 것은 하도록 조언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 질문은 선동자가 자신의 조언으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때만 의심스럽다. 즉, 사회와 국가가 악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생계 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증진하는 것을 그의 직업으로 삼을 때이다. 그때 indeed, 새로운 복잡성의 요소가 도입된다. 즉, 공공 복지로 간주되는 것에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계층의 존재이며,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그것의 반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간섭해야 하는가, 아니면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가? 예를 들어, 간음은 용인되어야 하고, 도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포주가 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하는가? 이 경우는 두 가지 원칙의 정확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경우 중 하나이며, 그것이 어느 쪽에 적절하게 속하는지 즉시 분명하지 않다. 양쪽에 논증이 있다. 관용 측에서는 어떤 것을 직업으로 삼고 그것의 실천으로 살거나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았다면 허용 가능했을 것을 범죄로 만들 수 없다는 점, 행위는 일관되게 허용되거나 일관되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가 지금까지 옹호해 온 원칙이 진실이라면 사회는 사회로서 개인에게만 관련된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할 일이 없다는 점, 사회는 단지 설득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한 사람이 설득할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설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이에 반대하여, 공공 또는 국가가 억제 또는 처벌 목적으로 개인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동이 좋거나 나쁘다고 권위 있게 결정할 정당성은 없지만, 그것을 나쁘다고 간주한다면, 그것이 그렇든 아니든 적어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가정할 정당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가정할 때, 사심이 없는 유혹의 영향, 즉 편견 없이 행동할 수 없는 선동자의 영향을 배제하려 노력하는 데 잘못 행동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선동자들은 한쪽에 직접적인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그 쪽은 국가가 잘못이라고 믿는 쪽이고, 그들은 명백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그것을 증진시킨다. surely, 상황을 그렇게 정리하여 사람들이 스스로의 동기에 따라 현명하게든 어리석게든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성향을 자극하는 사람들의 기술로부터 가능한 한 자유롭게 함으로써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선을 회생하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따라서 (말할 수 있듯) 불법 도박에 관한 법률은 전적으로 변명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집이나 서로의 집에서, 또는 자신의 회비로 설립되고 회원과 방문객에게만 개방된 어떤 모임 장소에서 도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 도박장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금지가 결코 효과적이지 않고, 경찰에게 어떤 양의 폭정적인 권력이 주어지더라도, 도박장은 다른 구실 아래서 항상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정도의 비밀과 신비 속에서 운영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찾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 이상으로 사회는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나는 주된 가해자가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을 때 공범을 처벌하는 도덕적 이상 현상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또는 포주를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하고 간음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 도박장 주인을 처벌하고 도박꾼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충분한지 결정할 임무를 내지 않겠다. 유사한 근거에서 사고팔기라는 일반적인 행위에 간섭해서는 더욱 안 된다. 거의 모든 사고팔리는 물건은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그러한 과도를 조장하는 데 금전적 이익이 있다. 그러나 이것에 근거하여 예를 들어 메인 법을 지지하

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독주 판매업자 계층은 그 남용에 관심이 있지만, 그들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업자들의 방탕을 조장하는 이익은 실제적인 악이며, 정당화 없이는 합법적인 자유 침해가 될 제한과 보장을 국가가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더 나아가, 국가가 허용하면서도, 행위자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간접적으로 단념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예를 들어, 음주의 수단을 더 비싸게 만들거나, 판매 장소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그것을 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다른 대부분의 실질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구분을 해야 한다. 자극제를 오로지 그것을 얻기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그것의 완전한 금지와 정도만 다를 뿐인 조치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모든 비용 증가는 수입이 늘어난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지이며,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특정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벌금이다.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및 도덕적 의무를 만족시킨 후의 즐거움 선택과 수입 지출 방식은 그들 자신의 관심사이며, 그들 자신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처음에 수입 목적의 특별 과세 대상으로 자극제를 선택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재정 목적을 위한 과세는 절대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과세의 상당 부분이 간접세여야 한다는 점, 따라서 국가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금지적일 수 있는 처벌을 일부 소비재 사용에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과세 시 소비자가 가장 잘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을 고려해야 하며, 더욱이 매우 적절한 양을 넘어 사용하는 것이 명백히 해롭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따라서 자극제에 대한 과세는 가장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지점까지(국가가 창출하는 모든 수입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할 때) 허용될 뿐만 아니라 승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품의 판매를 다소 배타적인 특권으로 만들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제한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답해야 한다. 모든 공공 장소는 경찰의 제약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종류의 장소는 특히 사회에 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의 판매 권한(적어도 현장에서 소비하는 경우)을 알려지거나 보증된 행동의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국한하고, 공공 감시에 필요한 개방 및 폐쇄 시간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집주인의 목인이나 무능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평화 침해가 발생하거나, 법에 대한 위반을 모의하고 준비하는 장소가 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떠한 추가적인 제한도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맥주 및 주류 판매소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유혹의 기회를 줄인다는 명시적인 목적 때문인데, 이는 단순히 일부 사람들이 그 편리함을 남용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 계층이 분명히 어린이 또는 야만인으로 취급되고 자유의 특권에 대한 미래의 입학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제한적인 교육 하에 놓인 사회 상태에만 적합하다. 이것은 어떤 자유 국가에서도 노동 계층이 표면적으로 통치되는 원칙이 아니다. 그리고 자유에 합당한 가치를 두는 사람은 아무도 그들이 그렇게 통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자유를 위해 교육하고 자유인으로서 통치하려는 모든 노력이 소진되었고, 그들이 어린이로만 통치될 수 있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말이다. 대안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고려해야 할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것의 터무니없음을 보여준다. 이 나라의 제도가 일관성 없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체 정치 체제, 또는 부성애적 정부라고 불리는 체제에 속하는 것들이 우리의 관행으로 들어오게 되며, 동시에 우리 제도의 일반적인 자유는 도덕 교육으로서 어떠한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통제의 양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한다.

이 에세이의 초기 부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개인이 자신만 관련된 일에서의 자유는, 서로 합의하여 자신들만이 관련되고 다른 누구와도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규제하는 임의의 수의 개인들의 상응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 문제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 한 어려움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의지가 변할 수 있으므로, 자신들만 관련된 일에서도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 종종 필요하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의 법률에는 이 일반 규칙에 예외가 있다. 사람들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들에게 해롭다는 것이 약속에서 해방되는 충분한 이유로 간주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 나라와 대부분의 다른 문명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노예로 팔거나 팔도록 허용하는 약속은 무효이며, 법으로도 여론으로도 강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운명을 자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의 권력을 제한하는 근거는 명백하며, 이 극단적인 사례에서 매우 명확하게 보인다. 타인을 위해서가 아닌 한, 어떤 사람의 자발적인 행동에 간섭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자유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의 자발적인 선택은 그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그에게 바람직하거나 적어도 견딜 만하다는 증거이며, 그의 이익은 전반적으로 그 자신의 추구 수단을 허용함으로써 가장 잘 제공된다. 그러나 자신을 노예로 팔음으로써 그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다. 그는 그 한 번의 행위 외에 어떠한 미래의 사용도 포기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경우, 자신을 처분하도록 허용하는 것의 정당화인 바로 그 목적을 좌절시킨다. 그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그는 그 이후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으로부터 제공되었을 유리함이 더 이상 없는 위치에 있다. 자유 원칙은 그가 자유롭지 않을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자신의 자유를 양도하도록 허용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들, 특히 이 특별한 경우에서 그 힘이 매우 두드러지는 이유들은 분명히 훨씬 더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진다. 그러나 삶의 필연성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한계가 어디에서나 설정된다. 삶의 필연성은 실제로 우리가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다른 제한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러나 행위자 자신과만 관련된 모든 것에서 통제되지 않는 행동의 자유를 요구하는 원칙은, 서로에게 구속된 사람들이, 제3자와 관련되지 않은 일에서, 서로를 약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발적인 해방 없이도, 돈이나 돈 가치와 관련된 약속 외에는, 철회할 자유가 전혀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계약이나 약속은 아마 없을 것이다. 빌헬름 폰 훔볼트 남작은 내가 이미 인용한 훌륭한 에세이에서, 개인적인 관계나 서비스가 관련된 약속은 제한된 기간을 넘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이러한 약속인 결혼은 양 당사자의 감정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그 목적이 좌절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명백한 의지만으로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확신을 밝혔다.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복잡해서 괄호 안에서 논의할 수 없으며, 나는 예시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것을 다룬다. 만약 훔볼트 남작의 논문의 간결함과 일반성이 이 경우 전제를 논의하지 않고 결론만 진술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그가 제한한 단순한 근거로는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명시적인 약속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는 것에 의존하도록 격려하여—기대와 계산을 쌓고, 그 가설에 삶의 계획의 어떤 부분을 걸게 했다면—그 사람에 대해 새로운 일련의 도덕적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아마도 무효화될 수 있지만 무시될 수는 없다. 그리고 다시, 두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결과로 이어졌다면, 그것이 제3자를 어떤 특정한 위치에 놓거나, 결혼의 경우처럼 제3자를 존재하게 했다면, 원래 계약 당사자들 간의 관계의 지속 또는 해체에 의해 이행 또는 적어도 이행 방식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가 꺼리는 당사자의 행복에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데까지 확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문제의 필수 요소이다. 그리고 폰 훔볼트가 주장하듯이, 그것들이 약속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당사자들의 법적 자유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그리고 나도 그것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은 도덕적 자유에 큰 차이를 만든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그렇게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이익에 적절한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 나는 이러한 명백한 언급을 자유의 일반 원칙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했으며, 오히려 어린이의 이익이 전부이고 성인의 이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통 논의되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언급했듯이, 인정된 일반 원칙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지지 않거나 할 곳에서도 주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아야 할 곳에서도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현대 유럽 세계에서 자유 감정이 가장 강한 사례 중 하나는, 내 생각에 완전히 잘못 적용된 사례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이 자신의 일이라는 구실 아래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국가는 개인이 자신에게 특별히 관련된 것에서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모든 권력 행사를 면밀히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가족 관계의 경우 거의 완전히 무시된다. 이는 인간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면에서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거의 전제적인 권력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내가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권리를 갖고 같은 방식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확립된 부당함의 옹호자들은 자유 주장을 이용하지 않고, 공공연히 권력의 옹호자로 나선다.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잘못 적용된 자유 개념이 진정한 장애가 되는 것은 어린이의 경우이다. 어떤 사람은 남자의 자녀가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자신의 일 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질 정도로, 법이 그들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통제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것에 대해 여론이 질투심을 느낀다. 자신의 행동 자유에 대한 거의 어떤 간섭보다 더 질투심을 느낀다. 일반적인 인류가 권력보다 자유를 훨씬 덜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국가가 시민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일정 수준까지의 교육을 요구하고 강제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자명한 진리 아닌가? 그러나 누가 이 진리를 인정하고 주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부모(또는 현재의 법과 관습에 따라 아버지)가 인간을 세상에 불러들인 후, 그 존재에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삶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신성한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실제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의무라고 만장일치로 선언되는 동안, 이 나라에서는 그에게 그것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들으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이에게 교육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희생을 하도록 요구되는 대신,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될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여전히 인식되지 않은 것은, 육체에 필요한 식량뿐만 아니라 정신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정한 가능성 없이 아이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불행한 자녀와 사회 모두에 대한 도덕적 범죄이며, 부모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가능한 한 부모의 비용으로 그것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 교육을 강제하는 의무가 일단 인정되면, 국가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은 끝날 것이다. 이는 현재 이 주제를 종파와 당파의 단순한 전장으로 만들고, 교육에 사용되었어야 할 시간과 노력을 교육에 대해 싸우는 데 낭비하게 만든다. 만약 정부가 모든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요구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스스로 교육을 제공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다. 부모에게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든 자유롭게 하도록 맡기고, 가난한 계층 아이들의 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대신 지불할 사람이 없는 아이들의 모든 학교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국가 교육에 대해 이성적으로 제기되는 반론은 국가가 교육을 강제하는 것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교육을 지시하는 것을 스스로 떠맡는 것에 적용된다. 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국민 교육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반대한다. 개성의 중요성, 의견과 행동 방식의 다양성에 대해 말해진 모든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동일한 것으로서, 교육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국가 교육은 사람들을 서로 똑같이 만드는 단순한 장치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주조하는 틀은 정부의 지배적인 권력(이것이 군주이든, 사제 계급이든, 귀족이든, 현 세대의 다수이든)이 선호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비율에 따라 정신에 대한 독재를 확립하며, 자연적인 경향에 따라 신체에 대한 독재로 이어진다. 국가에 의해 설립되고 통제되는 교육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른 교육 실험을 특정 우수성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예시와 자극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여러 경쟁 실험 중 하나로서만 존재해야 한다. 물론 일반 사회가 너무 낙후되어 정부가 임무를 맡지 않으면 스스로 어떤 적절한 교육 기관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 말이다. 그런 경우, 정부는 두 가지 큰 악 중 덜한 것으로서 학교와 대학 사업을 스스로 떠맡을 수 있다. 민간 기업이 대규모 산업 사업을 undertaking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을 때, 합동 주식 회사 사업을 떠맡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의 후원 하에 교육을 제공할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사람이 국내에 있다면, 동일한 사람들은 교육을 강제하는 법률과,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 지원을 결합하여 제공되는 보상 보장 아래서,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똑같이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법을 강제하는 수단은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공공 시험 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각 아이가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봐야 할 나이를 정할 수 있다. 만약 아이가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아버지는 적절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경우 자신의 노동으로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아이는 그의 비용으로 학교에 보내질 수 있다. 매년 한 번씩 시험은 점차 확대되는 주제 범위로 갱신되어, 특정 최소한의 일반 지식을 보편적으로 습득하고, 더 중요하게는 유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그 최소한을 넘어, 모든 주제에 대해 자발적인 시험이 있어야 하며, 특정 숙련도 수준에 도달한 모든 사람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가 이러한 체도를 통해 의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 통과에 필요한 지식(언어와

그 사용과 같은 단순히 도구적인 지식 부분 외에)은 상급 시험에서도 사실과 실증 과학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종교, 정치, 또는 다른 논란이 많은 주제에 대한 시험은 의견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견이 그러한 저자, 학교, 또는 교회에 의해 그러한 근거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시스템 하에서, 떠오르는 세대는 현재보다 논란이 많은 모든 진리에 관해서 더 나쁜 상황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현재처럼 교회원이거나 비순응자로 양육될 것이며, 국가는 단지 그들이 교육받은 교회원이거나 교육받은 비순응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돌볼 뿐이다. 부모가 원한다면 다른 것들을 배우는 동일한 학교에서 종교를 배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국가가 논란이 많은 주제에 대한 시민의 결론을 편향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악이다. 그러나 국가는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한 그의 결론이 주목할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을 매우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 철학 학생은 록크와 칸트 모두에 대한 시험을 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든, 심지어 둘 다 선택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무신론자를 기독교의 증거에 대해 시험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은 없다. 단, 그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표방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나 상위 지식 분야의 시험은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격 부족을 이유로 어떤 사람을 직업에서, 심지어 교사 직업에서도 배제하도록 허용된다면 정부에 너무 위험한 권력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빌헬름 폰 훔볼트와 마찬가지로, 학위 또는 다른 과학적 또는 직업적 성과에 대한 공적 증명서는 시험에 응시하고 통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증명서는 경쟁자들에게 어떤 이점도 부여해서는 안 되며, 단지 공공 여론이 그 증언에 부여할 수 있는 가중치 외에는 어떤 이점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부모의 도덕적 의무가 인정되고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전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가 항상 있고, 후자에 대한 근거도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은 교육 문제에서만 잘못 적용된 자유 개념 때문이 아니다. 인간 존재를 야기하는 사실 자체는 인간 삶의 범위에서 가장 책임 있는 행동 중 하나이다. 이 책임을 떠맡는 것—저주가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는 삶을 부여하는 것—단지 부여받을 존재가 바람직한 존재의 보통 기회라도 갖지 않는다면, 그 존재에 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인구가 과밀하거나 그렇게 될 위협에 처한 나라에서는, 노동 경쟁으로 인해 노동 보상이 감소하는 효과로, 매우 적은 수를 넘어서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노동 보수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이다. 대륙의 많은 나라에서 당사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여주지 않는 한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은 국가의 합법적인 권한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법률이 타당하든 아니든(주로 지역적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자유 침해로서 반대할 만하지는 않다. 그러한 법률은 국가의 간섭으로서 해로운 행위—타인에게 해로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 처벌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더라도, 비난과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실제적인 침해에 쉽게 굴복하는 현재의 자유 개념은, 그들의 탐닉의 결과가 자녀에게 비참함과 타락의 삶,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악을 초래할 때, 그들의 성향에 어떤 제약을 가하려는 시도를 거부할 것이다. 인류의 자유에 대한 이상한 존중과 그것에 대한 이상한 존중 부족을 비교할 때, 우리는 사람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불가결한 권리를 가지며,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스스로를 기쁘게 할 권리는 전혀 없다고 상상할 수 있다.

나는 정부 간섭의 한계에 관한 많은 종류의 질문들을 마지막에 남겨 두었다. 이 질문들은 이 에세이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것들은 간섭에 반대하는 이유가 자유 원칙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이다. 문제는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정부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것을 하거나 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또는 자발적인 조합으로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자유 침해를 포함하지 않는 정부 간섭에 대한 반론은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해야 할 일이 정부보다 개인에 의해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누구에 의해 수행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그 사업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 이 원칙은 입법부 또는 정부 공무원의 일반적인 산업 과정에 대한 간섭을 비난한다. 이는 한때 매우 흔했던 간섭이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치 경제학자들이 충분히 자세히 다루었으며, 이 에세이의 원칙과는 특별

히 관련이 없다.

두 번째 반론은 우리의 주제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많은 경우, 개인들이 정부 공무원만큼 특정 일을 평균적으로 잘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것보다 그들 자신만의 정신 교육의 수단으로, 그들의 활동적인 능력을 강화하고, 판단력을 행사하며, 그들이 다루도록 남겨진 주제에 대한 익숙한 지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그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배심원 재판(정치적 경우가 아닌 경우), 자유롭고 대중적인 지방 및 시립 기관, 자발적 협회에 의한 산업 및 자선 기업의 운영의 주요, 비록 유일하지는 않은 추천 사항이다. 이것들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인 경향에 의해서만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발전의 문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국민 교육의 일부로서, 즉 시민의 독특한 훈련으로서, 자유로운 사람들의 정치 교육의 실질적인 부분으로서,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이기심의 좁은 원에서 벗어나, 공동 이익의 이해, 공동 문제의 관리, 즉 공공 또는 반공공적인 동기에서 행동하고, 그들의 행동을 서로를 고립시키는 대신 통합하는 목표로 인도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현재와는 다른 기회에 속한다. 이러한 습관과 힘이 없다면, 자유 헌법은 작동될 수도 보존될 수도 없다. 이는 지방 자유의 충분한 기반 위에서 서 있지 않은 나라에서 정치적 자유가 너무나 자주 일시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예증된다. 지방에 의한 순전히 지방 사업의 관리와 금전적 수단을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사람들의 연합에 의한 대규모 산업 기업의 관리는, 이 에세이에서 개인 발전의 개성 및 행동 방식의 다양성에 속한다고 제시된 모든 장점에 의해 더욱 추천된다. 정부 운영은 어디에서나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개인과 자발적 협회는 반대로 다양한 실험과 끝없는 경험의 다양성을 가진다. 국가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시험에서 얻은 경험의 중앙 저장소, 그리고 활발한 유통 및 확산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의 임무는 각 실험가가 자신의 실험만 용납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실험으로부터 혜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간섭을 제한하는 세 번째이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정부 권력을 추가하는 것의 큰 해악이다. 정부가 이미 행사하는 기능에 추가되는 모든 기능은 희망과 두려움에 대한 그것의 영향력을 더 넓게 확산시키고, 대중의 활동적이고 야심적인 부분을 정부의 추종자, 또는 정부가 되려는 어떤 당의 추종자로 점점 더 많이 변모시킨다. 도로, 철도, 은행, 보험 회사, 거대 합자 회사, 대학, 그리고 공공 자선 단체가 모두 정부의 지부라면, 게다가 현재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것과 함께 시립 공사 및 지방 위원회가 중앙 행정부의 부서가 된다면, 이러한 모든 다른 기업의 직원들이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급여를 받으며, 모든 삶의 상층을 정부에 의존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입법부의 대중적 헌법은 이 나라나 다른 어떤 나라도 이롭지만 자유 국가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 기구가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축될수록—그것을 작동시킬 최고의 자격 있는 손과 머리를 얻기 위한 조치가 더 숙련될수록—해악은 더 커질 것이다. 영국에서는 최근 정부의 공무원 모두를 경쟁 시험으로 선발하여, 그 일에 가장 지적이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확보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이 제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많이 있었다. 반대자들이 가장 강력히 주장한 논거 중 하나는, 국가의 영구적인 공무원 직업이 직업이나 기업 및 다른 공공 기관의 서비스에서 항상 더 매력적인 경력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재능을 끌어들이 만큼 충분한 봉급과 중요성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제안의 주요 어려움에 대한 답변으로 제안의 친구들에 의해 사용되었다면 놀랄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반대자들로부터 나온 것은 꽤 이상하다. 반론으로 제시되는 것은 제안된 시스템의 안전 밸브이다. 만약 실제로 국가의 모든 뛰어난 재능이 정부의 서비스로 끌어들여질 수 있다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 제안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약 사회 사업 중 조직된 협의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견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이 정부의 손에 있고, 정부 기관이 가장 유능한 사람들로 보편적으로 채워진다면, 순전히 사변적인 것을 제외한 국내의 모든 확장된 문화와 숙련된 지성은 많은 수의 관료제에 집중될 것이다. 그 관료제에게만 나머지 공동체는 모든 것을 기대할 것이다. 대중은 해야 할 모든 일에서 방향과 지시를 기대하고, 유능하고 야심찬 사람들은 개인적인 발전을 기대할 것이다. 이 관료제의 대열에 들어가고, 일단 들어가면 그 안에서 승진하는 것이 유일한 야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체제 하에서는 외부 대중은 실질적인 경험 부족으로 인해 관료제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거나 견제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제 정치의 우연 또는 대중 기관의 자연적인 작동이 개혁 성향의 통치자 또는 통치자를 가끔 정상에 올리더라도, 관료제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이 러시아 제국의 비참한 상태이다. 관찰 기회를 충분히 가졌던 사람들의 기록에 나타나듯이 그렇다. 차르 자신은 관료제에 대해 무력하다. 그는 그들 중 누구든지 시베리아로 보낼

수 있지만, 그들 없이는 또는 그들의 의지에 반해서 통치할 수 없다. 그의 모든 법령에 대해 그들은 단지 그것을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인 거부권을 가진다. 더 발전된 문명과 더 반란적인 정신을 가진 나라에서는, 대중은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국가로부터 허락을 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묻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익숙해져 있어, 자신들에게 닥치는 모든 악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악이 인내심의 한도를 넘어서면 정부에 맞서 소위 혁명을 일으킨다.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합법적인 권위가 있든 없든 다른 누군가가 자리에 뛰어들어 관료제에 명령을 내리고,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이 진행된다. 관료제는 변하지 않고, 다른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프랑스에서는 인구의 상당 부분이 군 복무에 종사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부사관 계급을 가졌으므로, 모든 대중 봉기에는 주도권을 잡고 어떤 그럴듯한 행동 계획을 즉흥적으로 고안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있다. 프랑스인이 군사 문제에서 그러하듯이, 미국인은 모든 종류의 민사 업무에서 그러하다. 그들이 정부 없이 남겨지더라도, 모든 미국인 집단은 하나를 즉흥적으로 고안하고, 그 일 또는 다른 어떤 공공 업무를 충분한 지성, 질서, 결단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자유 민족이 되어야 할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민족은 자유로울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중앙 행정부의 고삐를 장악하고 당길 수 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게도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어떤 관료제도 이러한 민족에게 그들이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하거나 견도록 만들기를 희망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관료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관료제가 진정으로 반대하는 어떤 것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국가의 헌법은 나머지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경험과 실용적인 능력을 훈련된 단체로 조직한 것이다. 그리고 그 조직 자체가 더 완벽할수록, 공동체의 모든 계층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자신을 위해 교육하는 데 더 성공할수록, 관료제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예측은 더 완전해진다. 통치자들은 피통치자가 통치자에게 예측된 것처럼, 그들의 조직과 규율의 노예이다. 중국 만다린은 가장 낮은 농민만큼이나 독재의 도구이자 피조물이다. 개별 예수회원은 그의 교단의 노예 중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교단 자체는 구성원들의 집단적 권력과 중요성을 위해 존재한다.

또한, 국가의 모든 주요 능력이 통치 기구에 흡수되는 것은 조만간 그 기구 자체의 정신적 활동성과 진보성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모든 시스템처럼 대체로 고정된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료들은 게으른 일상에 빠지거나, 가끔 그 쳃바퀴에서 벗어나면, 조직의 일부 지도급 구성원의 공상에 사로잡힌 어떤 반쯤 검토된 미숙한 아이디어로 돌진하려는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린다. 그리고 이러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결보기에는 반대되는 경향에 대한 유일한 견제, 즉 조직 자체의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극은 조직 외부의 동등한 능력의 면밀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능력을 형성하고 위대한 실용적인 일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필요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이 정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영구적으로 숙련되고 효율적인 공무원 집단을 가지고 싶다면—무엇보다도 개선을 창출하고 기꺼이 채택할 수 있는 집단이라면—우리의 관료제가 학자적 독재로 퇴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 집단은 인류 통치에 필요한 능력을 형성하고 배양하는 모든 직업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인간 자유와 발전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악이 시작되는 지점, 또는 오히려 사회의 힘이 그 지도자들의 통제 하에 집단적으로 적용되어 웰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따르는 이점보다 우세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결정하는 것; 일반 활동의 너무 많은 부분을 정부 경로로 전환하지 않고도 가질 수 있는 중앙 집중화된 권력과 지성의 이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통치 기술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상당 부분 세부 사항의 문제이며, 많은 다양한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절대적인 규칙을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안전이 존재하는 실질적인 원칙, 염두에 두어야 할 이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체도를 평가할 기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전달될 수 있다고 믿는다. 효율성과 일치하는 가장 큰 권력 분산; 그러나 정보의 가장 큰 중앙 집중화 및 중앙으로부터의 확산이다. 따라서 지방 행정에서는 뉴잉글랜드 주와 같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 나은 모든 업무에 대해 지방에서 선택된 별도의 공무원들 사이에 매우 세부적인 분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각 지방 업무 부서에는 일반 정부의 한 지부를 구성하는

중앙 감독 기관이 있을 것이다. 이 감독 기관은 모든 지방의 해당 공공 업무 수행,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사한 것들, 그리고 정치 과학의 일반 원칙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하나의 초점으로 집중시킬 것이다. 이 중앙 기관은 이루어진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어야 하며, 그 특별한 의무는 한 곳에서 얻은 지식을 다른 곳에서 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고양된 위치와 포괄적인 관찰 영역으로 인해 지방의 사소한 편견과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그 조인은 당연히 많은 권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영구적인 기관으로서의 실제 권력은, 나의 생각에, 지방 공무원들이 그들의 안내를 위해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제한되어야 한다. 일반 규칙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일에서, 그 공무원들은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면서 자신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규칙 자체는 입법부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중앙 행정 당국은 단지 그 실행을 감독하고, 만약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을 집행할 법원 또는 그 정신에 따라 실행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해임할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빈민법 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빈민세 관리자들을 감독하기 위해 의도된 중앙 감독이다. 위원회가 이 한계를 넘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그 특별한 경우에, 단지 지방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리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옳고 필요했다. 어떤 지방도 잘못된 관리로 인해 빈곤의 소굴을 만들 도덕적 권리가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지방으로 넘쳐나고, 전체 노동 공동체의 도덕적, 신체적 상태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빈민법 위원회가 가진 행정 강제력 및 하위 입법 권한(주체에 대한 의견 상대 때문에 매우 드물게 행사되지만)은 일류 국가 이익의 경우에 완벽하게 정당화될지라도, 순전히 지방 이익의 감독에는 완전히 부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을 위한 정보 및 교육 중앙 기관은 행정의 모든 부서에서 똑같이 가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노력과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자극하는 종류의 활동을 너무 많이 가질 수는 없다. 해악은 개인과 단체의 활동과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자신의 활동을 그들의 활동으로 대체할 때 시작된다.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고, 필요에 따라 비난하는 대신, 그들을 족쇄에 묶어 일하게 하거나,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의 일을 대신 할 때 시작된다. 국가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이다. 그리고 정신적 확장고 고양의 이익을, 약간 더 많은 행정 기술, 또는 실체가 사업의 세부 사항에서 제공하는 그 외관에 우선시키는 국가; 심지어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더 온순한 도구가 되도록 사람들을 왜소화시키는 국가는, 작은 사람으로는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희생한 기계의 완벽함이 결국에는 그것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기계가 더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추방하기를 선호했던 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FOOTNOTES

[6] 이 글을 쓰자마자, 마치 이를 강렬히 부정이라도 하듯, 1858년 정부의 언론 기소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공공 토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본문의 단 한 글자도 바꾸지 못했으며, 공포에 휩싸인 순간을 제외하면 정치적 토론에 대한 처벌의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라졌다는 내 확신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다. 첫째, 그 기소는 계속되지 않았고, 둘째, 엄밀히 말해 정치적 기소가 아니었다. 기소된 혐의는 제도나 통치자의 행위 또는 인물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폭정 제거의 정당성이라는 부도덕하다고 여겨진 가르침을 퍼뜨린 것으로 간주된 것이었다.

본 장의 논거가 조금이라도 타당하다면, 어떤 가르침이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그것을 윤리적 신념의 문제로 삼아 자유롭게 주장하고 토론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폭정 제거의 가르침이 그러한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일이다. 나는 단지 이 주제가 항상 도덕의 열린 질문 중 하나였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법 위에 자신을 두어 법적 처벌이나 통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범죄자를 개인 시민이 처단하는 행위는, 여러 국가와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들에게 의해 범죄가 아니라 고귀한 덕행으로 여겨져 왔다. 옳든 그르든, 이는 암살의 성격이 아니라 내전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특정 사례에서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처벌의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명백한 행동이 뒤따랐고 그 행동과 부추김 사이에 적어도 개연성 있는 연관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 그 경우에도, 외국 정부가 아니라 공격받은 바로 그 정부만이 자위의 행사로서 자신의 존재를 겨냥한 공격에 대해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다.

[7] 토마스 풀리(Thomas Pooley), 보드민 법정, 1857년 7월 31일. 그해 12월, 그는 왕실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받았다.

[8] 조지 제이콥 홀리오크(George Jacob Holyoake), 1857년 8월 17일; 에드워드 트루러브(Edward Truelove), 1857년 7월.

[9] 글라이헨 남작(Baron de Gleichen), 말보로 스트리트 경찰 법원, 1857년 8월 4일.

[10] 세포이 반란 당시 우리 국민성의 최악의 부분이 드러난 가운데, 박해자의 열정이 크게 섞여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경고를 얻을 수 있다. 설교단에서 나온 광신자나 사기꾼의 헛소리는 주목할 가치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복음주의파의 지도자들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통치하는 원칙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공적 자금으로 지원받지 않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실제든 가식이든 기독교인에게만 공적 직책이 주어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1857년 11월 12일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한 국무차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의 신앙에 대한 관용, 즉 그들이 종교라고 부르는 미신을 영국 정부가 용인한 것은 영국 이름의 우위를 낮추고 기독교의 건전한 성장을 막는 효과를 가져왔다... 관용은 이 나라 종교적 자유의 큰 초석이었다. 그러나 그 귀중한 단어 ‘관용’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관용은 모든 이에게 완전한 자유, 즉 동일한 기초 위에서 예배하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예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의 중재를 믿는 모든 기독교 종파와 교파에 대한 관용을 뜻한다.” 나는 이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즉, 자유주의 내각 아래에서 이 나라의 높은 직책을 맡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모든 이는 관용의 범위 밖에 있다는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어리석은 태도 이후에 누가 종교적 박해가 사라졌으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을 수 있겠는가?